# 『1950 년, 악역 영애는 일본을 멸망시키고 싶다』

—전생했더니 이세계가 아니라 6·25 전쟁 직전의 일본이었다—

## 제 2 화  약혼자가 있다고?

작가: haniyasubime

1950 년 5 월 26 일. 도쿄.

키신 미리아가 72 년 전의 일본에서 눈을 뜬 뒤 하룻밤이 지났다.

“아가씨. 일어나셨습니까?”

“……깨어 있어.”

얇은 커튼 너머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어제와 똑같이 터무니없이 높은 천장. 정교한 조각.

그 한가운데에서 내려온 커다란 샹들리에.

눈을 감았다.

다시 떴다.

“……꿈 아니구나.”

시녀가 창가의 커튼을 걷었다.

“무슨 말씀이라도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아냐.”

미리아는 이불 위로 오른손을 내밀었다.

손가락을 폈다. 오므렸다.

다시 한 번 폈다.

하얗게 일어나 있던 피부가 없다.

소독용 알코올이 스며들던 갈라진 상처도, 손톱 옆의 붉은 기운도.

전부 사라져 있었다.

“……열아홉 살 손이네.”

“아가씨?”

“혼잣말.”

어젯밤에는 몇 번이나 거울을 봐도 똑같았다.

볼을 만져도, 머리카락을 잡아당겨도, 팔을 꼬집어도.

스물아홉 살로 돌아가지 않았다.

키신 미리아.

열아홉 살.

1950 년.

쇼와 25 년.

아버지라는 듯한 남자는 중절모에 나비넥타이, 오른쪽 눈에는 안대.

오른쪽 다리는 의족.

누가 봐도 악의 조직 수령이었다.

그리고 정말로 정체불명의 수상한 조직 수령이었다.

게다가 조직 이름은 《일본 끝장 클럽》.

『우리 NOC 는――일본을 말살한다.』

"……최고."

다시 생각해 보니.

"아침부터 속 더부룩해지는 설정이네."

"오늘은 안색도 좋아 보이십니다."

"배고파."

"다행입니다."

시녀가 살짝 웃었다.

"아침 식사는 옆방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식당 아니고?"

"아직 회복 중이시니 오늘 아침은 이쪽에서 드시라는 분부가 있었습니다."

"아아. 그렇구나."

침대에서 내려왔다.

맨발을 바닥에 댔다.

어제만큼 몸이 휘청거리지는 않았다.

가볍다.

아니, 그보다.

"열아홉 살은 몸이 가볍네……"

"아가씨?"

"스물아홉 되면 알아."

"?"

“잊어.”

*

침실과 이어진 개인실에는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하얀 리넨을 덮은 둥근 테이블과 은제 커틀러리.

작은 유리 그릇에 담긴 버터와 살구잼.

얇게 구운 토스트와 과일.

그리고 김이 오르는 노란 오믈렛.

“……호화로운데.”

“회복 중이셔서 가볍게 준비했습니다.”

“이게 가벼운 거야?”

의자를 빼고 앉았다.

눈앞에는 백자 찻잔이 놓여 있었다.

얇은 자기 위에 가느다란 금장. 가장자리에는 옅은 꽃무늬가 그려져 있다.

받침도 같은 무늬였다.

“이거 비싼 거야?”

“노리타케입니다.”

“……깨뜨리면 혼나?”

“아가씨 물건이십니다만.”

“그게 더 무섭잖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었다.

얇다.

2022 년에 집에서 쓰던 머그컵과는 완전히 달랐다.

살며시 받침 위에 내려놓았다.

“홍차를 따라 드리겠습니다.”

“부탁해.”

호박빛 홍차가 잔에 채워졌다.

미리아는 향을 맡았다.

“좋은 냄새.”

“실론티입니다.”

“아침부터 우아하네……”

한 모금 마셨다.

“맛있어.”

이번에는 오믈렛을 보았다.

표면은 매끈하고 선명한 노란색이었다.

포크를 들려다가.

멈췄다.

“저기.”

“네?”

“케첩 있어?”

“있습니다.”

“가져와 줘.”

“알겠습니다.”

잠시 뒤, 작은 그릇에 담긴 케첩이 왔다.

미리아는 그것을 본 뒤 시녀를 바라보았다.

“이걸로 말이야.”

“네.”

“오믈렛에 하트 그려 줘.”

“……”

미리아는 오믈렛 위에서 손가락으로 하트 모양을 그렸다.

“하트…… 말씀이십니까?”

“응.”

“무엇을 위해서요?”

“귀여우니까.”

“……”

“큰 걸로.”

시녀는 몇 초 동안 미리아를 바라보았다.

“아가씨께서 직접 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이건 메이드가 해 줘야 제맛이지.”

“그런 것입니까?”

“그런 거야.”

시녀는 작은 숟가락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케첩을 떨어뜨렸다.

붉은 선이 뻗어 나가다 휘었다.

반대쪽 선도 이어졌다.

노란 오믈렛 한가운데에 빨간 하트가 완성됐다.

“오오—!”

미리아의 눈이 반짝였다.

“잘하잖아!”

“감사합니다……?”

“사진 찍고 싶다.”

“사진이요?”

“아.”

주머니로 손을 뻗었다.

당연히 스마트폰 따위는 없다.

“……없지.”

“무엇이 말씀이십니까?”

“미래.”

“?”

미리아는 포크로 하트를 갈랐다.

“잘 먹겠습니다.”

속은 부드러웠다.

“맛있다!”

조금 먹었다.

다시 홍차.

토스트에는 살구잼.

“전생한 곳, 식생활만큼은 당첨이네.”

“전생……이요?”

“신경 쓰지 마.”

그러다 미리아는 시녀를 바라보았다.

“저기……”

“네.”

“손 좀 이렇게 해 봐.”

두 손을 가슴 앞으로 가져갔다.

손가락으로 작은 하트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이십니까?”

“그래, 그래.”

시녀도 따라 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무엇을요?”

미리아는 활짝 웃었다.

“모에모에 큥♡”

“……”

“자.”

“……”

“해 봐.”

“제가 말입니까?”

“여기 또 누가 있는데.”

시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모에모에.”

“큥♡까지.”

“……큥.”

“목소리가 너무 작아!”

“꼭 필요한 것입니까?”

“미래에서는 중요한 접객 기술이야.”

“미래요?”

“혼잣말.”

“……”

“한 번 더.”

“모에모에, 큥.”

“표정!”

“표정이요?”

“좀 더 활짝 웃어.”

“……”

시녀가 서투르게 웃었다.

“모에모에…… 큥♡”

미리아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합격.”

“무엇에 말입니까?”

“접객 기술.”

“아가씨……”

“응?”

“정말 건강해지셨군요.”

“내가 의식 잃기 전에는 대체 어땠는데?”

“……”

시녀는 아무 말 없이 홍차를 더 따랐다.

“왜 거기서 입 다무는데?”

*

아침 식사를 마친 미리아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대었다.

“잘 먹었습니다.”

“치우겠습니다.”

“고마워.”

시녀가 접시를 치워 갔다.

테이블에는 신문과 얇은 책자 한 권만 남았다.

먼저 신문을 펼쳤다.

낯선 활자를 따라가다가 광고에서 눈이 멈췄다.

《히로폰 정》

《피로 방지·두뇌 명석화》

바로 근처에는 청소년의 히로폰 상용을 문제 삼는 기사.

“팔면서 화내고 있잖아, 이 시대.”

곳곳에는 어제 라디오에서 들었던 이름도 보였다.

《맥 원수, 대일 강화 문제 언급》

《GHQ, 접수 시설 정리 진행》

“맥 원수……?”

2 초쯤 생각했다.

“아. 맥아더.”

미리아는 신문의 날짜를 보았다.

쇼와 25 년 5 월 26 일.

“진짜네……”

아직도 위화감이 있었다.

스마트폰 뉴스 앱도 아니다. 텔레비전도 아니다.

종이. 잉크 냄새.

그게 오늘의 뉴스였다.

“1950 년……”

신문을 접었다.

그 밑에 있던 책자를 집어 들었다.

표지에는 크게,

《NOC》

어제도 봤던 세 글자.

“……일본 끝장 클럽.”

작게 중얼거렸다.

그런데 그 아래를 보았다.

“일본·크게·회사?”

《NIPPON OOKIKU COMPANY》

“……응?”

하나씩 읽었다.

“NIPPON.”

일본.

“OOKIKU.”

크게.

“COMPANY.”

회사.

"……'돼라'는 어디 갔는데?"

"의역입니다."

"너무 대충이잖아!!"

"……"

미리아는 책자를 뒤집었다가 다시 표지를 보았다.

《NIPPON OOKIKU COMPANY》

식기를 치우던 시녀가 표지의 세 글자를 가리켰다.

"NOC 입니다."

"어제 들은 거랑 정반대잖아."

페이지를 넘겼다.

통조림 제조.

수산·식품 가공.

강관·파이프 가공.

화물 운송.

기계 가공.

창고업.

위생용품.

해외 지점.

지도에는 일본뿐 아니라 북미, 유럽, 동남아시아에도 표시가 있었다.

"……크다."

한 장 더.

처음 보는 지점명이 줄줄이 적혀 있다.

"전 세계에 있잖아."

"네."

"겉만 보면 평범한 회사네."

"……"

"왜 입 다무는데."

더 넘겼다.

"통조림 만들고."

한 장.

“파이프 가공하고.”

한 장.

“짐 나르고.”

한 장.

“대체 뭐 하는 회사야?”

“NOC 입니다.”

“대답이 안 됐거든.”

책자를 덮었다.

표지에는,

《일본·크게·회사》.

그 뒤편에서는,

《일본 끝장 클럽》.

“나라 속일 생각이 아주 만만이네……”

그때.

문을 세 번, 조용히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미리아 님. 실례하겠습니다.”

“들어와.”

문이 열렸다.

윤 설희가 들어왔다.

“……”

어제와는 인상이 달랐다.

검은 테일러드 재킷에 몸에 맞는 검은 바지.

재킷 안쪽에는 선명한 붉은 베스트.

하얀 셔츠의 칼라까지 흐트러진 곳이 없다.

스커트가 아니다.

열아홉 살 영애가 입을 법한 옷도 아니다.

완전히 일하는 사람의 차림이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미리아 님.”

“좋은 아침, 설희 씨.”

미리아는 설희를 위아래로 훑었다.

"……그거 편해 보이네."

"무엇이 말씀이십니까?"

"옷."

"그렇습니까?"

"나도 그게 좋아."

"오늘은 갈아입으실 옷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설희는 무시했다.

"우선 몸은 어떠십니까?"

"엄청 멀쩡해."

"아침 식사도?"

"완식."

"다행입니다."

설희의 표정이 아주 조금 풀렸다.

"키라 님께서도 몹시 걱정하셨습니다."

"……"

미리아의 움직임이 멈췄다.

"누구?"

"키라 님입니다."

"그건 들었어."

"타카츠카사 키라 님."

"몰라."

"……"

설희가 미리아를 바라보았다.

"정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시는군요."

"어제부터 계속 말했잖아."

"타카츠카사 키라 님은 미리아 님의――"

한 박자.

"약혼자이십니다."

"……"

"……"

미리아가 벌떡 일어났다.

"약혼자?"

"네."

"내?"

"네."

"남자?"

"당연합니다."

"부자?"

"타카츠카사 가문의 적장자이시니까요."

"……"

미리아의 얼굴이 환해졌다.

"왔다."

"무엇이 말씀이십니까?"

"이거 악역 영애 전생이잖아!"

"……"

"열아홉 살!"

"네."

"부잣집 영애!"

"네."

"약혼자!"

"네."

"조건 다 갖췄잖아!"

"무슨 조건 말씀이십니까?"

미리아는 가슴을 폈다.

"원작 히로인을 추방하고, 약혼자한테는 사이다 복수 한 방 먹이는 거지!"

설희가 입을 다물었다.

"……"

"뭐야, 그 표정."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 보시는 편이."

“정상이야!”

*

“너무 조여!!”

수십 분 뒤.

미리아는 화장대 앞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아가씨. 아직 그렇게까지 조이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뒤에서 시녀가 허리 부분을 정돈하고 있었다.

“이러다 오줌 지릴 것 같은데!”

“아가씨!”

“방광에 자유를!”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다리는 설희는 여전히 검은 팬츠 슈트에 붉은 베스트 차림이었다.

미리아가 거울 너머로 노려보았다.

“설희 씨만 너무 치사한 거 아냐?”

“무엇이 말씀이십니까?”

“그 옷.”

“미리아 님께는 이쪽이 잘 어울립니다.”

“바꾸자.”

“싫습니다.”

드디어 옷을 다 입었다.

준비되어 있던 것은 옅은 아이보리색 데이드레스였다.

파리의 크리스찬 디올이 유행시킨 《New Look》을 참고해 미리아만을 위해 맞춘 주문 제작품.

어깨는 부드럽게 둥글고, 상체는 몸에 붙으며, 허리는 가늘게 조여 있었다.

거기서부터 천을 아끼지 않은 스커트가 크게 퍼져 종아리 중간까지 내려왔다.

허리에는 가느다란 자주빛 벨트.

열아홉 살의 검은 머리와 옅은 아이보리.

검정과 빨강의 설희와는 완전히 정반대였다.

“……천 엄청 많네.”

“미리아 님께서 좋아하시던 형태입니다.”

“이쪽의 나는 옷에는 돈 좀 쓰는 타입이었나 보네.”

“?”

미리아는 거울을 바라보았다.

가늘게 조인 허리. 크게 퍼진 스커트.

열아홉 살의 얼굴과 긴 검은 머리.

“……”

아무리 봐도.

“악역 영애잖아.”

“아가씨이십니다.”

“비슷한 거 아냐?”

“다릅니다.”

“설희 씨는?”

“저는 업무가 있으니까요.”

“나도 지금부터 은행 가는 거잖아?”

“네.”

“그럼 나도 업무복 입으면 되잖아.”

“미리아 님은 키라 님을 만나십니다.”

“……”

미리아는 다시 한 번 거울을 보았다.

“약혼자 하나 만나는데 이 장비가 필요해?”

“필요합니다.”

“1950 년, 빡세네……”

*

저택의 현관을 나서는 순간.

미리아의 발이 멈췄다.

“……”

차고가 있었다.

검은 승용차와 화물 트럭.

업무용으로 보이는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 끝에——.

오토바이 한 대.

“.....Indian.”

설희가 돌아보았다.

“미리아 님?”

미리아는 몇 걸음 가까이 갔다.

커다란 인디언 레드 차체.

탱크에 적힌 글자.

“Chief 네……”

“알고 계십니까?”

“알지.”

살짝 웃었다.

“나도 탔었어.”

“……”

“뭐?”

“미리아 님께서는 승마만 하셨습니다만.”

“이쪽의 내가 아니거든.”

“?”

“아무것도 아냐.”

손끝을 뻗었다.

탱크에 닿기 직전에서 멈췄다.

“……나중에 보자.”

“미리아 님?”

“얘한테 말한 거야.”

“오토바이에게요?”

“응.”

“……”

“또 의사 부를 것 같은 얼굴 하지 마.”

현관 앞에는 검게 칠한 대형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다.

1949 년형 패커드 슈퍼 에이트.

둥글고 커다란 차체와 긴 보닛.

윤이 나도록 닦인 검은 도장 위에 아침 햇살이 비쳤다.

"……이것도 크네."

운전기사가 뒷좌석 문을 열었다.

"아가씨, 타시지요."

"네, 네."

미리아는 아쉬운 듯 Indian 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이보리색 스커트를 들어 올리며 패커드에 올라탔다.

뒤이어 설희.

검정과 빨강.

아이보리와 자주빛.

둘이 나란히 있으니 같은 조직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보이지 않았다.

"타카츠카사 은행으로."

설희가 말했다.

엔진이 걸렸다.

미리아는 좌석에 몸을 묻었다.

"저기, 설희 씨."

"네."

"키라 님은 어떤 사람이야?"

설희는 잠시 생각했다.

"구 화족 타카츠카사 가문의 적장자이십니다."

"구 화족……"

"나머지는 만나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게 제일 곤란한 대답인데."

검은 패커드가 천천히 저택을 떠났다.

창밖으로 1950 년 5 월의 거리가 흐르기 시작했다.

*

검은 패커드가 저택을 떠난 뒤 잠시.

차 안에서는 라디오가 작게 울리고 있었다.

영어 안내 방송.

이어서 여자의 노랫소리가 흘러나왔다.

현악기를 곁들인 달콤하고 조금 쓸쓸한 선율.

"……좋은 노래네."

미리아는 창밖을 바라본 채 말했다.

"《My Foolish Heart》입니다."

"무슨 뜻이야?"

"'어리석은 마음' 정도일까요."

"……"

"약혼자 만나러 가는 길에 틀 제목은 아니잖아."

"방송국은 미리아 님의 일정을 모르니까요."

"그건 그렇지만."

라디오 다이얼에는 낯선 숫자가 늘어서 있었다.

"이거 어디 방송이야?"

"FEN 입니다."

"FEN?"

"점령군을 위한 방송입니다."

"아아…… 미군 라디오구나."

미리아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1950 년 5 월의 도쿄.

기와지붕을 얹은 낮은 상점.

자전거와 손수레.

양복 입은 남자와 기모노 입은 여자.

곳곳에 남은 빈터.

새 건물과 낡은 건물이 뒤섞이고, 그 사이로 영어 간판이 보였다.

그리고.

"……"

맞은편 차선에서 올리브 드랩색 대형 트럭이 달려왔다.

닷지 군용 트럭.

적재함에는 미군 병사 몇 명이 타고 있었다.

허리 길이의 아이크 재킷.

개리슨 캡.

한 병사는 긴 소총을 무릎 사이에 세워 놓고 있었다.

“M1 개런드……”

“알고 계십니까?”

설희가 미리아를 보았다.

“알지. FPS 에서.”

“FPS?”

“아—……”

미리아는 잠깐 생각했다.

“미래의 군사 교양.”

“……”

“그 표정 좀 그만해.”

닷지 트럭이 뒤로 사라졌다.

미리아는 몸을 돌려 리어 윈도 너머로 그 모습을 쫓았다.

“총 든 외국 군인이 아무렇지도 않게 도쿄를 돌아다니네.”

“점령군이니까요.”

“……”

알고 있었다.

일본은 전쟁에서 졌다. 점령당했다.

맥아더. GHQ.

학교에서도 배웠다.

하지만.

총을 든 외국 병사가 평범한 아침 풍경 속에 섞여 있다.

그 모습을 보자.

1950 년이라는 숫자가 갑자기 현실감을 띠었다.

“진짜로…… 진 뒤구나.”

설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윽고 《My Foolish Heart》가 끝났다.

운전기사가 라디오 다이얼에 손을 뻗었다.

치이익——.

잡음.

영어가 사라졌다.

대신 딱딱한 일본어가 흘러나왔다.

『——이어서 경제 동향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낭만 다 죽었네.”

『닷지 라인에 따른 금융 긴축의 영향으로 중소기업을 둘러싼 상황은 여전히 어려우며——』

“……”

미리아가 눈썹을 찌푸렸다.

“설희 씨.”

“네.”

“닷지 라인이 뭐야?”

“경제 안정 정책입니다.”

“뭘 안정시키는데?”

“주로 인플레이션을요.”

“경기를 좋게 만드는 거야?”

“오히려 반대입니다.”

“반대라고?”

“정부 지출을 억제하고 금융을 긴축합니다.”

“……”

미리아는 잠시 생각했다.

“경기를 식혀서 열을 내리는 느낌?”

“상당히 거친 표현이지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극약 처방이네.”

라디오는 계속됐다.

『——또한 샤우프 권고에 따른 세제 개혁에 대해서——』

“또 모르는 이름 나왔다.”

“샤우프 박사입니다.”

“누구?”

“미국의 조세 사절단을 이끈 인물입니다.”

“일본 세금 정하러 온 거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

미리아는 손가락을 하나씩 접었다.

“맥아더 있고.”

“네.”

“미군이 거리를 돌아다니고.”

“네.”

“경제는 닷지.”

“네.”

“세금은 샤우프.”

“네.”

“……완전 미국이잖아.”

“점령하니까요.”

“그 말 나오면 모든 대화가 끝나네.”

미리아는 좌석에 몸을 묻었다.

*

이윽고 창밖 풍경이 달라졌다.

건물은 커지고, 양복 입은 남자들이 늘어났다.

넓은 도로를 자동차들이 오갔다.

“아.”

미리아가 창문 가까이 얼굴을 가져갔다.

“무엇입니까?”

“저거.”

길 건너편에 커다란 건물이 나타났다.

무거운 석재 외벽과 굵은 열주 여러 개.

높은 창문과 거대한 정문.

“……크다.”

미리아는 한동안 바라보다가.

“오사카에 있는 미쓰이스미토모은행 같네.”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이요?”

“아.”

미리아가 설희를 보았다.

“아직 합체 전이구나.”

“……합체요?”

“미쓰이은행이랑 스미토모은행.”

“미쓰이은행이라면 전시 중 다이이치은행과 합병하여 현재는 제국은행입니다.”

“뭐?”

“스미토모은행은 재벌 해체로 오사카은행으로 개칭했습니다.”

“둘 다 이름 바뀌었잖아!”

“네.”

미리아는 은행을 바라보았다.

건물 정면에는 큼지막하게 이름이 걸려 있었다.

《타카츠카사 은행》

“여기?”

“네.”

“은행이라기보다 성인데.”

“은행입니다.”

“낭만 없기는.”

패커드가 현관 앞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

타카츠카사 은행 안은 밖에서 볼 때보다 훨씬 더 컸다.

높은 천장. 반들반들하게 닦인 바닥.

굵은 기둥과 황동 난간.

줄지어 늘어선 창구.

장부를 안은 은행원들이 분주하게 오갔다.

전화벨. 종이를 넘기는 소리. 만년필이 달리는 소리.

그 사이로 사람들의 목소리가 오갔다.

“……”

미리아는 목이 아플 만큼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악역 영애의 성은 여기로 해도 되겠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신경 쓰지 마.”

설희가 접수 창구의 은행원에게 말을 걸었다.

“키신 미리아 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순간.

은행원의 자세가 달라졌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은행원이 안쪽으로 사라졌다.

미리아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키라 님은 그렇게 높은 사람이야?”

“타카츠카사 가문의 적장자이시니까요.”

“구 화족.”

“네.”

“은행가 후계자.”

“네.”

“약혼자.”

“네.”

“……왕자님 포지션이잖아.”

“왕자요?”

“혼잣말.”

그때.

“미리아 씨.”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

미리아가 돌아보았다.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키가 크다.

옅은 크림색 슈트에 흰 셔츠.

파란 넥타이와 반짝이게 닦인 구두.

자세가 좋다. 이목구비도 반듯하다.

……아니.

상당히 잘생겼다.

"……"

"미리아 씨?"

"……있잖아."

"무엇이요?"

"아, 아니."

미리아는 남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구 화족.

후계자.

약혼자.

잘생김.

(공략 대상 있잖아.)

미리아 안에서 분류가 끝났다.

(네, 왕자님 포지션.)

남자는 미리아 앞까지 다가왔다.

"다행입니다."

"응?"

그 표정이 살짝 풀렸다.

"어젯밤 키신 댁에서 눈을 뜨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응."

"하지만 실제로 얼굴을 뵙기 전까지는 안심이 되지 않아서요."

"……"

미리아가 대답하려던 순간——

이상하게도 몸이 먼저 움직였다.

등이 곧게 펴졌다.

한쪽 발을 살짝 뒤로 빼고, 손가락을 스커트 자락에 댔다.

무릎을 조용히 굽혔다.

배운 기억은 전혀 없는데, 이상할 만큼 완성된 인사였다.

"……"

미리아는 그 자세 그대로 굳었다.

(뭐야, 이거.)

몸을 일으켰다.

(나 지금 커티시 했어?)

키라는 딱히 놀란 것 같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조금 안도한 듯 보였다.

(잠깐. 이쪽의 나, 진짜배기 아가씨였던 거야?)

남자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다.

"……?"

"뭐?"

"아닙니다."

미리아를 바라본다.

"말투가…… 상당히 달라지셨군요."

"아."

미리아가 설희를 보았다.

설희는 태연했다.

"의식을 잃으신 영향인 듯합니다."

"오사카 사투리를 뇌 후유증처럼 말하지 마!!"

목소리가 은행 안에 쩌렁쩌렁 울렸다.

은행원 몇 명이 돌아보았다.

"……"

미리아도 굳었다.

"여기 엄청 울리네."

"미리아 님."

"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남자는 아직도 미리아를 보고 있었다.

"오사카 사투리……?"

"정상이거든."

"네?"

"나는 정상."

"……그렇습니까."

"뭐야, 그 뜸은."

남자가 조금 웃었다.

"웃었지."

"아닙니다."

"웃었어."

"조금."

"정직하네."

미리아도 덩달아 웃었다.

그러자 남자의 표정이 다시 부드러워졌다.

"역시, 다행입니다."

"뭐가?"

"건강해 보이셔서요."

"……"

미리아는 입을 다물었다.

(곤란한데.)

좀 더 차갑고, 고압적이고.

약혼녀는 내버려 둔 채 언젠가는 평민 여자아이에게 빠져들고.

마지막에는 사람들 앞에서,

《키신 미리아! 너와의 약혼은 파기하겠다!》

같은 소리를 하는 남자를 상상했었다.

그런데.

눈앞의 남자는 진심으로 안심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엄청 좋은 사람 같잖아.)

(사이다 복수하기 힘들잖아……)

"저기."

"네?"

"키라 님?"

이번에는 남자 쪽이 멈췄다.

"그 호칭은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역시 키라 님이구나.”

“저택 사람들은 예전부터 그렇게 불렀습니다.”

“본명은 타카츠카사 키라.”

“네.”

“……키라 님.”

“네.”

“강하네.”

“무엇이요?”

“이름.”

“?”

“됐어.”

미리아는 오른손을 내밀었다.

“다시 인사할게. 키신 미리아입니다.”

“……”

키라가 그 손을 바라보았다.

“제 약혼녀에게 자기소개를 받은 건 처음입니다.”

“나도 처음이야.”

“그렇겠지요.”

키라는 웃으며 그 손을 잡았다.

“타카츠카사 키라입니다.”

“잘 부탁해.”

“저야말로.”

악수.

1950 년. 열아홉 살 영애.

구 화족 가문의 후계자가 약혼자.

(……조건 너무 완벽한데.)

“키라 님.”

그때.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미리아가 돌아보았다.

여성 은행원 한 명이 장부를 가슴에 안고 서 있었다.

자기보다 조금 어려 보인다.

안경에, 단정하게 땋은 양갈래 머리.

화려하지 않은 제복과 성실해 보이는 얼굴.

“이쪽을 부탁드립니다.”

“아아. 고마워요, 하야시다 씨.”

“네.”

소녀가 장부를 내밀었다.

그때.

미리아의 시선이 소녀의 왼손에 떨어졌다.

“……”

가운데손가락이.

중간부터 없었다.

딱 한순간.

미리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하지만 소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장부를 키라에게 건넸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잠깐.”

“네?”

소녀가 돌아보았다.

미리아는 다시 소녀를 바라보았다.

수수한 제복. 젊은 은행원.

그리고 구 화족 가문의 후계자 바로 곁에서 일하는 소녀.

“……”

(있잖아.)

“미리아 씨?”

키라가 고개를 갸웃했다.

“이 애는 누구야?”

“은행원 하야시다 유코 씨입니다.”

“하야시다 유코……”

“네. 하야시다 유코라고 합니다.”

유코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

미리아의 머릿속에서 존재하지도 않을 인물 소개가 맹렬한 속도로 조립되기 시작했다.

안경. 땋은 머리. 성실한 평민.

후계자 곁에서 일하는 소녀.

(왔다! 이거야.)

“……있었네.”

“무엇이 말씀이십니까?”

설희가 물었다.

미리아는 유코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원작 히로인.”

“……”

설희. 키라. 유코.

세 사람이 모두 입을 다물었다.

“……네?”

유코만 작게 소리를 냈다.

“아무것도 아냐.”

“아, 네……”

유코는 곤란한 듯 고개를 숙였다.

미리아는 그 뒷모습을 빤히 바라보았다.

(약혼자 있고.)

(후계자 있고.)

(평민 히로인도 있고.)

(이거 무조건 사랑 시작되는 거잖아.)

입가가 느슨해졌다.

“후후……”

“미리아 씨.”

“뭐?”

“아까부터 무엇이 그렇게 즐거우신 겁니까?”

“별거 아냐.”

“전혀 별거 아닌 얼굴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키라 님.”

“네.”

“인생에는 모르는 편이 행복한 일도 있는 법이야.”

“……기억을 잃은 분께 그런 말을 들으니 이상하게 설득력이 있군요.”

“누가 그렇게 센스 있게 받아치랬어.”

키라가 웃었다.

그 옆에서.

설희가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

세 사람은 은행 안쪽의 응접실로 안내받았다.

가죽 소파.

낮은 테이블.

커다란 창 너머로 도쿄 거리가 보였다.

아까 유코에게서 받은 장부를 훑어보던 키라가 그것을 덮었다.

“미리아 씨.”

“응?”

“이후에 시간 있으십니까?”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키라는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긴자에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긴자?”

“쾌유 축하입니다. 좋아하시는 푸딩 아라모드를 사 드리지요.”

“갈래!”

즉답이었다.

“……빠르시군요.”

“단것에는 검토 시간이 필요 없어.”

“예전부터 그 점은 변하지 않으셨군요.”

"……"

미리아의 움직임이 멈췄다.

"……좋아했어?"

"네. 상당히."

"푸딩 아라모드?"

"특히요."

"……"

"왜 그러십니까?"

"아니."

미리아는 살짝 시선을 피했다.

자기가 모르는 자기 자신.

열아홉 살의 키신 미리아.

그 애가 좋아하던 것을.

이 남자는 기억하고 있다.

"그럼."

미리아는 마음을 다잡았다.

"긴브라도 하자."

"긴브라?"

"긴자에서 어슬렁어슬렁."

"쇼핑도요?"

"해."

"푸딩도?"

"먹어."

"전부입니까?"

"쾌유 축하라며?"

"그랬지요."

키라가 웃었다.

"그럼 전부 하지요."

"좋았어!"

"미리아 님."

옆에서 설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뭐?”

“저는 먼저 돌아가겠습니다.”

“응?”

“NOC 에 용무가 있어서요.”

“나 두고 가게?”

“키라 님께서 모셔다드릴 겁니다.”

“물론입니다.”

키라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

미리아는 설희를 보았다.

“설희 씨.”

“네.”

“지금 일부러 둘만 남긴 거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얼굴, 분명 다 아는 얼굴인데.”

“모르겠습니다.”

“도망가지 마!”

“그럼, 미리아 님. 키라 님.”

설희는 고개 숙여 인사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봐! 절대 알고 있잖아!”

설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

은행 현관을 나왔다.

아침에 타고 왔던 검은 패커드는 설희를 태우고 먼저 떠났다.

“……”

그 뒷모습을 배웅한 뒤.

미리아는 현관 앞에 세워진 다른 차로 눈을 돌렸다.

“……귀엽다.”

옅은 하늘색 차체와 긴 보닛.

크게 휘어진 펜더와 햇빛을 튕기는 크롬.

지붕을 내린 대형 오픈카.

1950 년형 뷰익 로드마스터 컨버터블.

“이거 키라 님 차야?”

“네.”

“하늘색이네.”

“마음에 드십니까?”

“엄청 좋아.”

“다행입니다.”

미리아는 차 둘레를 반 바퀴 돌았다.

“왕자님, 차까지 상쾌한 이미지네.”

“저는 언제부터 왕자가 된 겁니까?”

“아까부터.”

“그렇습니까.”

“포기 빠르네.”

키라가 조수석 문을 열었다.

“타시지요.”

“어, 문까지 열어 줘?”

“안 됩니까?”

“그게 아니라.”

미리아는 조금 웃었다.

“좋네.”

아이보리색 스커트를 두 손으로 들어 올렸다.

천이 문에 끼지 않도록 조심하며 조수석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키라가 문을 닫았다.

이어서 운전석으로 갔다.

“키라 님, 직접 운전하는구나.”

“좋아하니까요.”

“헤에.”

엔진이 깨어났다.

낮은 진동.

옅은 하늘색 로드마스터가 천천히 은행을 떠났다.

*

도쿄 거리를 달렸다.

지붕을 내린 탓에 거리의 소리가 그대로 차 안으로 들어왔다.

경적. 자전거 벨.

타이어가 도로를 구르는 소리와 사람들의 목소리.

미리아는 머리카락을 누르며 바쁘게 좌우를 살폈다.

“진짜 도쿄구나……”

“아까부터 도쿄였습니다.”

“처음이라 신난단 말이야.”

“……”

“아.”

키라가 이쪽을 보기 전에 미리아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건 뭐야?”

커다란 건물 옥상에서 성조기가 바람을 받아 크게 펄럭이고 있었다.

“다이이치 생명관입니다.”

“생명보험?”

“건물은 그렇습니다만, 현재는 GHQ 총사령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네.”

미리아는 몸을 살짝 내밀었다.

현관 앞에는 미군 병사.

그리고.

검은 대형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캐딜락.”

“네.”

키라는 앞을 보며 대답했다.

“근데.”

미리아가 눈을 가늘게 떴다.

“번호판……”

붉은 판에 하얀 별 다섯 개가 나란히 찍혀 있었다.

“별 다섯 개?”

“맥아더 원수의 차겠지요.”

“……”

미리아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검은 캐딜락 뒤로 성조기가 바람에 부풀었다.

“맥 원수, 진짜 있구나……”

“물론입니다.”

“신문 속 사람 같은 느낌이었거든.”

하늘색 뷰익은 그대로 GHQ 앞을 지나갔다.

미리아는 한동안 뒤를 바라보다가.

“……뭐, 됐어.”

“무엇이요?”

“오늘은 긴브라야.”

“전환이 빠르시군요.”

“연애 이야기에 맥아더는 필요 없어.”

“연애요?”

“아.”

“……”

“방금 거 잊어.”

“못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탁해.”

*

“오오오……!”

긴자에 들어서자마자.

미리아의 눈이 반짝였다.

“긴자다!”

“네.”

“도쿄다!”

“도쿄입니다.”

“도시다!”

“그렇군요.”

“반응 너무 약하잖아!”

“저는 여러 번 와 봤으니까요.”

“첫눈의 감동을 공유해 줘!”

키라가 웃었다.

하늘색 뷰익은 긴자 거리를 빠져나와 골목 하나로 들어갔다.

키라가 차를 세웠다.

엔진이 멎었다.

“도착했습니다.”

“좋았어.”

미리아가 문에 손을 댔다.

“미리아 씨.”

“뭐?”

“스커트.”

“아.”

하마터면 자락을 밟을 뻔했다.

아이보리색 천을 다시 끌어안았다.

“1950 년 여자는 차에서 내리는 것만 해도 난이도가 높네.”

“예전에는 평범하게 내리셨습니다만.”

“예전의 나, 재주 좋았네.”

미리아는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다.

뒤이어 키라.

하늘색 뷰익 로드마스터.

아이보리색 드레스.

옅은 크림색 슈트.

미리아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좋아.”

“무엇이요?”

“긴브라 시작!”

*

걷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아!”

미리아가 고개를 들었다.

“시계탑!”

“미리아 씨?”

“가자!”

갑자기 걸음이 빨라졌다.

“기다리세요.”

“긴자 시계탑이잖아!”

“그렇기는 합니다만——”

미쓰코시보다 먼저.

미리아는 시계탑이 있는 건물 쪽으로 향했다.

퍼지는 스커트 자락을 누르며 빠르게 걸었다.

“도쿄 왔으면 이건 봐야지!”

그런데.

가까워질수록.

“……”

미리아의 걸음이 느려졌다.

건물에는 커다랗게 영어가 쓰여 있었다.

《EIGHTH ARMY EXCHANGE SERVICE》

그리고.

《TOKYO P.X.》

“……”

미리아는 간판을 봤다.

키라를 봤다.

다시 간판을 봤다.

“키라 님.”

“네.”

“이거 뭐야?”

“PX 입니다.”

“뭐 하는 데야?”

“점령군 관계자를 위한 구매 시설입니다.”

“쇼핑할 수 있어?”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

미리아의 얼굴이 흐려졌다.

“출입 금지? 못 들어가?”

“이용 자격이 없을 뿐입니다.”

“그게 사실상 출입 금지잖아……”

“다릅니다.”

“도쿄 와서 첫 관광지부터 출입 금지 먹었네……”

“관광지도 아닙니다.”

“시계탑인데!”

“시계탑이라는 것과 관광지라는 것은 별개입니다.”

“논리가 너무 차가워!”

*

PX 근처.

길가에 작은 상자를 놓고 담배를 문 소년이 있었다.

구두닦이였다.

열세 살쯤 되었을까.

손님을 발견하자 이쪽을 바라보았다.

“……”

미리아는 소년을 봤다.

그리고.

옆의 키라를 봤다.

“키라 님.”

“왜 그러십니까?”

“저 애 걷어차거나 하진 않지?”

“……”

“뭐야, 그 얼굴.”

“미리아 씨는 저를 대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구 화족 은행가 집안 후계자.”

“그것과 소년을 걷어차는 일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악역 영애물 보면 부잣집 남자 중에 재수 없는 놈 있잖아.”

“……영애물?”

“거긴 신경 쓰지 마.”

키라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소년 앞에서 발을 멈췄다.

“부탁해도 될까요?”

“예!”

소년이 번쩍 고개를 들었다.

키라는 아무렇지도 않게 한쪽 발을 받침대 위에 올렸다.

“……”

미리아는 빤히 바라보았다.

“왜 그러십니까?”

“진짜 안 걷어차네.”

“아직도 그 얘기입니까?”

“확인이야.”

구두를 닦던 소년이 자기도 모르게 웃었다.

“아.”

미리아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방금 웃었지.”

“아, 아닙니다!”

“키라 님 편 들었지.”

“미리아 씨.”

“뭐?”

“소년을 곤란하게 하지 마십시오.”

“네.”

“대답만큼은 참 얌전하시군요.”

구두닦이가 끝나자 키라는 값을 치르고 소년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

“미쓰코시 있잖아!”

“있지요.”

“가자!”

“오늘은 정말 많이 뛰시는군요.”

“열아홉 살이니까!”

긴자 미쓰코시.

미리아는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완전히 기분을 회복했다.

모자, 장갑, 가방, 화장품.

눈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씩 살폈다.

“키라 님.”

“네.”

“이거 어때?”

모자를 쓰고 돌아보았다.

“잘 어울립니다.”

“빨라.”

“무엇이요?”

“제대로 봐.”

“보고 있습니다.”

키라가 다시 미리아를 바라보았다.

“아주 잘 어울립니다.”

“……”

“왜 그러십니까?”

“그런 말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 금지.”

“칭찬해 달라는 뜻이 아니었습니까?”

“맞긴 한데!”

“어렵군요.”

“여자 마음이야.”

“공부해 두겠습니다.”

“진짜?”

“네.”

“……이거 살래.”

“모자를요?”

“응.”

미리아는 쑥스러움을 감추려는 듯 모자를 벗었다.

“장갑도.”

“아까 그 장갑이요?”

“응.”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이제 칭찬 안 해도 돼!”

“왜요?”

“지금은 됐어!”

점원에게 모자와 장갑을 건넸다.

“포장해 드리겠습니다.”

“부탁해요.”

미리아는 가방을 뒤졌다.

“……”

멈췄다.

“왜 그러십니까?”

“키라 님.”

“네.”

“스마트폰 결제가 안 돼.”

“……”

“현금밖에 없었지.”

“당연합니다만.”

“2022 년 습관이 안 빠져……”

키라가 지갑을 꺼냈다.

“제가.”

“아니, 아니! 내가 낼 거야!”

“쾌유 축하입니다.”

“푸딩만 아니었어?”

“그 정도 늘어나는 건 상관없습니다.”

“키라 님, 여자한테 돈 쓰는 거 익숙한 거 아냐?”

“무슨 뜻입니까?”

“원작 히로인한테도 똑같이 하면 용서 안 해.”

“원작 히로인?”

“아무것도 아냐.”

“그러고 보니, 키라 님.”

“네.”

“미국 가 본 적 있어?”

“네. 작년까지 유학했습니다.”

“그럼 맛있는 가게도 많이 알아?”

“단것이라면 조금은요.”

미리아의 눈이 반짝였다.

“케이크.”

“좋아합니다.”

“아이스크림.”

“좋아합니다.”

“초콜릿.”

“물론이지요.”

“……”

“왜 그러십니까?”

“왕자님 주제에 단것 좋아하네.”

“그러니까 왕자가 아닙니다.”

“설정 엄청 꽉꽉 채웠네……”

키라가 웃었다.

미리아도 웃었다.

그 얼굴을 키라가 잠시 바라보았다.

“미리아 씨.”

“응?”

“많이 웃게 되셨군요.”

“……”

“예전보다.”

한순간.

미리아의 미소가 멎었다.

“……안 돼?”

“아닙니다.”

키라는 고개를 저었다.

“그쪽이 저는 더 좋습니다.”

“……”

“미리아 씨?”

“키라 님.”

“네.”

“푸딩.”

“지금이요?”

“지금 당장.”

“알겠습니다.”

미리아는 먼저 걸어갔다.

(안 돼.)

(이 자식, 가끔 너무 세.)

*

긴자의 아이스크림 팔러.

문을 열자 커피와 달콤한 과자의 향이 섞여 들어왔다.

하얀 천을 덮은 테이블 위에 유리 그릇과 은빛 숟가락.

서양식 옷차림의 남녀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가운데.

“……”

미리아의 시선이 안쪽 자리에서 멈췄다.

카키색 오피서 셔츠를 입은 미군 장교 두 명.

소매에는 제 8 군 패치.

그 옆에는 붉은 립스틱을 바른 화려한 양장의 일본인 여성.

영어를 섞어 가며 즐겁게 웃고 있었다.

“왜 그러십니까?”

“아니.”

미리아는 시선을 돌렸다.

“푸딩이 더 중요해.”

“아직 주문도 안 했습니다.”

“빨리 하자.”

두 사람은 창가 자리로 안내받았다.

의자에 앉는 순간 등이 자연스럽게 곧게 펴졌다.

스커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장갑을 벗어 가지런히 겹친 뒤, 냅킨을 자연스럽게 무릎 위에 올렸다.

키라의 시선이 그 손놀림에 잠시 멈췄다.

“?”

“아닙니다.”

키라는 아무 말 없이 메뉴를 펼쳤다.

“푸딩 아라모드 두 개. 그리고 커피를.”

“두 개?”

“네.”

“키라 님도 먹어?”

“물론입니다.”

“……”

“왜 그러십니까?”

“왕자님이 푸딩 먹는구나.”

“왕자가 아닙니다.”

“게다가 아라모드.”

“좋아하니까요.”

“귀엽네.”

"……"

"아."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아냐."

잠시 뒤.

유리 그릇 두 개가 나왔다.

노란 푸딩과 하얀 아이스크림.

알록달록한 과일과 생크림.

미리아의 눈이 반짝였다.

"……왔다."

"드시지요."

"잘 먹겠습니다!"

숟가락을 넣었다.

한 입.

"……!"

"어떻습니까?"

"맛있어!"

"다행입니다."

맞은편에서는 키라도 푸딩을 한 숟갈 뜨고 있었다.

"진짜 먹네."

"주문했으니까요."

"먹는 법까지 우아하네."

"푸딩에도 먹는 법의 차이가 있습니까?"

"있어. 모르지만."

키라가 웃었다.

그때.

안쪽 자리에 있던 미군 장교가 이쪽으로 몸을 조금 내밀었다.

『Excuse me. Do you have a light?』

미리아가 눈을 깜빡였다.

키라는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보았다.

『Of course.』

품에서 성냥을 꺼내 불을 붙였다.

『Thanks.』

『You're welcome.』

장교가 자리로 돌아갔다.

"……"

"왜 그러십니까?"

"키라 님, 영어 진짜 술술 하네."

"네. 미국에서 공부했습니다."

"듣긴 했는데 실제로 말하는 걸 보니 다르네."

"그렇습니까?"

"뭘 공부했어?"

"금융과 국제 거래입니다."

"……"

미리아는 푸딩을 먹으며 키라를 바라보았다.

"진짜 은행가 집안 후계자로 제대로 육성됐네."

"육성이요?"

"영어, 금융, 은행, 구 화족, 잘생김."

"마지막은 학업과 관계없습니다만."

"설정에 낭비가 하나도 없어."

"무슨 설정입니까?"

"혼잣말."

키라는 고개를 갸웃하며 가슴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꺼낸 것은 하얀 담뱃갑.

한가운데에 커다란 붉은 원.

《Lucky Strike》

"담배 피우는구나."

"네."

"이름은 들어 본 적 있어."

"미국에 있을 때부터 피웠습니다."

한 개비를 꺼냈다.

성냥을 긁었다.

작은 불꽃.

담배 끝이 붉게 타올랐다.

키라가 한 모금 빨았다.

하얀 연기가 천천히 위로 흘러갔다.

“단것 좋아하는 흡연자라……”

“양립할 수 없습니까?”

“속성 또 늘었네.”

“?”

키라는 연기를 옆으로 내뿜었다.

하지만.

실내 공기에 밀려 옅은 연기가 미리아 쪽으로 흘러왔다.

“콜록.”

“죄송합니다.”

키라는 즉시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껐다.

“아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싫으시지요?”

“……뭐, 좋아하진 않아.”

“그럼 피우지 않겠습니다.”

“……”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키라는 다시 푸딩에 숟가락을 넣었다.

미리아는 그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바로 그런 점이라고, 왕자님.)

또 하나.

사이다 복수를 할 이유가 줄어든 것 같았다.

*

“그러고 보니 키라 님.”

“네?”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은행에서 일한 거야?”

“네. 아버지 밑에서 해외 거래가 있는 기업 몇 곳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외 거래……”

미리아의 숟가락이 멈췄다.

“NOC 도?”

“물론입니다.”

“……”

“왜 그러십니까?”

“돈 빌려주는 거야?”

“은행이니까요.”

“일본 끝장 클럽에?”

“……”

이번에는 키라의 숟가락이 멈췄다.

“그게 뭡니까?”

“아.”

“NOC 말씀입니까?”

“……”

“제가 아는 것은 《NIPPON OOKIKU COMPANY》입니다만.”

“겉으로는 그렇지.”

“겉으로는요?”

“아무것도 아냐!”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만.”

“기업 비밀이야.”

“어제까지는 그 회사 일에도 거의 관여하지 않으셨던 것으로 압니다만.”

“꼼꼼하네!”

“은행원이니까요.”

“그런 데만 날카롭다니까.”

미리아는 푸딩으로 도망쳤다.

“그래서.”

“네.”

“NOC와 키라 님이 거래하고 있어서 나랑 알게 된 거야?”

“그렇습니다.”

키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NOC에 대한 융자 건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헤에……”

“해외 거래가 아주 많은 회사였으니 제가 적임자였겠지요.”

“그래서?”

“인사를 드리러 키신 씨를 찾아갔습니다.”

“아저씨한테?”

“……”

키라가 눈을 깜빡였다.

“뭐?”

“예전에는 ‘아버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만.”

“아.”

“이제 키신 씨를 그렇게 부르시는군요.”

“뭐…… 이것저것 있어서.”

“그 ‘이것저것’이 신경 쓰입니다.”

“거긴 신경 쓰지 마.”

“상당히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만.”

“푸딩 먹어.”

“화제를 돌리셨군요.”

“계속해.”

키라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때 키신 씨가 소개해 주신 분이 미리아 씨였습니다.”

“나?”

“네.”

“어땠어?”

“어땠냐고 하셔도……”

“첫인상.”

키라가 잠시 생각했다.

“아름다운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그리고.”

“또 있어?”

“상당히 조용한 분이라고도.”

“……”

“지금과는 다르군요.”

“미안하게 됐네.”

“나쁘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키라가 웃었다.

“몇 번 만나게 됐고, 그 뒤 양가에서 약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략결혼?”

“시작은 그랬겠지요.”

“역시.”

미리아는 조금 안심했다.

그래.

악역 영애답다.

여기서부터 사이가 나빠지고.

원작 히로인이 나타나고.

약혼 파기――.

“하지만.”

“응?”

“그것뿐이었다면 저는 거절했을 겁니다.”

“……”

“미리아 씨?”

“……푸딩 먹을래.”

“아까부터 먹고 계십니다.”

“더 먹을래.”

“그러시지요.”

미리아는 푸딩을 크게 떠먹었다.

(안 돼.)

(콤보다.)

*

팔러를 나왔다.

미리아의 손에는 미쓰코시의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다.

“즐거우셨습니까?”

“엄청.”

“다행입니다.”

“키라 님.”

“네.”

“또 푸딩 사 줘.”

“네.”

“즉답이네.”

“단것에는 검토 시간이 필요 없다고 하셨지요?”

“……기억했네.”

“공부했습니다.”

“여자 마음?”

“조금은요.”

“성장 빠르네.”

그때.

미리아의 뺨에 차가운 것이 닿았다.

“응?”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또 한 방울.

보도에도 띄엄띄엄 검은 얼룩이 늘어났다.

“키라 님.”

“네.”

“비 오기 시작했어.”

미리아는 길가에 세워 둔 하늘색 뷰익을 보았다.

“오픈카는 어떡해?”

“지붕을 올리면 됩니다.”

“아, 제대로 지붕이 있구나.”

“없으면 곤란하지요.”

“맑은 날 전용인 줄 알았어.”

“그런 차가 아닙니다.”

두 사람은 걸음을 조금 재촉했다.

키라가 지붕을 올렸다.

옅은 하늘색 차체 위를 검은 소프트톱이 덮어 갔다.

“오오……”

“그렇게 신기합니까?”

“오픈카 타 본 적이 없거든.”

키라가 조수석 문을 열었다.

“타시지요.”

“고마워.”

미리아는 미쓰코시 종이봉투를 먼저 차 안에 넣었다.

이어서 아이보리색 스커트를 두 손으로 들어 올렸다.

“이번엔 안 끼울 거야.”

“실력이 느셨군요.”

“열아홉 살은 적응력이 높아.”

천이 문에 끼지 않도록 조심하며 조수석에 몸을 밀어 넣었다.

키라가 문을 닫았다.

이어서 운전석으로.

엔진이 걸렸다.

“NOC 까지 모셔다드리겠습니다.”

“부탁해.”

하늘색 뷰익이 비 내리는 긴자를 떠났다.

*

출발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빗줄기는 조금씩 굵어졌다.

앞유리 위로 빗방울이 흘렀다.

젖은 도로가 검게 빛났다.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

“꽤 많이 오네.”

“그러게요.”

“아까까지만 해도 긴브라 하고 있었는데.”

키라가 작게 웃었다.

그때.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다.

뷰익이 천천히 멈췄다.

“……응?”

미리아가 조수석 창밖을 보았다.

비 속을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쉰 살 전후일까.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

머리에는 낡아 빠진 수병모.

입고 있는 것은 낡은 구 일본 해군의 제 2 종 하계 상의였다.

본래는 흰색이었을 천은 누렇게 변색됐고, 땀과 먼지로 더러워진 데다 비까지 먹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세일러 칼라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해군?”

남자는 이쪽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미리아 쪽 창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톡, 톡.

“……”

미리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창문을 내렸다.

그 순간.

“윽.”

반사적으로 코에 손을 댔다.

비.

땀.

때.

오래된 담배.

젖은 천.

눅눅한 냄새가 차 안으로 밀려들었다.

남자는 미리아의 반응을 보고 쓴웃음을 지었다.

“미안하네, 아가씨.”

“아니……”

남자는 조수석 너머로 운전석의 키라를 보았다.

“선생.”

“네?”

“담배 한 개비만 줄 수 있겠나.”

키라는 조금도 싫은 표정을 짓지 않았다.

가슴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꺼낸 것은 하얀 담뱃갑.

가운데에 커다란 붉은 원.

《Lucky Strike》

“여기 있습니다.”

한 개비를 꺼내 미리아 앞을 지나 남자에게 건넸다.

남자는 비에 젖은 손으로 그것을 받았다.

“……”

담배를 바라본다.

“미국 담배인가.”

“네.”

미리아는 남자의 수병복으로 시선을 옮겼다.

“해군이었어?”

남자는 잠시 말이 없었다.

“……옛날에.”

“……”

키라가 성냥을 꺼냈다.

미리아가 몸을 조금 뒤로 빼자 키라는 조수석 쪽으로 몸을 숙였다.

한 개비를 긁었다.

작은 불꽃이 피어났다.

비에 꺼지지 않도록 한 손으로 불을 감쌌다.

남자도 창문 쪽으로 얼굴을 가까이했다.

불이 담배 끝으로 옮겨붙었다.

붉게 타올랐다.

남자는 깊이 빨아들였다.

"……후우."

연기가 비 속으로 녹아들었다.

남자는 Lucky Strike 를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조금 웃었다.

"적국 놈들 담배를 피우는 날이 올 줄이야."

메마른 웃음이었다.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었다.

"고맙네, 선생."

"조심해서 가십시오."

"그래."

남자가 창문에서 떨어졌다.

미리아는 창문을 올렸다.

바깥 소리가 조금 멀어졌다.

키라가 차를 출발시켰다.

"……"

미리아는 뒤를 돌아보았다.

비 너머.

점점 작아지는 수병모.

젖은 세일러 칼라.

그 손끝에는.

하얀 담배 한 개비.

입안에는 아직 푸딩의 달콤한 캐러멜 맛이 남아 있었다.

차 안에는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만 남았다.

"키라 님."

"네."

“전쟁 끝난 지…… 아직 5 년도 안 됐구나.”

“네.”

“……그럼 아직 있겠지.”

“무엇이요?”

미리아는 딱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다.

“전쟁이.”

키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비만 내리고 있었다.

*

저녁.

비는 가느다란 이슬비로 바뀌어 있었다.

하늘색 뷰익이 NOC 현관 앞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엔진이 멎었다.

“도착했습니다.”

“고마워.”

미리아가 문으로 손을 뻗었다.

“아.”

“?”

“그대로 계십시오.”

키라는 먼저 운전석에서 내렸다.

“키라 님?”

차 앞을 돌아왔다.

빗속에서.

키라는 크림색 재킷을 벗었다.

“응?”

조수석 문을 열었다.

“나오시지요.”

“아니, 비가——”

미리아가 얼굴을 내미는 순간.

사뿐.

머리 위로 재킷이 덮였다.

"……"

"젖으시니까요."

"키라 님은?"

"저는 조금 젖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아니, 아니, 그쪽 흰 셔츠잖아!"

"미리아 씨."

"뭐?"

"스커트."

"아."

미리아는 재킷을 머리에 뒤집어쓴 채 미쓰코시 종이봉투를 집었다.

아이보리색 스커트를 한데 모았다.

그러자.

키라가 손을 내밀었다.

"……"

이번에는 아무 말 없이.

미리아는 그 손을 잡았다.

아이보리색 자락을 들어 올린 채 젖은 땅에 발을 내디뎠다.

머리 위에는 키라의 재킷.

눈앞에서는.

흰 셔츠 차림의 본인이 비를 맞고 있었다.

"……키라 님."

"네."

"이런 건 어디서 배웠어?"

"무엇을요?"

"그런 데."

"?"

미리아는 재킷 아래에서 키라를 올려다보았다.

(……나.)

(언제 사이다 복수하면 되는 거지.)

“오늘 재밌었어.”

“저도 그랬습니다.”

“또 푸딩 먹자.”

“네.”

“다음엔 내가 살게.”

“그럼 기대하겠습니다.”

“……”

“?”

“다음이 있을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네.”

“없는 겁니까?”

“……있어.”

키라가 웃었다.

미리아도 살짝 웃었다.

“그럼, 또 봐.”

“네. 또 뵙지요.”

“이거.”

현관 처마 아래까지 와서 미리아는 머리에서 재킷을 벗었다.

키라에게 돌려줬다.

“고마워.”

“천만에요.”

키라가 운전석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다.

하늘색 뷰익이 젖은 도로를 달려 멀어졌다.

미리아는 현관 앞에 선 채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

약혼자.

왕자님 포지션.

원작 히로인.

긴브라.

푸딩 아라모드.

(나, 대체 뭐 하러 1950 년에 온 거지.)

조금 웃었다.

하지만.

아까 그 남자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쳤다.

비에 젖은 수병복.

손끝에서 붉게 타오르던 담배 한 개비.

미리아는 NOC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

K 는 집무실에 있었다.

중절모.

오른쪽 눈의 안대.

검은 모닝코트.

책상 위에는 서류가 쌓여 있었다.

“돌아왔군, 미리아.”

“다녀왔어.”

“키라는 만났나?”

“만났어.”

“어땠지?”

“……”

미리아는 잠시 생각했다.

“좋은 사람이었어.”

“그런가.”

“사이다 복수하기 힘들어.”

“뭐?”

“혼잣말.”

K 는 더 묻지 않았다.

미리아도 조금 웃고 있었다.

하지만 책상 앞까지 다가온 순간, 그 미소가 사라졌다.

“아저씨.”

“뭐냐.”

“할 말이 좀 있어.”

K 가 고개를 들었다.

“말해 봐라.”

미리아는 딱 한 번 숨을 들이마셨다.

1950 년 5 월 26 일.

창밖에는 아직 비가 내리고 있었다.

앞으로 한 달.

“한 달 뒤——”

K 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6·25 전쟁, 시작돼.”

# 『1950 년, 악역 영애는 일본을 멸망시키고 싶다』

—전생했더니 이세계가 아니라 6·25 전쟁 직전의 일본이었다—

## 제 3 화  전쟁까지 앞으로 한 달

*

긴자에서 먹은 푸딩의 달콤함이 아직 혀끝에 남아 있었다.

미리아는 K 의 집무 책상 앞에 선 채 말했다.

“한 달 뒤——6·25 전쟁, 시작돼.”

빗소리가 창문을 잘게 두드리고 있었다.

K 는 움직이지 않았다.

검은 안대.

중절모.

검은 모닝코트.

그리고 오른쪽 다리에는 의족.

누가 봐도 악의 비밀결사 수령이었지만, 돌아온 목소리는 놀랄 만큼 침착했다.

“……한반도에서?”

“응.”

“몇 월 며칠이지?”

“6 월 25 일.”

“북과 남이?”

“북이 남으로 쳐들어가.”

K 의 남은 왼쪽 눈이 가늘어졌다.

“정보원은?”

“……”

“미리아.”

“그 전에 하나 물어봐도 돼?”

“뭐지?”

“안 웃을 거지?”

“내용에 따라.”

“안 화낼 거지?”

“내용에 따라.”

“의사 안 부를 거지?”

“내용에 따라.”

“전부 내용에 따라잖아.”

“빨리 말해.”

미리아는 한 번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나 말이야.”

“음.”

“2022 년에서 왔어.”

침묵.

빗소리만 울렸다.

“……”

“72 년 뒤.”

“……”

“미래에서.”

“……”

“왔습니다.”

K 는 말없이 책상 위의 호출벨로 손을 뻗었다.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의사를 부르겠다.”

“역시 그러잖아!”

“당연하지.”

“거짓말 아니야!”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뒤 갑자기 말투가 바뀌고, 자기가 미래인이라고 말하기 시작한 열아홉 살 딸을 보고도 의사를 안 부르는 아버지가 있겠나?”

“설명만 들어보면 엄청 정상적이네, 아저씨!”

“나는 처음부터 정상이다.”

“그 차림으로 그 말이 나와!?”

K 는 자기 중절모를 힐끗 바라봤다.

“옷차림은 상관없다.”

“있거든!”

미리아는 이마를 짚었다.

안 되겠다.

완전히 머리를 다친 딸 취급을 받고 있다.

그야 그렇지.

멀쩡히 열아홉 살로 살던 딸이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자마자 오사카 사투리를 쓰면서,

『72 년 뒤에서 왔습니다』

라고 하는 꼴이다.

나라도 의사 부른다.

“……그럼 증명할게.”

“어떻게?”

“6 월 25 일.”

“한 달을 기다리라고?”

“북한이 38 선을 넘어 남으로 쳐들어가.”

K 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38 선 부근의 충돌이라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응.”

“남북 모두 서로를 정통 정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긴장도 높지.”

“응.”

“하지만 그건 전면전과는 별개다.”

“……”

“북이 본격적으로 남침한다고?”

“해.”

“한 달 뒤에?”

“해.”

“있을 수 없군.”

미리아의 눈썹이 움찔했다.

“……말했다?”

“뭘?”

“6 월 25 일 아저씨 얼굴.”

“무슨 뜻인지 모르겠군.”

“난 알아.”

“미래인이라서?”

“그렇다니까!”

“아직도 그 말을 하나.”

K 는 책상 위에서 손가락을 깍지 꼈다.

“네 말대로 가령 북이 전면 침공을 한다 해도——”

“오.”

“그렇다고 곧바로 미군이 대규모로 개입한다고는 할 수 없다.”

미리아가 입을 다물었다.

“미군 주력은 지난해 한반도에서 철수했다. 남아 있는 건 고문단이 중심이지.”

“응.”

“미국에게 일본이 중요하다는 건 안다. 일본을 공산권에 넘길 생각도 없겠지.”

“그건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한반도는 다르다.”

K 는 책상 위 지도에 시선을 내렸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어.”

손끝이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움직였다.

“북이 남으로 쳐들어간다고 해서 일본 자체가 곧바로 침공당하는 건 아니다.”

“응.”

“더구나 일본에 주둔 중인 점령군을 빼서 한반도로 보낸다?”

K 는 코웃음을 쳤다.

“생각하기 어렵군.”

미리아는 K 를 빤히 바라봤다.

“보내.”

“뭐?”

“일본에 있는 미군.”

“……”

“한반도로 보내.”

K 의 표정이 멈췄다.

“미 지상군을?”

“응.”

“일본에서?”

“응.”

“한국을 위해서?”

“응.”

“……”

“그것도 꽤 급하게.”

“……미리아.”

“왜?”

“의사를 불러도 되겠나?”

“아직 일러!!”

K 가 깊게 숨을 내쉬었다.

“네 이야기대로라면——”

손가락 하나를 세운다.

“6 월 25 일, 북이 남으로 전면 침공.”

두 번째.

“그 뒤 미국이 개입.”

세 번째.

“일본에 있는 점령군까지 한반도에 투입.”

“맞아.”

“그리고?”

“남쪽은 처음엔 엄청 밀려서 두들겨 맞아.”

“……”

“서울도 함락돼.”

“언제?”

“금방.”

“금방?”

“금방.”

“이제 됐다.”

“아직 더 있어.”

“듣고 싶지 않다.”

“왜!”

“망상이 너무 구체적이야.”

“미래라니까……”

K 는 한 손으로 안대 부근을 눌렀다.

미리아는 책상 위에 펼쳐진 지도를 바라봤다.

한반도.

북.

남.

그리고 그 너머의 일본.

“근데 말이야.”

“뭐지?”

“아저씨, 일본 말살하고 싶다며?”

“그렇다.”

“그럼 북이 그대로 남쪽까지 먹으면 오히려 좋은 거 아냐?”

“……”

“한반도 전부가 빨갛게 되고, 일본 바로 옆까지 공산권이 오는 거잖아?”

“그래서?”

“그래서라니…… 일본 위험해지잖아.”

“착각하지 마라, 미리아.”

K 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는 일본을 공산권에 넘기고 싶지 않다고 단 한 번도 말한 적 없다.”

“……”

미리아가 눈을 깜빡였다.

“일본을 말살하는 건——나다.”

“거기가 중요해!?”

“문제는 따로 있다.”

K 는 한반도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가령 공산권이 한반도 전역을 지배한다고 치자.”

“응.”

“그때 미국은 일본을 어떻게 하겠지?”

“……”

미리아는 지도를 바라봤다.

한반도.

바다.

일본 열도.

“아.”

“알겠나?”

“일본…… 더더욱 놓지 못하게 되는 거야?”

“그렇다.”

“기지를 두고.”

“이미 있다.”

“더 많이 쓰고.”

“가능하지.”

“돈도 넣고.”

“그 가능성은 높아진다.”

“일본을 더 강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겠지.”

K 의 손가락이 일본 열도 위에서 멈췄다.

“그러면 일본을 말살하기는커녕——”

“강화하게 되는 거네.”

“그렇다.”

“……”

미리아는 팔짱을 꼈다.

“일본 말살, 엄청 복잡하네.”

“국가를 멸망시킨다는 건 그런 것이다.”

“악역 영애 라노벨에서 들을 대사가 아니잖아.”

“무슨 소리지?”

“이쪽 이야기.”

미리아는 다시 지도를 바라봤다.

“북이 그대로 밀어붙여도 일본이 필요하고.”

“미국에게는 그렇지.”

“반대로 미국이 들어와서 남을 지켜도 일본이 필요하고.”

“후방 거점으로 이용될 가능성은 높다.”

“……”

미리아의 손가락이 일본 열도 위에서 멈췄다.

“어느 쪽으로 굴러가도 여기엔 미국 돈이 떨어지잖아.”

K 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미리아는 지도를 응시했다.

북.

남.

일본.

그리고 그 바깥.

“잠깐.”

“뭐지?”

“그럼——”

미리아의 표정이 달라졌다.

“승패 같은 건 안 건드려도 되잖아.”

K 의 왼쪽 눈이 가늘어졌다.

“뭐?”

“북을 이기게 할 필요도 없어. 남을 이기게 할 필요도 없어.”

“계속해.”

“전쟁 자체를 우리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는 없잖아.”

“당연하지.”

“하지만.”

미리아는 한반도가 아니라 그 주변으로 손가락을 움직였다.

일본.

바다.

태평양.

그 너머.

“돈의 흐름은 먼저 움직일 수 있어.”

“……”

“6 월 25 일에 전쟁은 시작돼.”

“네 미래에서는 말이지.”

“미국은 개입해.”

“그것도 네 미래에서는.”

“일본에 있는 미군까지 움직여.”

“……”

“그럼 반드시 부족해져.”

“뭐가?”

“뭐든지.”

“뭐든지로는 모르겠다.”

“공장. 수리. 수송. 창고. 먹을 것. 의료품……”

미리아는 손가락을 하나씩 접었다.

“그리고 사람.”

“사람?”

“운전할 사람. 고칠 사람. 운반할 사람. 통역도 필요하잖아.”

자세한 숫자는 모른다.

어느 회사가 얼마나 벌게 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결과만큼은 알고 있다.

“6·25 전쟁 특수.”

“그게 뭐지?”

“미래의 말.”

“미래란 참 편리하군.”

“놀리지 마!”

미리아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패전으로 너덜너덜해진 일본에 미국 돈이 확 쏟아져 들어와.”

“그래서 일본 경제가 회복된다는 건가?”

“맞아.”

“……”

“근데 그 돈.”

미리아는 일본 열도 위에 올려둔 손가락을 옆으로 미끄러뜨렸다.

“일본에 닿기 전에 옆에서 낚아채면 되잖아.”

“……”

“미군이 원하는 걸 일본 기업보다 먼저 NOC가 잡는 거야.”

“어디서?”

“전 세계에서.”

“쉽게 말하지 마.”

“NOC, 전 세계에 회사 있잖아?”

“있다.”

“배도?”

“있다.”

“비행기도?”

“있다.”

“공장도?”

“있다.”

“창고도?”

“있다.”

“그럼 쓸 수 있잖아.”

“그것만으로 물자는 움직이지 않아.”

“자잘한 이야기는 나중에!”

“그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다.”

“나는 방향을 말하는 거야!”

미리아는 지도를 두드렸다.

“6·25 전쟁은 안 막아.”

“못 막는 거겠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

“애초에 승패는 건드리지 않아.”

“그럼 뭘 하지?”

“미국이 뿌리는 달러만 보는 거야.”

K 가 입을 다물었다.

“일본에 떨어질 돈을.”

미리아는 손가락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NOC 가 가져가.”

“……”

“전쟁의 승패가 아니라.”

미리아는 웃었다.

“전쟁의 뒤를 잡는 거야.”

K 의 얼굴에서 약간의 어이없음이 사라졌다.

“뒤?”

“물류. 수리. 식량. 의료. 창고. 사람.”

“……”

“일본이 전쟁 특수로 되살아나는 거라면.”

미리아는 손가락 하나를 세웠다.

“그 특수를 일본에 안 줘.”

“……”

“1 센트도.”

K 의 왼쪽 눈이 미리아를 꿰뚫어 봤다.

조금 전까지의,

『의사를 불러야 하나』

하는 눈빛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K 가 말했다.

“미국이 일본에 떨어뜨릴 예정인 수요를 NOC 가 바깥에서 빼앗는다.”

“맞아.”

“일본 기업이 받을 계약을.”

“먼저 따내고.”

“일본 공장으로 갈 일을.”

“NOC 공장으로.”

“일본 운송회사로 갈 일을.”

“NOC 로.”

“일본이 받을 달러를.”

미리아는 웃었다.

“옆에서 낚아채는 거야.”

잠시.

빗소리만 이어졌다.

“……키라가 네게 뭘 불어넣은 거냐.”

“왜 갑자기 키라 님이 나와!!”

“오늘 은행에 갔잖아.”

“푸딩만 먹었어!”

“긴자에도 갔다면서.”

“그걸 어떻게 알아!”

“설희에게 보고받았다.”

“그 인간!!”

“돌아오자마자 전쟁 수요와 일본 경제 이야기다.”

“키라 님한테 들은 거 아니야!”

“그럼 누구에게 들었지?”

“미래!”

“또 거기로 돌아가는 건가.”

“거기서 왔다니까!!”

K 가 한숨을 쉬었다.

“그럼 한 가지 알려주지.”

“뭔데?”

“현재 한반도에는 NOC 거점이 없다.”

“……뭐?”

“창고도 없어.”

“응.”

“현지 법인도 없다.”

“……응?”

“항만 거점도 항공 거점도 없다.”

“……”

“한꺼번에 움직일 만한 인력도 배치해 두지 않았다.”

“잠깐만.”

“하바롭스크에서는 철수했다. 상하이도 마찬가지다. 바르샤바도 축소 중이고.”

“잠깐 잠깐.”

“현재 중점 지역은 인도, 필리핀, 인도차이나 방면이다.”

“……”

“왜 그러지?”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네 안이 터무니없다는 거다.”

“악마!”

“사실이다.”

“아니……”

미리아는 차곡차곡 쌓인 현실을 떠올렸다.

미래 지식.

비밀결사.

거대 기업.

세계 각지의 거점.

여기까지 다 갖춰 놓고.

한반도에는 아무것도 없다.

“……역시 악의 군단장이네.”

“수령이다.”

“그걸 꼭 정정해!?”

하지만 미리아는 곧바로 고개를 들었다.

“근데 잠깐……”

“뭐지?”

“굳이 한반도에 회사를 만들 필요는 없잖아.”

K 의 눈썹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계속해.”

“아까 말했잖아.”

“뭘?”

“손님은 한국이 아니야.”

한 박자.

미리아는 지도 바깥쪽을 가리켰다.

“미국이야.”

K 의 눈빛이 달라졌다.

“한반도에 아무것도 없으면 바깥에서 가져가면 되잖아.”

“쉽게 말하는군.”

“비행기도 배도 창고도 전 세계에 있잖아?”

“있다.”

“공장.”

“있다.”

“수리 설비.”

“있다.”

“식량.”

“취급하고 있다.”

“의료용품.”

“취급하고 있다.”

“그럼 전부 쓸 수 있잖아.”

“계약은?”

“몰라.”

“수송 경로는?”

“몰라.”

“환율은?”

“몰라.”

“보험은?”

“몰라.”

“허가와 인가는?”

“몰라!”

“……”

“모르니까 너희가 있는 거잖아!!”

K 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예 배짱을 부리는군.”

“나는 미래의 사장이 아니거든.”

“미래인이라며.”

“보육사야!!”

“……”

“나는 다음 달에 뭐가 필요해지는지는 알아.”

미리아는 자기 가슴을 가리켰다.

“근데 그걸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파는지는 몰라.”

“잘난 척하지 마.”

“그러니까.”

목소리를 조금 낮췄다.

“딱 한 번만 나를 믿어줘.”

K 는 대답하지 않았다.

“6 월 25 일까지.”

“……”

“틀리면 의사든 뭐든 갈게.”

“당연하지.”

“오사카 사투리 치료 같은 소리는 하지 마.”

“검토해 보지.”

“하지 마!”

“그래서 맞으면?”

“내 이야기 제대로 들어줘.”

미리아는 활짝 웃었다.

“응? 아버님♡”

K 의 얼굴이 대놓고 험악해졌다.

“네가 그 호칭을 쓸 때는 믿을 수가 없어.”

“왜!!”

“예전부터 그랬다.”

“이쪽의 나는 대체 뭘 했던 거야!?”

K 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책상 옆으로 손을 뻗었다.

털썩.

“……뭐야, 그거.”

“자료다.”

그리고 또.

털썩.

“잠깐.”

또 하나.

털썩.

“기다려.”

마지막으로 한 권 더.

쿵.

“기다리라니까!!”

“윤 설희. 재무, 법무, 해외계약.”

첫 번째.

“린 리화. 생산, 공장, 수리 능력.”

두 번째.

“이사벨 데 라 크루스. 해외 거점, 인력, 현지 네트워크.”

세 번째.

“비비안 블랙우드. 항공, 해운, 군수, 조달, 정보.”

네 번째.

미리아는 종이탑을 올려다봤다.

“……이거.”

“읽어.”

“언제까지?”

“내일 아침 9 시.”

“악마!!”

한 박자.

“아니…… 역시 악의 군단장이네……”

“수령이다.”

“알았다니까!”

“네 사람에게 9 시에 회의실로 오라고 전해 두겠다.”

“그럼 아저씨도 9 시야.”

“나는 안 간다.”

“……뭐?”

“출석하지 않는다.”

“아니 아니 아니.”

“네가 한 제안이잖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네가 설명해.”

“뭐어어어어어어!?”

K 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른 서류를 펼쳤다.

“잠깐, 아저씨!”

“뭐냐.”

“나 경제 몰라!”

“읽어.”

“환율도 몰라!”

“읽어.”

“신용장이 뭐야!?”

“찾아봐.”

“영어도 잔뜩 있어!”

“키라에게 물어.”

“키라 님을 숙제에 끌어들이지 마!”

“그럼 네가 읽어.”

“악마!”

“들었다.”

“악의 군단장!”

“수령이다.”

“진짜 귀찮네!!”

K 는 이제 미리아를 보고 있지도 않았다.

“6 월 25 일까지다.”

“……”

“나는 전면전으로 번지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

“응.”

“더구나 미국이 점령군을 한반도에 투입하는 건 생각하기 어렵다.”

“응.”

“하지만.”

펜 끝이 멈췄다.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K 가 미리아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일이 터진 뒤에 준비를 시작해서는 늦다.”

미리아도 입을 다물었다.

“……그렇지?”

“그러니 한 달만 주겠다.”

“오.”

“마음대로 준비해.”

“오오!”

“단, 예산에는 한계가 있다.”

“악의 조직인데도!?”

“조직에도 예산은 있다.”

“꿈이 없네!”

“현실이다.”

미리아는 네 권을 간신히 끌어안아 들었다.

“우와, 무거워……”

“가지고 가.”

“미래인한테 이걸 들게 해?”

“미래인이라면 알아서 해.”

“미래인에게 완력 보너스 같은 거 없거든!!”

문 쪽으로 향한다.

한 권이 미끄러졌다.

“우와, 잠깐……”

무릎으로 눌러 막는다.

미리아가 뒤를 돌아봤다.

“진짜 내일 안 올 거야?”

“안 간다.”

“……악마.”

“문 닫고 가.”

“6 월 25 일 되면 내가 반드시 말할 거니까.”

“뭘?”

“『거봐?』라고.”

“가.”

“기억해 둬!”

미리아는 엉덩이로 문을 밀어 열었다.

“미리아.”

“뭐!”

K 는 책상에 앉은 채였다.

“한 가지만.”

“응.”

“네 말대로 미군까지 움직일 정도의 전쟁이 된다면——”

K 는 지도에 시선을 내렸다.

“한 달은 길지 않다.”

미리아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조금 사라졌다.

“……알아.”

문을 닫았다.

긴 복도.

품에는 네 사람 몫의 보고서.

맨 위 자료를 조금 펼쳐 본다.

숫자.

표.

영어.

환율.

항공기.

선박.

"……"

덮었다.

"이세계 전생이라는 게."

미리아는 작게 중얼거렸다.

"좀 더 치트로 편하게 사는 거 아니었어?"

*

자기 방으로 돌아올 즈음에는 미리아의 팔이 완전히 죽어 있었다.

"……무거워."

네 권의 보고서를 책상에 내려놓는다.

쿵.

두꺼운 종이뭉치가 묵직한 소리를 냈다.

"미래인한테 종이 네 권을 들게 하지 말라고……"

팔을 휘휘 흔들었다.

긴자에서 돌아오자마자 그대로 K의 집무실로 직행했다.

비에 젖은 드레스도 아직 그대로 입고 있다.

치맛자락을 내려다본다.

"……이제 됐어, 이거."

"옷을 갈아입으시겠습니까?"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시녀가 물었다.

"응. 좀 편한 거 없어?"

"편한 것, 말씀이십니까?"

"잠옷만큼 풀어져 있진 않고, 드레스만큼 방광을 적으로 돌리지도 않는 거."

"……"

"그 표정 하지 마."

시녀가 옷장을 열었다.

몇 벌을 확인한 뒤 흰 블라우스와 짙은 남색 바지를 꺼냈다.

"이건 어떠십니까?"

"바지 있잖아!"

미리아의 얼굴이 밝아졌다.

"승마용입니다."

"……말?"

"네."

받아서 펼쳐 본다.

허리에서 허벅지까지는 약간 여유가 있고, 무릎 아래부터는 가늘게 좁아져 있다.

이른바 승마용 브리치스였다.

"이쪽의 나, 진짜 말 탔구나."

"자주 타셨습니다."

"헤에……"

어제 차고에서 Indian Chief 를 봤을 때가 떠올랐다.

말.

대형 오토바이.

"뭐, 비슷한 거지."

"……?"

"아무것도 아냐."

잠시 뒤.

미리아는 흰 블라우스에 짙은 남색 승마 바지, 가느다란 가죽 벨트 차림으로 책상에 돌아왔다.

소매는 팔꿈치까지 걷었다.

머리도 간단히 묶었다.

"이거야, 이거."

"마음에 드십니까?"

"엄청 편해."

"승마는 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네.”

창밖에는 아직 비가 내리고 있었다.

“안 해!”

“그런데 왜 승마복을……”

“공부할 거니까.”

“……”

“드레스 입고 신용장 같은 걸 어떻게 읽어.”

“의복과 신용장 이해도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이 집 사람들 가끔 설희 씨 같은 소리 하네.”

시녀에게는 무슨 뜻인지 통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미리아는 의자에 앉았다.

첫 번째.

《윤 설희》

《재무·법무·해외계약》

“……좋아.”

펼친다.

숫자.

영어.

또 숫자.

표.

약호.

모르는 은행 이름.

모르는 항구.

처음 보는 통화.

“……”

한 장 넘긴다.

더 늘어났다.

“……좋기는 뭐가 좋아.”

덮었다.

배에서 소리가 났다.

꼬르륵.

“……”

시계를 본다.

“저녁 안 먹었잖아.”

“네.”

“있었어!?”

시녀는 아무렇지 않게 뒤에 서 있었다.

“긴자에서 돌아오시자마자 그대로 수령의 방으로 가셨으니까요.”

“푸딩만 먹었는데……”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희 님께 들었습니다.”

“그 인간, 설마 전 세계에 보고하고 다니는 거 아니지?”

“가벼운 것을 가져다드릴까요?”

“부탁해. 진짜 부탁해.”

10 분쯤 뒤, 시녀가 은쟁반을 들고 돌아왔다.

작게 잘라 놓은 샌드위치.

달걀.

오이.

얇은 햄.

그리고 홍차.

“신.”

“네?”

“고맙다고 했어.”

“신, 이라고 하셨습니다.”

“다 들었잖아.”

쟁반이 책상 위에 놓인다.

미리아는 곧바로 샌드위치에 손을 뻗었다.

그러자.

“……”

시녀가 돌아가지 않는다.

“뭐야?”

“아닙니다.”

“……”

“……”

“아침 그거?”

시녀의 눈이 살짝 빛났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무조건 그거잖아.”

“무슨 말씀이신지요.”

“두 번 말했어.”

미리아는 달걀 샌드위치를 들어 올렸다.

“알았어, 알았어.”

반대쪽 손으로 작게 손가락 모양을 만든다.

“같이 하는 거야.”

“모에모에――”

시녀도 재빨리 같은 모양을 만들었다.

“큥♡”

“……”

“……”

미리아는 먹었다.

“맛있다.”

시녀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효과가 있었군요.”

“절대 빵 만든 사람 실력이야.”

“모에모에 큥의 힘이 아닐까요?”

“쇼와 25 년에 이상한 문화 뿌리내리게 하지 마.”

“아가씨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만.”

“맞는 말 하지 마.”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네.”

시녀가 대답했다.

“윤입니다.”

미리아가 샌드위치를 문 채 고개를 들었다.

“설희 씨?”

문이 열렸다.

검은 팬츠 슈트.

흰 셔츠.

선명한 붉은 베스트.

낮과 거의 다르지 않은 차림의 설희가 서 있었다.

“실례하겠습니다.”

“음.”

미리아는 황급히 샌드위치를 삼켰다.

“이 시간에 웬일이야?”

설희는 책상 위를 바라봤다.

네 권의 자료.

홍차.

샌드위치.

승마복 차림의 미리아.

“……”

“뭐야, 그 뜸은.”

“상당히 편히 계시네요.”

“이래 봬도 일하는 중이야!”

“아직 네 쪽밖에 펼쳐 보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만.”

“그걸 어떻게 알아!”

“접힌 자국이.”

“무서워.”

시녀가 고개를 숙였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아, 고마워.”

“네.”

문 앞에서 시녀가 돌아봤다.

두 손을 작게 가슴께로 모은다.

“모에모에, 큥♡”

“이제 가!!”

찰칵.

문이 닫혔다.

설희는 말이 없었다.

“……”

“뭐?”

“방금 그것은……”

“잊어.”

“알겠습니다.”

“진짜 잊어.”

“선처하겠습니다.”

“기억할 생각이잖아!”

설희는 미리아의 맞은편에 의자를 놓았다.

“수령께서 분부하셨습니다.”

“아저씨가?”

“네. 『필요하면 자료를 설명해 줘라』고.”

“……”

미리아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의외로 다정하네.”

“뒷말이 있습니다.”

“불길한데.”

“『혼자 읽히면 아침까지 첫 권도 끝내지 못할 거다』라고.”

“쓸데없는 말이 붙었잖아!!”

“저도 동감입니다.”

“설희 씨까지!”

“그리고.”

“아직 더 있어!?”

“두통, 구역질, 현기증, 기억 혼란, 그 밖의 불가해한 언동이 확인되면 의사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불가해한 언동이 뭔데!”

설희가 닫힌 문을 바라봤다.

“모에모에 큥, 같은 것 말입니까?”

“아니야!! 그건 미래의 문화야!”

“역시 의사를……”

“앉아!!”

설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에 앉았다.

“그래서.”

“응?”

“어디까지 이해하셨습니까?”

미리아는 보고서를 바라봤다.

“제목.”

“……”

“거기까지만.”

“예전의 미리아 님은 조금 더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미리아의 손이 멈췄다.

“……이쪽의 나?”

“네.”

“머리 좋았어?”

“적어도 신용장을 보고 3 분 동안 침묵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짜증 나네!”

설희는 자료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럼 정말 기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선생님.”

“저는 교사가 아닙니다.”

“사회 시간 좀 부탁할게.”

“지금부터 하는 건 재무입니다.”

“전부 학교 공부처럼 보여.”

설희는 첫 장을 펼쳤다.

“먼저 NOC 는 하나의 회사만으로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응.”

“각국에 계열회사, 제휴기업, 창고회사, 선박회사, 상사, 가공장이 있습니다.”

“악의 종합상사네.”

“겉으로는 평범한 기업입니다.”

“뒤로는?”

“NOC 입니다.”

“설명이 안 되잖아!”

설희는 무시했다.

“예를 들어 필리핀에서 구입한 물자를 다른 지역으로 운반할 경우.”

“응.”

“현지 기업이 조달하고, 선박회사가 수송하고, 창고회사가 보관하며, 판매처와의 계약은 다른 회사가 맺기도 합니다.”

“한 회사가 다 하는 게 아니야?”

“국경을 넘는 거래는 그 편이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세금 같은 거?”

“세금, 법규제, 통화, 수출입 허가, 보험, 현지 상관습——여러 가지입니다.”

“……”

“그 표정은 뭡니까?”

“갑자기 어른 이야기가 됐어.”

“스물아홉 살이셨다면서요?”

“보육사라고 했잖아!”

설희가 서류 한 장을 가리켰다.

“그리고 이것이 신용장입니다.”

“나왔다. 키라 님 거.”

“그 호칭은 삼가 주십시오.”

“그럼 뭔데?”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희는 종이 여백에 동그라미 두 개를 그렸다.

“물건을 파는 사람.”

“응.”

“물건을 사는 사람.”

“응.”

“먼 나라의 상대에게 비싼 물건을 넘길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줄지 안 줄지 모르잖아.”

“네.”

“반대로 사는 쪽은 돈을 냈는데 물건이 안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은행이 중간에 들어가?”

설희가 살짝 고개를 들었다.

“이해는 빠르시네요.”

“키라 님이 있으니까.”

“관계없습니다.”

“칭찬 좀 해 줘도 되잖아.”

“은행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거래에 대해 지급을 보증한다. 그것이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렇구나.”

미리아는 샌드위치를 한입 먹었다.

“그러니까.”

“네.”

“모르는 나라의 모르는 회사가 『꼭 돈 낼 테니까 믿어줘♡』라고 해도 무리니까.”

“네.”

“은행한테 『이 사람 돈 냅니다』라고 말하게 하는 거네.”

“매우 거칠게 표현하셨지만 대체로 맞습니다.”

“알았다!”

“그럼 선하증권은요?”

“……”

“미리아 님?”

“오늘은 여기까지.”

“시작한 지 10 분입니다.”

“선생님 너무 엄격해!”

“교사가 아닙니다.”

설희는 다음 자료를 펼쳤다.

“미리아 님께서 생각하시는 한반도의 수요를 NOC 가 가져오려면 이런 구조는 피할 수 없습니다.”

미리아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조금 사라졌다.

“역시 그렇게 돼?”

“비행기를 모아라, 배를 띄워라, 물자를 옮겨라——명령만 하는 건 쉽습니다.”

“응.”

“하지만 그것을 누가 소유하고, 누가 계약하고, 어느 항구에서 내보내고, 누가 대금을 지불하고, 어느 은행을 통할 것인지.”

“……”

“거기까지 정해져야 비로소 물자가 움직입니다.”

미리아는 책상에 턱을 괴었다.

“전쟁은 무기만 있는 게 아니구나.”

“당연합니다.”

“게임에서는 탄약 주워서 들고 가면 끝이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미래의 군사 교양.”

“의사를 부를까요?”

“FPS 야!!”

설희는 책상 위 지도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수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NOC 는 한반도 투자를 우선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설희의 손가락이 북쪽으로 움직였다.

“먼저 북쪽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다음은 남쪽.

“남쪽에는 대한민국.”

“응.”

“양쪽 모두 한반도 전체에 대해 자신이 정통 정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저씨한테 들었어.”

“38 선 주변에서는 이미 무력 충돌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면전이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하지.”

“적어도 수령께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다.”

“설희 씨는?”

설희의 손가락이 멈췄다.

“긴장 수위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은?”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

“하지만.”

설희는 미리아를 바라봤다.

“한 달 뒤인 6 월 25 일에 북쪽이 전면 침공을 시작한다.”

“응.”

“미국이 개입하고.”

“응.”

“게다가 일본에 주둔 중인 지상군까지 투입한다.”

“응.”

“거기까지 단언하신다면.”

한 박자.

“저도 수령과 같은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뭐?”

“의사를 부르겠습니다.”

“설희 씨이이이!!”

“합리적입니다.”

“미래에서는 전부 일어난다니까!”

“그렇다면 6 월 25 일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 냉정하네!”

“재무 담당이니까요.”

“그게 관계 있어!?”

설희는 다시 지도에 시선을 돌렸다.

“다만.”

“응?”

“수령께서 미리아 님께 한 달을 주신 이유는 이해합니다.”

“안 믿는데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준비 비용 일부를 잃는 것으로 끝납니다.”

“아.”

“하지만.”

설희의 손가락이 일본 열도로 이동했다.

“정말로 미군까지 움직일 정도의 전쟁이 벌어진다면.”

일본.

필리핀.

동남아시아.

태평양.

손가락이 각지를 이어 갔다.

“현재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NOC 의 선박, 항공기, 창고, 공장, 인력을 한 달 뒤에 갑자기 모을 수는 없습니다.”

“……”

“그래서 오늘 밤부터 조사하는 거구나.”

“네.”

“뭘 쓸 수 있고.”

“네.”

“뭘 쓸 수 없는지.”

“네.”

“뭘 멈추고, 뭘 이쪽으로 돌릴지.”

“그 판단을 내일 아침에 하시는 거겠지요?”

"……내가?"

"미리아 님께서."

"아저씨가 아니고?"

"수령께서는 참석하지 않으십니다."

"진짜 안 오는 거야, 그 인간!!"

"조금 전에 물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두 번 물으면 바뀔까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미리아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 옆에서 설희가 다음 보고서를 집어 들었다.

"그럼."

"아직 더 해?"

"당연합니다."

"이제 신용장은 알겠는데?"

"기초 중 한 항목일 뿐입니다."

"……"

설희가 자료 끝부분의 목록을 펼쳤다.

《NOC 주요 운용 자산》

《항공 수송》

《선박》

《수리 시설》

《해외 창고》

미리아의 눈이 멈췄다.

"……비행기?"

"네."

"비행기 몇 대나 있어?"

"여기에는 자산 구분만 적혀 있습니다. 기종과 가동 상태는 비비안의 보고서에 있습니다."

"어느 거?"

"네 번째입니다."

미리아는 맨 아래의 두꺼운 파일을 바라봤다.

"……"

손을 뻗는다.

설희가 그 손을 막았다.

"아직입니다."

"왜!"

"기초가 먼저입니다."

"나 지금 게임에서 새 무기 발견한 애처럼 굴고 있잖아!"

"……스물아홉 살이셨다면서요?"

"그러니까 보육사라고!!"

설희는 담담하게 첫 번째 파일을 다시 펼쳤다.

"그럼 다음으로 선하증권입니다."

"아직도 은행 이야기 하는 거야!?"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서류부터 익히십시오."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

밖에는 아직 비가 내리고 있었다.

책상 위에서는 샌드위치가 하나 줄어들고, 자료는 한 쪽씩 늘어 갔다.

*

시계 바늘이 11 시를 넘겼다.

"……"

미리아는 선하증권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라보기만 하고 있었다.

"미리아 님."

"네."

"여기에는 무엇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배."

"배가 아닙니다."

"짐."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이제 무리야!"

미리아는 책상에 엎어졌다.

신용장.

선하증권.

환율.

보험.

수출 허가.

수입 허가.

모르는 은행.

모르는 항구.

모르는 회사.

모르는 통화.

“전쟁보다 서류가 더 세잖아……”

“전쟁을 하기 위해서도 서류는 필요합니다.”

“내가 전쟁하는 게 아니라고!”

“아까도 들었습니다.”

설희는 담담하게 페이지를 넘겼다.

미리아는 뺨을 책상에 붙인 채 종이를 바라봤다.

영문이 빼곡했다.

“……길어.”

“뭐가요?”

“영어.”

설희의 손가락이 멈췄다.

“미리아 님.”

“뭐?”

“예전에는 이 정도 영어 문장을 읽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습니다.”

“……”

미리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쪽의 나?”

“네.”

“영어 할 줄 알았어?”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일상 회화에 곤란함이 없으셨습니다. 계약서도 직접 검토하셨고요.”

“……완전 유창했네.”

“네.”

“열아홉 살의 나, 스펙 너무 높은 거 아냐?”

“본인이십니다만.”

“속이 다르다고!”

설희는 잠시 미리아를 바라봤다.

“말투도 바뀌셨고.”

“응.”

“기억에도 혼란이 있고.”

“응.”

“영어도 불편해지셨습니다.”

“불편하다고 하지 마. 조금은 알아.”

“게다가 미래 문화나 미래 군사 교양이라는 불가해한 발언도 늘었습니다.”

“……”

“역시 뇌에 무언가——”

“장애 아니야!!”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말했어!”

“수령께서 의사를 염려하시는 이유는 이해합니다.”

“아저씨 편 들지 마!”

설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페이지로 돌아갔다.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전환 진짜 빨라.”

“이쪽은 항만 관련입니다.”

“항구?”

미리아가 몸을 조금 일으켰다.

“배 있잖아? 항구에 대고 짐 내리면 끝 아니야?”

“끝이 아닙니다.”

“즉답!?”

“항만 사용 계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

“접안.”

“응.”

“하역.”

“응.”

“창고.”

“응.”

“연료, 물, 수리.”

“아직 더 있어?”

“검역과 통관도 있습니다.”

“……”

미리아는 다시 책상에 가라앉았다.

“배는 그냥 바다만 달리면 되는 거 아니었어……”

“육지에 짐을 내려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지만……”

“비행기도 같습니다.”

미리아의 귀가 반응했다.

“비행기?”

“갑자기 고개를 드시네요.”

“비행기는 좋아해.”

“몰랐습니다.”

“미래에서는.”

“……”

설희는 이제 더 이상 태클을 걸지 않았다.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원하는 곳으로 마음대로 날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활주로 있으면 내려가면 되잖아.”

“마음대로요?”

“……”

“다른 나라의 비행장에?”

“……”

“대형 수송기를?”

“……안 돼?”

“안 됩니다.”

“그렇겠죠오~.”

설희는 손가락을 하나씩 접었다.

“비행장 사용 계약.”

“응.”

“착륙 허가.”

“응.”

“주기 장소.”

“응.”

“급유.”

“응.”

“하역.”

“응.”

“정비 설비.”

“응……”

“현지 보안.”

“아직 더 있어!?”

“당연합니다.”

미리아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게임이면 활주로 보이면 내려서 끝이라고!”

“GAME?”

“놀이.”

“항공기를 이용한?”

“전차도 있어.”

“……”

“배도 있고, 병사도 있어.”

설희의 눈썹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Kriegsspiel?”

“응?”

“독일식 병기연습(兵棋演習) 말씀이십니까?”

“아아, 아니야 아니야.”

“그럼?”

“비디오 게임.”

“텔레비전을 이용한 놀이입니까?”

“맞아. 화면 보면서 비행기도 날리고, 전차도 타고, 총도 쏘는 거.”

“……”

“뭐야, 그 얼굴.”

“병기연습을 놀이로……”

설희는 잠시 생각했다.

“소위 미래인이라는 분들은 참 독특하시군요.”

“그 『소위』라는 말, 절대 안 믿고 있지.”

“네.”

“즉답하지 마!!”

미리아는 턱을 괴었다.

“근데 뭐……”

“?”

“게임도 결국 군인 장기나 체스 같은 거였구나.”

“무슨 뜻이십니까?”

“판 위만 보고 있었어.”

미리아는 손가락으로 보고서를 두드렸다.

“비행기가 있고.”

“네.”

“전차가 있고.”

“네.”

“병사가 있고.”

“네.”

“그걸 움직이면 게임이 돼.”

“병기연습도 그런 사고방식과 비슷한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미리아는 책상에 흩어진 서류들을 바라봤다.

은행.

계약.

보험.

항구.

창고.

비행장.

정비.

“말을 판 위에 올려놓기 전까지 이만큼이나 필요한 거잖아?”

“그렇습니다.”

“……”

미리아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판 바깥이 더 크잖아.”

설희의 입가가 아주 조금 풀렸다.

“현실이니까요.”

“게임은 친절하네……”

“놀이니까요.”

“War Thunder 도 DCS World 도 여기까지 청구서를 보내진 않았는데.”

“……또 새로운 단어가 늘었군요.”

“비행기 게임.”

“아까의 병기연습과는 다른 겁니까?”

“다르다니까!”

설희는 네 번째 보고서로 손을 뻗었다.

미리아의 눈이 빛났다.

“그거!”

“비비안의 보고서입니다.”

“보여줘!”

“갑자기 기운이 나셨네요.”

“선하증권보다 비행기가 더 좋다고!”

“그러시겠죠.”

검은 표지.

《VIVIAN BLACKWOOD》

그 아래에는 영문으로 부서명이 적혀 있었다.

《AVIATION》

《SHIPPING》

《PROCUREMENT》

《INTELLIGENCE》

“……”

미리아는 얼굴을 가까이 들이댔다.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어.”

“안심했습니다.”

“바보 취급해?”

“하지 않습니다.”

“분명 하고 있잖아.”

페이지를 펼쳤다.

기종명과 숫자, 등록지, 계열회사, 정비 상태가 세세하게 나열돼 있었다.

“……우와.”

“왜 그러십니까?”

“비행기 엄청 많아.”

“항공 부문이니까요.”

“NOC, 항공회사야?”

“항공회사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선박회사도?”

“있습니다.”

“창고회사도?”

“있습니다.”

“공장도?”

“있습니다.”

“뭐든 다 하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미리아의 손가락이 멈췄다.

《DOUGLAS C-47 SKYTRAIN》

“아.”

“아십니까?”

“이거 본 적 있어.”

“실물을요?”

“화면으로.”

“……”

“DCS World.”

“아까 말씀하신 놀이군요.”

“맞아 맞아.”

미리아는 조금 신난 얼굴로 종이를 바라봤다.

“C-47 이지. 수송기.”

“네.”

“이런 거 좋아해.”

“왜요?”

“뭔가 수수한데 열심히 일하는 느낌 있잖아.”

“상당히 애매한 표현이군요.”

“전투기처럼 반짝반짝하지 않은 게 좋아.”

페이지를 더 넘겼다.

다음 기종.

《CURTISS C-46 COMMANDO》

“.....C-46.”

“이것도?”

“이름은 들어본 적 있어.”

“게임에서요?”

“이건…… 만져 본 기억은 없네.”

미리아는 영문을 따라 읽었다.

“그래도 수송기지?”

“네.”

“많이 있어?”

“계열기업, 관계회사, 장기 관리계약 기체를 합치면——”

설희가 숫자를 확인했다.

“약 200 대.”

“……”

미리아가 고개를 들었다.

“200 대?”

“전후입니다.”

“엄청 많잖아!!”

“전부 비행 가능하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

미리아의 웃음이 멈췄다.

“싫은 식으로 말하네.”

“사실입니다.”

페이지를 따라간다.

정비 중.

장기 보관.

부품 대기.

엔진 교체.

계약 운항 중.

등록 변경 대기.

“……”

“미리아 님?”

“무덤 같네.”

“실례입니다.”

“날 수 있는 건 몇 대야?”

“즉시 운항 가능한 기체는——”

설희가 목록을 확인했다.

“97 대.”

“절반은 자고 있잖아!!”

“『자고 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깨울 수 있어?”

“뭘 말씀이십니까?”

“자고 있는 애들.”

“……”

“한 달 있어.”

설희가 미리아를 바라봤다.

“정비사가 필요합니다.”

“모아.”

“부품.”

“모아.”

“조종사.”

“모아.”

“비행장 사용 계약.”

“따내.”

“등록과 운항 허가.”

“따내.”

“보험.”

“……들어.”

“계약 운항 중인 기체도 있습니다.”

“……”

“현재 사용 중인 기체를 마음대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설희 씨 부탁해.”

“결국 그렇게 되는군요.”

“모르니까 너희가 있는 거야!”

“수령께도 똑같이 말씀하셨겠군요.”

“그걸 어떻게 알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미리아는 연필을 집었다.

노트에 쓴다.

《C-46  약 200》

《바로 날 수 있음  97》

《자고 있는 애들 깨우기》

설희가 들여다봤다.

“……”

“뭐.”

“리화가 보시면 화내실 것 같습니다.”

“왜?”

“『자고 있는 애들』로는 정비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내일 리화 씨한테 제대로 고쳐 달라고 할게.”

“린은 문장 교정 담당이 아닙니다.”

“팀워크야!”

“편리한 말이군요.”

페이지를 더 넘긴다.

C-47.

C-46.

소수의 대형 4 발 수송기.

그리고 그 뒤에는 반드시 다른 항목들이 따라붙어 있었다.

조종사.

정비사.

예비 부품.

연료 계약.

비행장.

창고.

통신.

“……”

미리아의 연필이 멈췄다.

“설희 씨.”

“네.”

“조금 알 것 같아.”

“뭘 말씀하십니까?”

“비행기 200 대를 가지고 있어도, 200 대분의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당연합니다.”

“날 수 있는 기체가 필요하고.”

“네.”

“날릴 사람.”

“네.”

“고칠 사람.”

“네.”

“연료.”

“네.”

“부품.”

“네.”

“내릴 비행장.”

“네.”

“거길 쓰는 계약.”

“네.”

“짐을 내릴 사람.”

“네.”

“거기서 운반할 트럭.”

“네.”

“창고.”

“네.”

“통신.”

“네.”

“……”

미리아는 노트에 차례로 적었다.

《비행기》

《조종할 사람》

《고칠 사람》

《연료》

《부품》

《비행장》

《비행장 계약》

《트럭》

《창고》

《통신》

잠시 생각한다.

《통역》

그리고 하나 더.

《지도》

설희가 바라봤다.

“지도도요?”

“모르는 곳에 가는 거잖아?”

“네.”

“현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거잖아?”

“네.”

“그럼 지도랑 통역이 필요하잖아.”

“맞습니다.”

“……”

미리아는 노트를 바라봤다.

전차도.

전투기도.

총도.

아직 하나도 적지 않았다.

“전쟁이라는 게.”

“네.”

“진짜 무기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제야 이해하셨습니까?”

“War Thunder 에서는 부서져도 다음 판이면 다 고쳐져 있는데.”

“누가 고칩니까?”

“게임이.”

“현실에서는?”

“사람.”

“네.”

“DCS 에서는 활주로 고르면 거기서 시작해.”

“현실에서는?”

“계약.”

“네.”

“배도 항구에 도착하면 끝.”

“현실에서는?”

“하역, 창고, 통관……”

“네.”

“……”

미리아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설희 선생님.”

“교사가 아닙니다.”

“현실, 진짜 더럽게 귀찮네.”

“그것도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넘겼다.

미리아가 시계를 바라봤다.

“……날짜 바뀌었어.”

“네.”

“내일 9 시까지?”

“오늘 9 시까지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

앞으로 9 시간.

수면 시간을 빼면——

“잘 수 있어?”

“진도에 달렸습니다.”

“재워줘.”

“비비안의 보고서도 아직 도중입니다.”

“악마!”

“그 말도 벌써 몇 번째입니까.”

설희가 다음 페이지로 손을 뻗었다.

“다음은 선박 운용.”

“윽.”

“수리 시설.”

“으윽.”

“해외 창고.”

“으으윽.”

“군수 조달.”

“……”

미리아의 눈이 움직였다.

“방금 뭐라고 했어?”

“군수 조달입니다.”

“그거 먼저 보자.”

“아직입니다.”

“왜!”

“순서입니다.”

“조금만!”

“안 됩니다.”

“보기만 할게!”

“안 됩니다.”

“설희 씨!”

“안 됩니다.”

“세 번 말했어!”

미리아가 비비안의 파일로 손을 뻗었다.

설희가 눌러 막았다.

“미리아 님.”

“한 장만!”

“어린애입니까?”

“보육사야!”

“그래서 더 안 됩니다.”

“왜!”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종이 한 장이 살짝 밀려났다.

영문이 보였다.

《3.5-INCH ROCKET LAUNCHER M20》

“……”

미리아의 움직임이 멈췄다.

“미리아 님?”

“……M20?”

설희도 종이를 바라봤다.

“아십니까?”

미리아는 영문을 뚫어져라 바라봤다.

“슈퍼 바주카……?”

그 아래.

《V. BLACKWOOD》

“……”

미리아는 천천히 설희를 바라봤다.

“설희 씨.”

“네.”

“비비안이라는 사람.”

“네.”

“대체 뭘 가지고 있는 거야.”

설희는 종이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았다.

“내일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지금 보여줘!”

“아직입니다.”

“왜!”

“선박 운용이 먼저입니다.”

“거기로 다시 돌아가냐아아아!!”

오전 0 시 7 분.

미리아의 밤샘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었다.

*

# 『1950 년, 악역 영애는 일본을 멸망시키고 싶다』

—전생했더니 이세계가 아니라 6·25 전쟁 직전의 일본이었다—

## 제 4 화  단죄 이벤트는 회의실에서

### —1—

＊

5 월 27 일, 아침이 되었다.

미리아 입장에서는,

“아침이 와 버렸어……”

였다.

창밖에는 어젯밤 비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새들까지 지저귀고 있었다.

세상은 상쾌했다.

미리아만 죽어 있었다.

“……졸려.”

“아가씨.”

“네.”

“조금만 더 고개를 들어 주십시오.”

“이대로 먹여 줘.”

“무리입니다.”

“그럼 재워 줘.”

“아홉 시부터 회의입니다.”

“알고 있으니까 괴로운 거야……”

어젯밤부터 그대로 입고 있던 흰 블라우스와 짙은 남색 승마 바지.

검은 머리는 뒤에서 대충 묶어 놓았다.

눈 밑에는 옅게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다.

결국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신용장.

선하증권.

항만 사용.

비행장.

C-46.

M20.

머릿속에서는 어젯밤 외운 단어들이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맞은편에는 설희가 앉아 있었다.

이쪽도 철야를 했을 텐데, 평소와 같은 흰 셔츠, 붉은 베스트, 검은 팬츠 수트 차림으로 표정도 거의 변함이 없었다.

“설희 씨.”

“네.”

“진짜 안 잤어?”

“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멀쩡해?”

“멀쩡하지 않습니다.”

“어디가?”

“조금 졸립니다.”

“그게 다야!?”

설희 앞에는 아직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았다.

그런데도 등을 곧게 펴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때 시녀가 접시를 들고 들어왔다.

“기다리셨습니다, 아가씨.”

“오오……”

미리아 앞에 놓인 아침 식사.

갓 구운 토스트.

얇게 썬 햄.

과일.

그리고 폭신하게 부푼 노란 오믈렛.

그 한가운데에는.

케첩으로 그린 붉은 하트.

“……”

미리아는 입을 다물었다.

이어 시녀는 설희 앞에도 똑같은 접시를 놓았다.

토스트.

햄.

과일.

오믈렛.

그리고.

이쪽에도 붉은 하트.

"……"

설희도 입을 다물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오믈렛으로 떨어졌다.

"시녀 씨."

"네♡"

"왜 설희 씨 것에도 하트가 붙어 있어?"

"같은 아침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맞출 필요가 있어?"

"있습니다♡"

미리아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시녀가 가슴 앞에서 두 손을 모았다.

"그럼——"

"잠깐."

"네?"

"어제 그거 하려는 거야?"

"물론입니다♡"

"문화 흡수 너무 빠르지 않아?"

설희가 미리아를 바라봤다.

"어제 그거라니요?"

"……"

미리아는 시선을 피했다.

"모르는 편이 좋을 것 같아."

"그럼 모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판단 빠르네.”

시녀는 미리아의 오믈렛을 향해 두 손을 뻗었다.

“맛있어져라—♡”

“……”

기대에 찬 시선.

“어쩔 수 없네……”

미리아도 손가락으로 하트를 만들었다.

“맛있어져라.”

“모에모에——”

“큥♡”

“……”

설희가 멈춰 있었다.

“미리아 님.”

“네.”

“방금 것은?”

“미래 문화.”

“잊기로 하겠습니다.”

“잠깐 잠깐.”

“무엇입니까?”

미리아는 설희의 접시를 봤다.

케첩 하트.

“설희 씨 것, 아직 맛있어지지 않았잖아.”

“원래부터 맛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야.”

“어떤 문제입니까?”

시녀가 활짝 웃었다.

“설희 님도 꼭♡”

“사양하겠습니다.”

“거 봐.”

“사양하겠습니다.”

“하트까지 있는데.”

“케첩입니다.”

“차갑네.”

“오믈렛은 따뜻합니다.”

“그런 데가 문제라니까!”

미리아는 조금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설희 씨.”

“네.”

“어젯밤 내내 내 공부 도와줬잖아.”

“네.”

“나 오늘 아홉 시부터 간부 네 명한테 몰아붙여질 거잖아.”

“설명해 주시면 될 뿐입니다.”

“아저씨 안 오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 정신적 지원이 필요해.”

“……”

“같이 모에모에 큥 해 줘.”

“논리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부탁해♡”

“……”

설희는 미리아를 봤다.

시녀를 봤다.

자기 오믈렛을 봤다.

붉은 하트.

“……한 번뿐입니다.”

“좋았어!”

“무엇을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세 사람이 접시를 향해 손을 뻗었다.

“하나, 둘.”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설희만 조금 늦게,

“……맛있어, 져라.”

“목소리 너무 작아!”

“계속하십시오.”

“모에모에——”

미리아와 시녀가 하트를 만들었다.

“큥♡♡”

한 박자.

설희도 아주 조금 손가락을 굽혔다.

“……큥.”

“……”

미리아가 굳었다.

시녀도 굳었다.

설희가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봤다.

“무엇입니까?”

“아니……”

미리아는 입가를 눌렀다.

“설희 씨, 방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했잖아.”

“하지 않았습니다.”

“큥이라고 했잖아.”

“말하지 않았습니다.”

“했다니까.”

“미리아 님.”

“네.”

“잊어 주십시오.”

“……”

미리아는 씩 웃었다.

“비밀로 해 줄게.”

설희의 눈이 아주 조금 가늘어졌다.

“……감사합니다.”

“그 대신——”

“조건을 붙이는 순간 비밀이 아닙니다.”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얼굴에 쓰여 있습니다.”

“칫.”

“방금 혀를 차셨지요.”

“안 찼어.”

시녀가 즐거운 듯 오믈렛을 바라봤다.

“그럼 식기 전에 드십시오♡”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포크를 들었다.

미리아가 한입.

“……맛있어.”

설희도 한입.

“……”

미리아가 본다.

“맛있어?”

“네.”

“모에모에 큥 효과 있었어?”

“요리사의 실력입니다.”

“끝까지 인정 안 하네.”

“인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 사람은 그제야 아침 식사를 시작했다.

미리아는 토스트에 버터를 바르면서 슬쩍 설희를 봤다.

(……이거 써먹을 수 있겠는데.)

설희가 고개를 들었다.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냐.”

(절대 나중에 써먹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며 홍차에 손을 뻗었다.

등이 자연스럽게 펴졌다.

팔꿈치는 벌어지지 않았다.

찻잔을 드는 동작까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

"왜 그러십니까?"

"아니."

미리아는 자기 손을 봤다.

"나 잠을 못 자도 먹는 자세만큼은 예쁘네 싶어서."

"예전과 같습니다."

"역시?"

"네."

"영어는 사라졌는데?"

"그런 듯합니다."

"몸이 이상한 것만 기억하고 있네……"

"예법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몸만 아가씨네."

"아가씨이시니까요."

"속은 아니거든."

설희는 홍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런데, 미리아 님."

"응?"

"식사 후에는 옷을 갈아입어 주셔야 합니다."

미리아의 손이 멈췄다.

"……갈아입어?"

"네."

"이걸로 되잖아."

자기 승마 바지를 본다.

"편하고."

“오늘은 정식 간부회의입니다.”

“비밀결사에도 드레스 코드가 있어?”

“있습니다.”

“귀찮아.”

“예전의 미리아 님은 직접 회의용 의상을 고르셨습니다.”

“……”

불길한 예감이 든다.

“어떤 건데?”

“식사 후에.”

“지금 알려 줘.”

“식사 후에.”

“무서운데.”

시녀가 활짝 웃었다.

“아주 잘 어울리실 겁니다, 아가씨♡”

“그 말투가 제일 무서워!!”

*

“……이게 뭐야.”

아침 식사로부터 20 분 뒤.

미리아는 거울 앞에 서 있었다.

짙은 남색.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그 색이었다.

가늘게 조인 허리.

무릎 아래까지 크게 퍼지는 스커트.

New Look 을 연상시키는 여성스러운 실루엣.

흰색에 가까운 작은 아이보리 칼라.

거기까지는 괜찮다.

문제는 그 위였다.

“나 군인이야?”

“아닙니다.”

시녀가 소맷부리를 정돈했다.

“그럼 왜 이렇게 된 거야?”

같은 짙은 남색의 짧은 재킷.

높은 칼라.

두 줄로 늘어선 금빛 단추.

칼라와 소매에는 옛 유럽 군대의 예복을 떠올리게 하는 금색 브레이드.

어깨에는 장식 견장.

가슴에서는 가느다란 장식끈까지 늘어져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나라의 군복도 아니었다.

계급장 같은 것도 없었다.

대신 가슴에는 작은 NOC 휘장.

“어깨에 뭐가 이렇게 주렁주렁 달렸어.”

“장식끈입니다.”

“뭘 장식하는데.”

“장식끈을.”

“설명이 안 되잖아!”

시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얇은 흰 장갑을 내밀었다.

“이쪽을.”

“또 있어?”

“있습니다.”

흰 장갑.

검은 펌프스.

검은 머리는 정성스럽게 빗어 어깨에서 등으로 곧게 떨어뜨렸다.

거울 속.

열아홉 살 미리아가 서 있었다.

“……”

묘하게 잘 어울린다.

화가 날 정도로.

“이거 누가 골랐어?”

“아가씨이십니다.”

“……”

“예전의 아가씨께서.”

“이쪽의 나아아아!!”

미리아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걸 만든 거야!?”

문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돌아본다.

설희가 서 있었다.

“설희 씨.”

“잘 어울리십니다.”

“칭찬받는 기분이 안 드는데.”

“칭찬하고 있습니다.”

미리아는 거울을 봤다.

검은 머리.

흰 장갑.

짙은 남색 드레스.

금색 장식이 잔뜩 달린 군장풍 재킷.

“……”

팔짱을 낀다.

“악역 영애라기보다.”

“?”

“최종 보스잖아.”

“무슨 말씀입니까?”

“혼잣말.”

설희가 시계를 봤다.

“8 시 40 분입니다.”

“네.”

“가시지요.”

“회의실?”

“네.”

“이 집 안에?”

“네.”

미리아는 자료를 안아 들었다.

“그럼 금방이네.”

“그렇습니다.”

“몇 층?”

“지하 12 층입니다.”

“……”

미리아가 멈췄다.

“지금 뭐라고?”

“지하 12 층.”

“지하?”

“네.”

“12 층?”

“네.”

“이 집에?”

“네.”

“……비밀기지 있어?”

설희는 잠시 생각했다.

“그렇게 부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있구나!!”

*

안내받은 곳은 저택 깊숙한 곳이었다.

손님을 들일 만한 곳은 아니었다.

좁은 복도.

무거운 문.

더 안쪽.

“나 여기 처음 와 보는 것 같아.”

“예전에는 여러 번.”

“이쪽의 나는 말이지!”

“편리한 표현이군요.”

“편하지?”

막다른 곳.

아무것도 없는 벽.

“……”

미리아는 좌우를 둘러봤다.

“막다른 길인데.”

“네.”

“회의실 어디야.”

“아래입니다.”

“그건 들었어.”

설희가 벽가의 목제 장식에 손을 뻗었다.

작은 금속음.

찰칵.

벽 일부가 천천히 안쪽으로 들어갔다.

“……”

이어 옆으로 미끄러졌다.

그 너머에 나타난 것은.

“우와.”

철창이었다.

아니.

승강기였다.

검은 철골.

격자형 문.

황동 손잡이.

마치 거대한 새장을 그대로 수직 통로에 매달아 놓은 듯한 낡은 엘리베이터.

“이게 뭐야.”

“승강기입니다.”

“보면 알아!”

“그럼 무엇을 물으신 겁니까?”

“좀 더 평범한 건 없었어!?”

“이것으로 문제없습니다.”

“비밀결사는 왜 하나하나 분위기를 잡는 거야!?”

설희가 격자를 열었다.

철컹.

“들어가시지요.”

“무서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설명 들으니까 더 무서워!”

미리아는 조심조심 올라탔다.

바닥은 검은 철판으로 덮여 있었다.

아래는 보이지 않는다.

설희도 뒤따라 탔다.

격자가 닫힌다.

철컹.

다시 바깥쪽 문.

쿵.

“……”

미리아는 철창을 움켜쥐었다.

“이거 지하 12 층까지 가?”

“네.”

“몇 초?”

“조금 걸립니다.”

“제일 싫은 대답이네.”

격자문 위에는 시계판 같은 둥근 표시기가 붙어 있었다.

시각 숫자 대신 늘어선 것은,

《1》

《B1》

《B2》

그리고.

《B12》

까지의 문자.

가느다란 붉은 바늘은 현재 《1》을 가리키고 있다.

설희가 레버를 조작했다.

낮은 기계음.

우웅.

바닥이 내려간다.

"우왓."

미리아의 몸이 살짝 흔들렸다.

붉은 바늘이 움직인다.

찰칵.

《B1》

철창 너머로 어두운 석조 벽이 위로 흘러간다.

찰칵.

《B2》

조명 하나가 위로 사라졌다.

덜컹.

우웅.

찰칵.

《B3》

"……"

미리아는 표시기를 올려다봤다.

"하나씩 보여 주니까 더 무섭네."

"눈을 감으시겠습니까?"

"그건 그것대로 무서워."

찰칵.

《B4》

찰칵.

《B5》

"지하 5 층."

“네.”

“이 집 밑에 뭐가 들어 있는데.”

“창고.”

“응.”

찰칵.

《B6》

“통신 설비.”

“응.”

찰칵.

《B7》

“자료실.”

“응.”

찰칵.

《B8》

“기타.”

“기타가 제일 무섭잖아!”

설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찰칵.

《B9》

“……아직 세 개 남았네.”

“네.”

찰칵.

《B10》

“이 승강기, 돌아갈 때도 타?”

“당연합니다.”

“계단 없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갈래.”

“지하 12 층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갈게요.”

“현명하십니다.”

찰칵.

《B11》

낮은 기계음이 조금씩 약해진다.

그리고.

찰칵.

붉은 바늘이 《B12》를 가리켰다.

딩.

작은 종이 울렸다.

덜컹.

승강기가 멈췄다.

설희가 격자에 손을 댔다.

“도착했습니다.”

“……지하 12 층.”

“네.”

철컹.

문이 열렸다.

미리아는 한 걸음 밖으로 나왔다.

어두운 복도.

그 끝에는 무거운 양개문이 있었다.

설희가 걷는다.

미리아도 뒤를 따른다.

“설희 씨.”

“네.”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무엇입니까?”

“나 뭘 설명해야 했지?”

“6 월 25 일 한반도에서 대규모 전투가 시작된다는 예측.”

“응.”

“미군이 개입하고, 일본에 주둔 중인 부대까지 한반도로 투입될 가능성.”

“응.”

“그 결과 발생하는 수송, 수리, 식량, 의료, 통신 등의 수요를 NOC 가 일본 기업보다 먼저 확보할 수 있는지.”

“응.”

설희가 미리아를 봤다.

“그리고 그를 위해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

“어젯밤 공부하셨지요?”

“했어.”

“그럼 문제없습니다.”

“문제밖에 없거든.”

문 앞.

설희가 멈췄다.

“미리아 님.”

“왜.”

“한 가지만.”

“응.”

“안에서는 오늘 아침 일에 대해서는.”

“말 안 해.”

“감사합니다.”

“그래도 잊지는 않았어.”

“잊어 주십시오.”

“무리.”

설희는 말없이 문을 열었다.

무거운 소리.

고오옹──.

“……”

미리아의 입이 벌어졌다.

넓다.

천장이 높다.

중앙에는 거대한 원탁.

하지만 완전한 원은 아니다.

입구 쪽만 한 사람이 지나갈 폭으로 끊겨 있다.

그 틈의 안쪽에는 가느다란 연단 하나.

원탁 중앙은 크게 비어 있었다.

그 너머.

벽 한가득.

NOC 의 문장.

붉게 조명된 원환.

중앙의 글자.

《NOC》

어두운 지하 공간 속에서 그것만 불길하게 떠올라 있었다.

"……"

(쇼커잖아.)

그리고.

원탁에는 세 사람.

전부 여자.

전부 검은 망토.

전부 깊게 후드를 눌러쓰고 있었다.

얼굴 절반이 그림자에 잠겨 있었다.

"……"

한 명.

두 명.

세 명.

그리고.

미리아는 옆에 선 설희를 봤다.

(기다리고 있는 세 명에 설희 씨까지 더해서 네 명인가.)

설희는 벽가에 걸려 있던 검은 망토를 집었다.

"……"

걸친다.

어깨를 덮는다.

그리고.

후드를 썼다.

“설희 씨까지 그거 입어!?”

“간부회의 규정입니다.”

“방금 전까지 평범한 안내 담당 얼굴이었잖아!”

“저는 처음부터 간부입니다.”

“알아! 외형의 온도 차 얘기야!”

검은 망토.

깊은 후드.

차가운 옆얼굴.

미리아는 설희를 봤다.

(이 사람, 아까 오믈렛에 ‘큥’이라고 했지.)

하마터면 입 밖으로 나올 뻔했다.

삼켰다.

여기서 말하면.

아마.

영문 자료 300 페이지가 추가될 것이다.

그건 죽는다.

설희는 네 번째 자리로 걸어갔다.

검은 망토.

검은 후드.

기다리던 간부 세 사람.

거기에 설희가 합류한다.

네 명.

원탁.

지하 12 층.

붉게 빛나는 NOC 문장.

미리아는 원탁의 끊긴 틈을 지나 안쪽 연단 앞에 섰다.

금색 장식이 잔뜩 달린 짙은 남색 예복.

흰 장갑.

그 주위를 검은 망토의 여자들이 둘러싸고 있다.

“……”

미리아는 주변을 둘러봤다.

(여자 간부 네 명.)

(검은 망토.)

(지하 비밀기지.)

(나 혼자.)

(원탁.)

(이제부터 네 명이 달라붙어서 몰아붙인다.)

“……”

입에서 튀어나왔다.

“단죄 이벤트 회장이잖아.”

설희가 말했다.

“회의실입니다.”

“똑같아!!”

## 『제 4 화  단죄 이벤트는 회의실에서』

### —2—

*

보오옹——.

“……”

갑자기.

낮은 종소리가 지하 12 층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미리아가 정면을 봤다.

“뭐야?”

보오옹——.

두 번째.

소리는 정면 벽가에서 들렸다.

거대한 NOC 문장.

그 옆.

검은 목제 틀에 황동 문자판을 넣은 커다란 괘종시계가 걸려 있었다.

검은 긴바늘이 12.

짧은바늘이 9.

보오옹——.

“시계구나.”

“네.”

설희가 대답했다.

종은 계속 울렸다.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

“왜 그러십니까?”

“아니.”

일곱 번.

여덟 번.

“비밀기지치고는 시계만 평범하네 싶어서.”

“시각을 알리기 위한 물건이니까요.”

“알거든.”

그리고.

보오옹——.

아홉 번째.

여운이 원탁 위에서 천천히 사라졌다.

설희가 시계를 봤다.

“아홉 시입니다.”

“딱 맞네.”

“당연합니다.”

“악의 비밀결사도 아홉 시 출근이야?”

“회의가 아홉 시 시작입니다.”

“그 부분만 평범한 회사네.”

대답은 없었다.

검은 후드 네 개.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

미리아는 입을 다물었다.

설희가 원탁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한 박자.

“그 전에.”

“?”

설희는 맞은편에 앉은 세 사람을 봤다.

“현재 미리아 님은 의식을 잃기 전의 기억에 일부 혼란이 있습니다.”

“잠깐.”

“여러분에 관한 기억도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잠깐만.”

“번거로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내 앞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설명하지 마!”

“필요합니다.”

“좀 더 이렇게……포장 같은 거 안 돼?”

“무엇을 말입니까?”

“내 존엄성!”

“그럼.”

설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오른쪽을 봤다.

“리화 씨부터.”

“넘겼다!”

검은 후드 하나가 움직였다.

가느다란 손가락이 가장자리에 닿는다.

천천히 뒤로 젖힌다.

좌우로 묶은 두 개의 시뇽.

윤기 나는 검은 머리.

가늘고 긴 눈매.

단정한 이목구비.

웃지 않는데도 이상하게 시선을 끄는 여자였다.

“린 리화입니다.”

“……”

“미리아 님?”

“미인이네.”

리화가 한 번 눈을 깜빡였다.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로.”

“예전에도 여러 번 뵈었습니다만.”

“그건 이쪽의 나잖아!”

“이쪽?”

“설명 귀찮으니까 넘어가.”

“……”

리화는 설희를 봤다.

“항상 이런 상태입니까?”

“어제부터입니다.”

“둘이서 나를 증례처럼 다루지 마!”

맞은편.

다른 후드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새어 나왔다.

“그럼 다음은 나?”

“부탁드립니다.”

후드가 힘차게 뒤로 떨어졌다.

갈색 피부.

살짝 처진 커다란 눈.

갈색 머리는 굵게 땋아 카츄샤처럼 정수리를 둘렀다.

세 사람 중에서는 분명 가장 어려 보였다.

“Isabel de la Cruz.”

한 박자.

“벨이라고 부르셔도 돼요, 미리아 님.”

“벨 짱.”

“바로 짱을 붙여요?”

“괜찮잖아.”

“뭐, 상관없지만요.”

“가볍네.”

“미리아 님한테만큼은 듣고 싶지 않은데요.”

“왜 그래.”

“……미리아 님, 원래 그런 말투였어요?”

벨은 즐거운 듯 웃었다.

남은 한 사람.

아직 후드를 쓰고 있었다.

그 여자는.

곧바로 움직이지 않았다.

몇 초.

미리아를 관찰한다.

"……"

"뭐야?"

마침내.

하얀 손가락이 후드에 닿았다.

천천히 벗는다.

금발은 핀컬을 남긴 채 뒤를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다.

짙은 마스카라가 둘러싼 날카로운 눈.

턱에는 작은 점.

일어서면 미리아보다 훨씬 커 보였다.

표정은 조용했다.

다만.

미리아에게는.

(이 사람이 제일 무서울 것 같은데.)

그렇게 보였다.

여자는 미리아를 봤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Good morning, Miria. Do you remember me?"

"……"

미리아가 굳었다.

"굿……"

모두가 본다.

"Good……morning."

여자의 눈썹이 아주 조금 올라갔다.

"That's all?"

"……"

미리아는 설희를 봤다.

"설희 씨."

"네."

"살려 줘."

“비비안 블랙우드입니다.”

“영어에서 도망쳤다!”

“항공, 해운, 군수, 조달, 정보를 담당합니다.”

“소개만 하고 끝내지 마!”

비비안이 일본어로 바꿨다.

“정말로 잊은 거야?”

“……”

“예전에는 평범하게 영어로 이야기했잖아.”

“그거 어제 알았어.”

“어제?”

“혼잣말!”

벨이 미리아를 봤다.

“영어, 못 하게 된 거예요?”

“못 하는 건 아니야!”

미리아는 가슴을 폈다.

“조금은 해.”

“얼마나?”

“게임에서 외국인이 화내면 대충 무슨 뜻인지 알아듣는 정도.”

“……”

벨이 설희를 봤다.

“중증이네요.”

“왜 그래!!”

리화가 턱에 손가락을 댔다.

“영향은 언어 능력뿐?”

설희가 대답했다.

“영어에 관해서는 예전보다 현저히 불편해지셨습니다.”

“설희 씨!”

“사실이니까요.”

“나 어제부터 사실한테 너무 많이 얻어맞는 거 아니야!?”

벨이 고개를 갸웃했다.

“그래서 오사카 사투리로……”

“왜 오사카 사투리까지 후유증 취급이야!!”

설희.

“인과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진지하게 검토하지 마!!”

비비안이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Miria……”

“왜.”

“You poor thing.”

“불쌍하지 않거든!!”

벨이 웃음을 터뜨렸다.

리화도 아주 조금 입가를 풀었다.

“웃을 데 아니거든!”

“실례했습니다.”

“지금 분명 웃었잖아.”

“아닙니다.”

“설희 씨랑 같은 타입이 또 있잖아!”

“미리아 님.”

설희의 목소리였다.

“네.”

“이제 본론으로.”

“네……”

설희가 후드 가장자리에 손을 댔다.

조용히 뒤로 젖힌다.

이마를 드러내고 귀 주변을 짧게 정리한 윤기 나는 검은 머리.

흰 셔츠에 붉은 베스트, 검은 팬츠 수트.

불과 한 시간 전까지 함께 오믈렛을 먹던 여자가 지금은 검은 망토를 어깨에 걸친 채 원탁의 간부석에 앉아 있다.

“……”

(역시 온도 차 심하네, 이 사람.)

미리아는 다시 네 사람을 봤다.

리화.

벨.

비비안.

설희.

얼굴이 드러나니.

더욱 그렇게 생각된다.

(미녀밖에 없잖아.)

게다가.

전부 방향이 다르다.

날카로운 미인.

밝은 미인.

무서운 미인.

무표정 미인.

"……"

"미리아 님?"

"아니."

미리아는 팔짱을 꼈다.

"아저씨, 얼굴 보고 간부 뽑은 거 아니야?"

침묵.

설희.

"능력입니다."

"진짜?"

"네."

"전부 미인인데?"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아니……"

미리아는 네 사람을 둘러봤다.

"악의 조직, 얼굴 편차치 너무 높잖아."

"얼굴 편차치?"

리화가 눈썹을 찌푸렸다.

“미래 문화.”

“편리하군요, 그 말.”

“편하지.”

벨만 웃었다.

“칭찬으로 받아둘게요.”

“벨 짱 말 빠르네.”

“감사합니다.”

설희가 서류를 열었다.

“그럼.”

목소리가 바뀌었다.

아침 식사 때와 다르다.

간부의 목소리.

“수령은 본 회의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진짜 안 오는구나.”

“네.”

“도망쳤네.”

“나중에 그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하지 마!”

설희는 계속했다.

“미리아 님께서 6 월 25 일 한반도에서 대규모 전투가 시작된다는 예측을 제시하셨습니다.”

세 사람의 표정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수령은 그 예측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강조해?”

“중요합니다.”

“네……”

“다만.”

설희는 자료 한 장을 원탁에 놓았다.

“만일 사실이라면 발생 후에 준비를 시작해서는 늦습니다.”

리화가 종이에 시선을 내렸다.

“따라서 6 월 25 일까지 한 달 동안에 한해, 기존 사업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전 조사와 준비를 인정한다.”

비비안.

“수령이?”

“네.”

“드문 일이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희 씨!?”

“사실이니까요.”

“또 사실!”

설희가 미리아를 봤다.

“그럼, 미리아 님.”

“네.”

“설명해 주십시오.”

“……”

왔다.

네 사람의 시선.

전부.

미리아에게.

(이거다.)

(단죄 이벤트에 나오는 그거.)

(악역 영애 혼자 앞에 세워지는 거.)

미리아는 안고 있던 자료를 연단에 놓았다.

그 위에.

어젯밤 노트.

《C-46　약 200》

《당장 날 수 있음　97》

《자는 놈 깨우기》

“……”

리화의 시선이.

거기에 멈췄다.

“미리아 님.”

“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이.”

리화의 손끝이.

《자는 놈 깨우기》

를 가리켰다.

“이건 무엇입니까?”

“……”

왔다.

“비행기.”

“그건 압니다.”

“자는 놈.”

“잔다고요?”

“못 나는 놈.”

“비행 불능기?”

“그래!”

“그럼 그렇게 써 주십시오.”

“메모잖아!”

“다른 사람이 읽는 자료입니다.”

“어젯밤의 나한테 말해!”

“지금의 미리아 님이 쓰신 것이지요?”

“그렇긴 한데!!”

벨이 입가를 누르고 있다.

“벨 짱.”

“네?”

“웃고 있어?”

“아니요.”

“분명 웃고 있잖아.”

“조금만.”

“정직하네!”

비비안은 노트에 시선을 둔 채 말했다.

“뜻은 알아.”

“거 봐!”

“표현은 나빠.”

“너도냐!”

리화.

“《한 달 안에 운항 가능 상태로 복귀시킬 수 있는 기체 선별》.”

“길어!”

“필요한 정보입니다.”

“메모 한 줄에 거기까지 써!?”

“써 주십시오.”

“네……”

미리아는 어깨를 늘어뜨렸다.

“설희 씨.”

“무엇입니까?”

“살려 줘.”

“저도 어젯밤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배신했다!!”

“하나 더.”

비비안의 목소리였다.

“뭐?”

손끝이.

《당장 날 수 있음　97》

로 움직인다.

“이 97 기.”

“응.”

“계열 기업, 관계 회사, 장기 관리 계약기를 포함한 약 200 기 가운데.”

“응.”

“정비 기록상 비행 가능으로 되어 있는 기체 수.”

“그렇지?”

“오늘부터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기체가 97 기 있다는 뜻은 아니야.”

“……뭐?”

미리아의 얼굴이 멈췄다.

“또 줄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왜!?”

“조종사.”

하나.

“항법사.”

둘.

“무선사.”

셋.

“정비사.”

넷.

“연료.”

다섯.

“보험.”

여섯.

“운항 허가.”

일곱.

“현재 계약.”

여덟.

“사용 가능한 비행장.”

아홉.

“……”

“기체만 날 수 있어도 화물은 못 옮겨.”

“어제 설희 씨한테도 비슷한 말 들었어……”

“현실이니까.”

“현실 너무 강한 거 아니야?”

“그리고.”

“아직 있어?”

“비행 가능이라는 기록 자체가 언제 확인된 것인지.”

“……”

“한 기씩 다시 확인해야 해.”

미리아는 노트를 봤다.

《당장 날 수 있음　97》

연필을 들었다.

《기체는 날 수 있을지도》

조금 아래에.

《일할 수 있는 수는 불명》

“……”

리화가 봤다.

“아까보다는 정확합니다.”

“칭찬받은 거야?”

“아까보다는.”

“미묘해!”

설희는 자료를 정리했다.

“그럼 이번에야말로.”

“네.”

“본론을.”

“알았다니까……”

설희가 원탁 아래의 레버를 당겼다.

위이이잉──.

“응?”

도넛 모양의 원탁.

비어 있던 중앙에서 둥근 단이 솟아올랐다.

철컹.

단 위에 펼쳐져 있는 것은 일본열도에서 중국 대륙, 한반도, 소련 극동까지 담은 거대한 동아시아 지도.

"……"

"왜 그러십니까?"

"비밀기지, 이런 부분만큼은 기대를 배신하지 않네."

"지도입니다."

미리아는 연단을 떠나 한반도 지도 쪽으로 다가갔다.

흰 장갑 낀 손가락을.

38 선 부근에 놓는다.

"6 월 25 일."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여기서."

손가락을 북에서 남으로 미끄러뜨렸다.

"대규모 전투가 시작돼."

비비안의 눈이 가늘어졌다.

"북이 움직여?"

"응."

"남쪽으로?"

"그래."

"근거는?"

"말 못 해."

"정보원을 밝힐 수 없어?"

"아저씨——수령에게 맡겨."

설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보원에 관해서는 수령께서 공개 불필요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비비안은 몇 초 침묵했다.

"알겠어."

그리고.

"계속해."

"북이 처음에는 꽤 밀어붙여."

“서울은?”

벨이 물었다.

“떨어져.”

벨의 웃음이 사라졌다.

“함락은 빨라요?”

“빨라. ……6 월 안이었던 것 같아.”

“6 월 안?”

“전쟁 시작하고 진짜 금방.”

비비안이 팔짱을 꼈다.

“미국은?”

“들어와.”

“공군과 해군?”

“그것뿐만 아니야.”

“지상군도?”

“응.”

“어디서?”

미리아는.

일본열도를 가리켰다.

“우선 여기.”

“……”

비비안의 눈이.

분명하게 변했다.

“일본의 점령군을 조선으로 투입한다고?”

“그래.”

“상당히 큰 전제네.”

“알아.”

“현재 미군은 한반도에서 주력 지상부대를 철수시킨 상태야.”

“그거 어제 들었어.”

“그걸 다시 일본에서 보낸다고?”

“보내.”

“확신해?”

“확신해.”

비비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손에 든 검은 가죽 가방을 열었다.

“?”

사진 한 장.

그리고.

얇은 보고서.

원탁 위로 밀어 보낸다.

“이게 뭐야.”

“봐.”

미리아는 사진을 집었다.

흑백.

기수에 커다란 흡기구가 뚫린 작은 제트 전투기.

“……”

본 적이 있다.

“MiG-15?”

비비안의 눈썹이 올라갔다.

“이건 아네.”

“게임에서 봤어.”

“GAME?”

“미래 문화.”

“……편리하네.”

“그렇지?”

비비안은 사진을 가리켰다.

“4 월 28 일.”

“지난달?”

“상하이 방면.”

보고서 한 장.

“소련인 조종사가 모는 MiG-15 가 국민정부군의 P-38 을 격추했다는 보고가 있어.”

“……”

미리아가 사진을 봤다.

“P-38 이면 그 쌍동체?”

“맞아.”

“미국 비행기잖아?”

“미국제.”

비비안이 정정했다.

“격추된 것은 중화민국 공군기야. 정찰형이었다는 정보도 있어.”

“아, 그쪽이구나.”

미리아는 다시 MiG-15 를 봤다.

“……벌써 실전에 나왔어?”

“나왔어.”

비비안이 다른 종이를 놓았다.

“5 월 11 일.”

“2 주 전이잖아.”

“B-24 도 한 기 잃었다는 보고가 있어.”

“MiG 한테?”

“그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는 있어.”

한 박자.

“다만 지상포화와의 공동 전과를 포함해 세부는 확인 중.”

“……”

“미리아 님.”

“왜.”

“한 달 뒤 한반도에서 대규모 전투가 일어나고.”

“응.”

“거기에 미국이 개입한다고 했지.”

“응.”

“그렇다면.”

비비안의 손가락이.

MiG-15 사진으로 내려왔다.

“하늘도 지금까지처럼 끝나지는 않아.”

“……”

미리아는 사진을 봤다.

MiG-15.

게임이라면.

그저 기체명이었다.

성능표.

속도.

무장.

선회.

상승.

화면 속.

하지만.

지금.

눈앞의 사진에 찍힌 그것은.

지난달.

실제로 사람을 격추했을지도 모른다.

“……”

“비비안 씨.”

“왜?”

“이거.”

사진을 들어 올린다.

“한반도에도 와?”

“몰라.”

“……”

“현재 시점에서는 한반도 배치를 확인하지 못했어.”

“그럼.”

“하지만 소련은 이미 중국에서 실전 투입하고 있어.”

“현재 시점에서는.”

한 박자.

“미리아 님과 똑같아.”

“어?”

“미래는 몰라.”

비비안은 사진을 되찾았다.

“그러니까 현재를 모아.”

“……”

“미래의 결과를 안다고 한다면.”

날카로운 눈이.

미리아를 본다.

“나는 오늘까지 일어난 일을 내놓을게.”

“……”

미리아는 살짝 웃었다.

“좋네.”

“뭐가?”

“역할 분담.”

비비안의 눈썹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아직……정보를 믿은 건 아니지만.”

“알아.”

“그럼.”

미리아는 지도로 돌아갔다.

흰 장갑 낀 손가락을.

일본열도 위에 올려놓았다.

“미국이 들어오면.”

한 번.

숨을 들이마신다.

“일본에 돈이 떨어져.”

## 『제 4 화  단죄 이벤트는 회의실에서』

### —3—

＊

미리아는.

흰 장갑 낀 손가락으로 일본열도를 두드렸다.

“비행기.”

하나.

“배.”

둘.

“탄약.”

셋.

“식량.”

넷.

“의료.”

다섯.

“피.”

거기서.

리화의 눈썹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피?”

“수혈용.”

“그건 압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뭐든 모자라게 돼.”

미리아는 손가락을 펼쳤다.

“어제까지 1 달러였던 게.”

“……”

“10 달러.”

한 박자.

“아니.”

씨익.

“100 달러가 될지도 몰라.”

벨이 눈을 가늘게 떴다.

“꽤 크게 부르시네요.”

“전쟁이잖아?”

미리아는 일본열도를 다시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미국이 필요하다고 하면.”

비행기.

배.

수리.

식량.

약.

혈액.

창고.

트럭.

통역.

전화.

항구.

비행장.

“전부 돈이 돼.”

그리고.

“그 1 센트도.”

흰 장갑 낀 손가락을.

일본열도 위에서 멈췄다.

“일본에는 떨어뜨리지 않아.”

“……”

네 사람이 입을 다물었다.

미리아는 가슴을 폈다.

“일본 끝장 클럽이잖아?”

한 박자.

“그럼 일본이 전쟁 덕분에 살아날 돈부터 없애는 거야.”

정적.

"……"

벨이.

먼저 웃었다.

"마음에 들어요."

"그렇지?"

"작전명 같아서."

"아는구나, 벨 짱."

리화는 웃지 않았다.

"무리입니다."

"빨라!"

"1 센트도, 라는 부분이요."

"캐치프레이즈잖아!"

"그럼 실무상 무시해도 되겠습니까?"

"거기는 조금 존중해 줘!"

"불가능한 목표를 존중해도 의미 없습니다."

"리화 씨 엄격해!"

비비안이 팔짱을 꼈다.

"그보다도."

"뭐?"

"전쟁이 시작됐다고 뭐든 100 배가 되는 건 아니야."

"알고 있어!"

"그럼 됐어."

"기세야, 기세!"

설희가 펜을 움직였다.

"《일본 측에 귀속되는 이익을 가능한 한 억제한다》."

"이제 악의 조직 느낌이 전혀 없잖아!"

"회계상으로는 이쪽으로."

"회계에 악의 미학을 기대한 내가 잘못했어!"

벨이 어깨를 떨고 있다.

"웃지 마!"

“죄송해요.”

“절대 미안하다고 생각 안 하지.”

“네.”

“너무 솔직해!”

*

“그럼.”

리화가 자료 한 장을 원탁에 놓았다.

“생산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네.”

“우선.”

가느다란 손가락이 세계지도의 남쪽으로 움직인다.

“현재 사업은 멈추지 않습니다.”

“응.”

“인도.”

하나.

“필리핀.”

둘.

“인도차이나.”

셋.

“말라야 방면.”

넷.

“기존 계약이 있습니다.”

“어제 들었어.”

“공장도.”

“응.”

“인력도.”

“응.”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리화는 미리아를 봤다.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알아.”

“정말로?”

“어제보다는.”

“어제보다는.”

“그거 반복 안 해도 돼!”

리화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했다.

“다만.”

“응.”

“신규 확장은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미리아의 시선이 올라갔다.

“그거.”

“추가 설비.”

“응.”

“추가 인력.”

“응.”

“신규 계약.”

“응.”

“6 월 25 일까지 필요에 따라 보류.”

“그걸로 좋아.”

“우선 기존 설비와 인력을 전수 조사하겠습니다.”

“전수 조사.”

“어디에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

“응.”

“무엇으로 전용할 수 있는지.”

“응.”

“추가 자금을 쓰지 않고 어디까지 준비할 수 있는지.”

“그거 조사해 줘.”

“공장에는 여력을 남기겠습니다.”

“응.”

“기존 생산 설비도 단기간에 무엇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식량 같은 거?”

“식량.”

“위생용품.”

“네.”

“기계 부품.”

“네.”

“수리.”

“네.”

“M20.”

순간.

리화의 시선이 비비안에게 향했다.

비비안이 대답했다.

“소량 생산 설비는 유지할게.”

“증산은?”

미리아가 물었다.

“아직.”

“그래도 필요해.”

“당신 정보가 맞다면.”

“맞아.”

“그럼 6 월 25 일에 판단해.”

“한 달 뒤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늦지 않아?”

리화가 대답했다.

“그러니까.”

손끝이 자료 위로 내려온다.

“생산 설비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

“필요한 자재.”

“응.”

“인력.”

“응.”

“공정.”

“응.”

“지금부터 전부 대량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박자.

“필요해졌을 때 곧바로 늘릴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둡니다.”

미리아는 잠시 생각했다.

“……그렇구나.”

“빗나간 경우에도.”

“?”

“다른 시장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은 돌립니다.”

“인도차이나?”

“예를 들면.”

“팔려?”

“팔리는 것만 만듭니다.”

“강하네.”

“장사니까요.”

미리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비행기.”

리화.

“비비안.”

“어?”

비비안이 이쪽을 본다.

“항공기는 나.”

“아, 그쪽이구나.”

“리화는 공장.”

“분업 세세하네!”

“그래서 간부가 네 명인 겁니다.”

설희가 말했다.

“나까지 넣으면 다섯이잖아.”

“미리아 님은 간부가 아닙니다.”

“그럼 난 뭐야!?”

설희가 잠시 생각했다.

“수령의 영애.”

“직함 약해!”

*

비비안이 C-46 자료를 끌어당겼다.

“항공기에 대해서.”

“네.”

“살 수 있는 만큼 산다는 안은 기각.”

“아직 말도 안 했어!”

“얼굴에 쓰여 있었어.”

“설희 씨 같은 말 하기 시작했잖아!”

“전 세계에서 갑자기 수송기를 사들이기 시작하면.”

비비안은 손가락 하나를 세웠다.

“가격이 올라.”

둘.

“눈에 띄어.”

셋.

“이유를 캐묻게 돼.”

“……”

“그러니까.”

자료를 넘긴다.

“구매 후보.”

하나.

“장기 임차 후보.”

둘.

“계열회사로 이관할 수 있는 기체.”

셋.

“관리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기체.”

넷.

“이미 NOC가 관여하고 있는 기체부터 우선 추려.”

“조용히 늘릴 수 있는 걸 찾는 거야?”

“맞아.”

“악의 조직 같네.”

“칭찬한 건 아니야.”

“나는 칭찬한 건데.”

비비안은 무시했다.

“다만 지금 당장 구매 계약은 맺지 않아.”

“안 사?”

“전수 조사와 채산성을 확인한 뒤.”

“한 달밖에 없는데.”

“그래서 후보부터 먼저 줄여.”

“……”

“필요해지는 순간 계약할 수 있는 상태까지 준비해 둬.”

“가계약?”

“상대에게 조건은 내게 해. 다만 NOC에서 자금은 아직 안 내.”

“나쁘네.”

“장사야.”

미리아는 조금 웃었다.

“벨 짱도 똑같이 말할 것 같아.”

“그게 칭찬이야?”

“아마.”

비비안은 자료로 돌아갔다.

“정비 중이나 보관 중인 기체도 한 기씩 상태를 확인해.”

“깨워?”

“우선 깨울 수 있는지부터 조사해.”

“거기서부터?”

“추가 비용 없이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유지.”

“응.”

“부품, 인력, 추가 정비가 필요한 기체는 필요액을 산출.”

“응.”

“복귀시킬지 여부는 그다음.”

“전부 깨우면 안 돼?”

“빗나갔을 때 누가 비용을 내?”

“……아저씨.”

“수령의 예산에도 한도가 있어.”

“악의 조직, 꿈이 없네!”

“항공기는 꿈으로 안 날아.”

“연료로 날아?”

“연료와 돈으로.”

“더 꿈 없잖아!”

“그리고.”

“뭐?”

“비행 가능 상태가 돼도 필요 없으면 안 띄워.”

“재워 둬?”

리화가 본다.

“표현.”

“이제 됐잖아!”

비비안은 조금 웃었다.

“이번에는 뜻은 맞아.”

“거 봐!”

“하지만 보관기.”

“네……”

미리아는 노트에 썼다.

《보관기》

그 옆에 작게.

《재우기》

리화가 봤다.

“보입니다.”

“시끄러워!”

비비안은 세계지도에 손을 뻗었다.

“그리고.”

“뭐?”

“새로운 수송 경로 후보.”

미리아가 고개를 들었다.

“필요해?”

“필요해질 가능성이 높아.”

“조선까지?”

“한반도만이 아니야.”

일본.

필리핀.

괌.

오키나와.

동남아시아.

태평양.

“미군이 어디서 무엇을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라져.”

“……”

“항공로.”

“응.”

“해로.”

“응.”

“중계지.”

“응.”

“연료.”

“응.”

“정비.”

“응.”

“창고.”

“응.”

“인력.”

“응.”

“전부 한 달 안에 확인해.”

“계약도?”

“후보와 조건까지.”

“실제로 쓰는 건?”

“필요해진 다음.”

“많지 않아?”

“당신이 시작한 이야기잖아.”

“네.”

*

“그럼 다음은 저네요.”

벨이 한 손을 들었다.

“벨 짱.”

“네.”

“뭐 할 건데?”

“겉.”

“겉?”

“NOC 의 겉모습이요.”

벨은 웃었다.

“식품.”

하나.

“수송.”

둘.

“창고.”

셋.

“위생용품.”

넷.

“해외 상사.”

다섯.

“겉으로 평범한 회사로 움직이는 사업은 그대로 씁니다.”

“쓴다고?”

“네. 식품회사는 식품회사로. 운송회사는 운송회사로. 전쟁을 위해 만든 회사처럼 보이지 않게요.”

“안 들켜?”

“뭐가요?”

“전쟁을 기다린다는 거.”

“전쟁이 아니어도 팔리는 물건이라면.”

한 박자.

“아무도 곤란하지 않아요.”

“……”

미리아는 조금 감탄했다.

“벨 짱 똑똑하네.”

“알고 있어요.”

“자기가 말하네.”

“그리고.”

“뭐?”

벨의 손가락이.

지도 밖으로 빠졌다.

“자산가.”

“부자?”

“네.”

“뭐 하는데?”

“후보를 모아요.”

“무슨 후보?”

“항공기.”

하나.

“배.”

둘.

“창고.”

셋.

“공장.”

넷.

“전부 NOC 가 직접 가질 필요는 없어요.”

“……”

“빌려 주고 싶은 사람.”

“팔고 싶은 사람.”

“투자하고 싶은 사람.”

“돈 벌고 싶은 사람.”

“……”

“그런 사람에게 먼저 접촉해요.”

미리아는 눈을 가늘게 떴다.

“도박에 끌어들이는 거야?”

“아직 안 끌어들여요.”

“안 해?”

“상대가 뭘 가지고 있는지.”

“응.”

“얼마를 원하는지.”

“응.”

“얼마나 빨리 움직일 수 있는지.”

“응.”

“그것만 먼저 알아내요.”

“계약은?”

“아직.”

“빗나가면?”

“아무것도 사지 않았어요.”

“강하다.”

“맞으면?”

“상대가 생각하는 동안 우리는 조건을 알고 있죠.”

“나쁜 얼굴 하고 있어.”

“칭찬이네요.”

“칭찬이야.”

벨은 즐거운 듯 계속했다.

“그리고 아시아권 정보.”

웃음이 조금 사라졌다.

“정치.”

“응.”

“항구.”

“응.”

“상사.”

“응.”

“노동자.”

“응.”

“현지 분위기.”

“……”

“군이 움직인다고 물건도 저절로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비비안 씨랑 똑같은 말 하네.”

“군인만 보고 있으면 장사를 놓쳐요.”

벨이 지도를 가리켰다.

“누가 곤란한지.”

“응.”

“누가 사고 싶어 하는지.”

“응.”

“누가 돈을 가지고 있는지.”

“응.”

“누가 항구를 움직이고 있는지.”

“……”

“그 부분은 제가 주울게요.”

“든든하네.”

“그렇죠?”

*

“나도 하나 더.”

비비안이 다시 입을 열었다.

“소련.”

한마디.

미리아의 얼굴이 변한다.

“MiG-15?”

“그것뿐만 아니야.”

“응.”

“중국.”

“응.”

“극동의 항공부대.”

“응.”

“미군.”

“응.”

“일본 주둔 지상군.”

“응.”

“극동공군.”

“응.”

“해군.”

“응.”

“그리고.”

한 박자.

“본국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부대.”

“해병대?”

“포함.”

“……”

“당신의 예측이 맞다면.”

비비안은 일본에서 한반도로 손가락을 움직였다.

“미군은 짧은 기간에 꽤 많은 걸 필요로 하게 돼.”

“맞아.”

“그러니까.”

“?”

“무엇이 부족해질지 먼저 읽어.”

“탄약?”

“그것도.”

“수송기.”

“그것도.”

“트럭.”

“그것도.”

“의료.”

“그것도.”

“전부잖아.”

“전쟁이니까.”

미리아가 입을 다물었다.

비비안은 계속했다.

“다만.”

“뭐?”

“NOC 가 전부 만들 필요는 없어.”

“어?”

“만들 수 있는 나라에서 만들어.”

“……”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사.”

“응.”

“남는 곳에서 움직여.”

“응.”

“그걸.”

손가락이 일본을 피해 간다.

“가능한 한 일본 이외에서 완결시켜.”

미리아의 눈이 빛났다.

“그거야!”

“하지만.”

설희의 목소리.

“완전하게는 불가능합니다.”

“……”

미리아의 눈이 죽었다.

“또 뭐가 있는데?”

“국내에 관해서입니다.”

*

설희가 장부 한 권을 열었다.

“미리아 님.”

“네.”

“아까.”

“응.”

“1 센트도 일본에 떨어뜨리지 않겠다고.”

“말했어.”

“그럼.”

설희는 담담하게 계속했다.

“일본 국내의 항만 하역업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

“국내 창고도 사용하지 않는다.”

“……”

“국내 운송회사도.”

“……”

“수리공장도.”

“……”

“은행도.”

“……”

“보험 관계도.”

“……”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미리아는 입을 다물었다.

"……"

네 사람이 본다.

"……무리?"

"무리입니다."

"즉답!"

"일본을 거점으로 삼으면서 일본 국내 사업자에게 일절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본에 돈 떨어뜨리면 의미 없잖아!"

"규모의 문제입니다."

"규모?"

"일본 기업을."

설희가 손가락 하나를 세웠다.

"주계약자로 만들지 않는다."

"……"

"큰 이익을 축적시키지 않는다."

둘.

"필요한 국내 사업자는 제한적인 하청계약에 그친다."

셋.

"계약의 주체."

넷.

"이익."

다섯.

"해외 자산."

마지막으로.

"그것들을 NOC 측에 남긴다."

"……"

미리아는 잠시 생각했다.

"일본 기업에 1 엔도 안 준다는 게 아니고."

"네."

"일본 기업을 전쟁 특수의 주인공으로 안 만든다."

"그 편이 현실적입니다."

"……"

분하다.

"얼굴에 나타납니다."

"분하거든!"

"현실입니다."

"또 현실!!"

리화가 말했다.

"국내 공장도 필요합니다."

"윽."

비비안.

"항구도."

"윽."

벨.

"사람도."

"윽."

설희.

"은행도."

"그거다!"

미리아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은행."

네 사람이 본다.

"키라 님."

침묵.

벨이 눈을 깜빡였다.

"누구예요?"

"약혼자."

"……"

한 박자.

"회의 중에 애정 자랑이에요?"

"아니야!!"

“그럼?”

“타카츠카사 은행!”

설희의 눈이 조금 변했다.

“그렇군요.”

“쓸 수 있어?”

“이미 NOC와 거래 실적이 있습니다.”

“거 봐!”

“다만.”

“뭐.”

“타카츠카사 은행도 일본 기업입니다.”

“……”

미리아가 멈췄다.

“……”

벨이 입가를 눌렀다.

“웃지 마!”

“아직 안 웃었어요.”

“이제 웃을 얼굴이잖아!”

설희가 계속했다.

“사용한다면.”

“응.”

“일본 측에 남는 이익을 필요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계약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거 설희 씨 담당이지.”

“네.”

“그럼 부탁해.”

“알겠습니다.”

“……”

너무 빠르다.

미리아는 조금 김이 빠졌다.

“어, 진짜?”

“제 담당이니까요.”

“멋있네.”

“감사합니다.”

“모에모에 큐——”

설희의 눈이.

미리아를 봤다.

“……”

미리아는 입을 다물었다.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벨이 고개를 갸웃했다.

“방금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설희만.

아주 조금.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다.

(위험했다.)

(비밀이었지.)

*

설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류를 정리했다.

“그럼.”

종이 한 장을.

중앙에.

“담당을 정리하겠습니다.”

리화를 본다.

“린 리화.”

“네.”

“기존 생산 유지. 신규 확장 재심사. 공장, 정비, 보수, 생산 여력 전수 조사.”

“알겠습니다.”

벨.

“Isabel de la Cruz.”

“네.”

“표면 사업. 해외 자산가. 인력. 상사. 의료 관계. 아시아권 현지 정보.”

“알겠습니다.”

“신규 출자와 매매계약은 조건 확인까지. 체결은 보류합니다.”

“그렇게 하죠.”

비비안.

“Vivian Blackwood.”

“응.”

“항공, 해운, 군수 수요. 소련, 중국, 미군의 동향. 수송 자산과 경로 평가.”

“알겠어.”

“신규 취득과 장기계약은 전수 조사 후 재승인.”

“이의 없어.”

그리고.

설희 자신.

“저는.”

펜을 내려놓았다.

“예산.”

하나.

“계약.”

둘.

“법무.”

셋.

“은행.”

넷.

“보험.”

다섯.

“항공, 해운, 창고를 포함한 각 계약의 총괄.”

“전부?”

미리아가 물었다.

“전부입니다.”

“설희 씨 안 죽어?”

“미리아 님께서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나 어제 하룻밤 만에 죽을 뻔했거든.”

“미리아 님과는 다르니까요.”

“찌르지 마!!”

리화가 입가를 눌렀다.

벨은 대놓고 웃고 있다.

비비안까지 살짝 웃었다.

“웃지 마!”

“실례.”

설희만 무표정이었다.

“그럼.”

미리아가 물었다.

“나는?”

네 사람이.

일제히.

미리아를 봤다.

“……”

“뭐?”

설희가 대답했다.

“6 월 25 일 이후에 관해 미리아 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것을 가능한 한 정리해 주십시오.”

“기억하고 있는 거?”

“전황.”

하나.

“미군의 움직임.”

둘.

“일본에서 움직인 부대.”

셋.

“부족했던 물자.”

넷.

“전세가 변한 시기.”

다섯.

“날짜 순으로.”

“……”

“확실히 기억하시는 것과 애매한 것은 구분해 주십시오.”

“전부 가물가물하면?”

“그대로 적어 주십시오.”

“미래인의 신용 없어지지 않아?”

“잘못된 정보를 확실한 정보로 취급하는 편이 위험합니다.”

“……”

미리아는 잠시 침묵했다.

“알겠어.”

“그리고.”

“아직 있어?”

“공부를.”

“아직도 있어!?”

“있습니다.”

“뭘!?”

“우선.”

설희가.

새로운 서류 묶음을 꺼냈다.

“국내 기업과의 계약에 관해서.”

“……”

두껍다.

“몇 페이지?”

“아직 세지 않았습니다.”

“설희 씨.”

“네.”

“오늘 아침 일, 떠올려도 돼?”

“비밀로 해 주신다고 하셨지요.”

“……네.”

“그럼.”

서류가.

미리아 앞에 놓였다.

툭, 묵직하게.

맨 위 표지에는.

《타카츠카사 은행》

《기존 융자·해외 결제 계약》

“……”

“이쪽부터 부탁드립니다.”

“키라 님네잖아.”

“놀이가 아닙니다.”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어!”

“얼굴에 쓰여 있습니다.”

“……”

미리아는.

두꺼운 서류 더미를 봤다.

그 너머.

한반도.

일본.

미국.

비행기.

배.

공장.

은행.

사람.

계약.

전쟁까지.

앞으로 29 일.

“……”

(단죄 이벤트라는 건.)

(좀 더 이렇게.)

(화려하게 논파하고――)

(사이다를 먹이는 거 아니야……?)

현실은.

계약서 더미였다.

*

# 『1950 년, 악역 영애는 일본을 멸망시키고 싶다』

—전생했더니 이세계가 아니라 6·25 전쟁 직전의 일본이었다—

## 제 5 화  일본을 멸망시킬 돈은 일본 은행에서

*

"……오늘 도대체 몇 번을 갈아입는 거야."

거울 속에서.

미리아는 죽은 눈을 하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 어깨에서 늘어져 있던 금빛 장식끈도.

견장도.

금단추가 달린 짧은 재킷도.

전부 사라졌다.

대신 입고 있는 건 흰 블라우스.

남색 승마 바지.

가느다란 가죽 벨트.

발에는 검은 승마 부츠.

아침까지 입고 있던 차림과 거의 같았다.

뒤에서는 시녀가 미리아의 긴 검은 머리를 묶고 있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까 예쁘게 풀어 놓은 참이잖아?"

"네."

"또 묶어?"

"네."

"아까 그 시간은 뭐였는데."

"회의용이었습니다."

"옷에도 회의용 같은 게 있구나……"

있는 모양이다.

열아홉 살의 자신.

무섭다.

게다가.

이 차림으로 돌아온 이유는――.

*

조금 전.

“그럼, 미리아 님.”

간부회의가 끝난 직후.

설희는 미리아를 실컷 괴롭힌 계약서 뭉치를 팔에 안고 있었다.

“오후에는 타카츠카사 은행으로 가시겠습니다.”

“……”

“미리아 님?”

“오늘?”

“네.”

“오늘!?”

“네.”

“어제 갔잖아!”

“어제는 어제입니다.”

“어제 키라 님이랑 만난 데잖아!?”

“알고 있습니다.”

“푸딩까지 먹었는데!?”

“오늘은 업무입니다.”

“전환 빠르네!”

어제.

은행에서 재회――정확히 말하면 미리아에게는 첫 대면이었던 약혼자.

타카츠카사 히카루.

그대로 긴자로 끌려가.

푸딩을 먹고.

비가 내리고.

재킷까지 머리 위에 씌워 받았다.

그리고 오늘.

비행기.

배.

창고.

은행 보증.

계약.

전쟁.

(연애 이벤트, 하루밖에 못 갔잖아……)

“타카츠카사 은행은 NOC 와 거래 실적이 있습니다.”

“그건 아까 들었어.”

“오늘 서류 접수는 세 시까지입니다.”

“세 시?”

“네.”

“회의 끝났더니 이번에는 시간 제한이냐……”

미리아는 어깨를 축 늘어뜨렸다.

“차를 준비하겠습니다.”

“필요 없어.”

설희가 멈췄다.

“……네?”

“차 필요 없어.”

“그러면 어떻게 가시려고요?”

미리아는.

씨익.

“Indian.”

“……”

“어제 차고에 있던 거.”

“설마.”

“탈 거야.”

“그만두십시오.”

“즉답하지 마!!”

“미리아 님은.”

설희는 담담했다.

“오토바이를 한 번도 타신 적이 없습니다만.”

“눈뜨기 전의 나는 그렇지!”

“네?”

“이쪽 나는 바이크 타는 사람이야!”

“이쪽?”

“거긴 줍지 마!”

설희는 몇 초 동안 미리아를 바라보았다.

“이륜자동차를?”

“탈 수 있어.”

“정말로요?”

“탄다니까!”

“……”

“뭐야, 그 의심하는 눈!”

“혹시 모르니 차량 담당자를 부르겠습니다.”

“신뢰 제로잖아!”

“안전 확인입니다.”

“감시잖아!”

“안전 확인입니다.”

두 번 들었다.

*

“——네. 다 됐습니다.”

현재.

시녀의 손이 떨어졌다.

미리아는 거울을 보았다.

검은 머리는 뒤로 묶이고.

흰 블라우스.

남색 승마 바지.

검은 부츠.

조금 전까지 금빛 장식이 주렁주렁 달린 모습과 비교하면 훨씬 가벼워 보였다.

“……”

허리를 비틀어 본다.

쪼그려 앉는다.

일어난다.

다시 한 번 쪼그려 앉는다.

“아가씨?”

“움직여져.”

“네.”

“엄청 잘 움직여져.”

“승마복이니까요.”

“최고잖아.”

치마가 아니다.

자락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다리를 벌려 올라탈 수 있다.

쪼그려 앉을 수 있다.

뛸 수 있다.

열아홉 살의 자신.

옷 취향은 묘하지만.

이것만큼은 칭찬해 주고 싶다.

“은행에 가시는 차림으로는 조금……”

시녀가 말하기 곤란한 듯 입을 열었다.

“괜찮아.”

“하지만.”

“오늘은 말보다 빠른 거 탈 거니까.”

“말보다요?”

“아무것도 아냐.”

미리아는 가죽장갑을 집어 들었다.

그 옆.

승마모에도 손을 뻗었다가――.

“……”

멈췄다.

“아가씨?”

“이건 아니네.”

“네?”

“머리 지켜 주는 거, 차고에 있지?”

“머리를요?”

“다녀올게!”

*

저택 뒤편.

차고에 가까워질수록.

냄새가 달라졌다.

흙.

나무.

거기에 섞여.

기름.

금속.

휘발유.

“……이거지, 이거.”

미리아의 걸음이 빨라진다.

“미리아 님.”

“안다니까!”

무엇을 안다는 건지는 자신도 몰랐다.

커다란 문 너머.

검은 Packard.

몇 대의 승용차.

트럭.

그리고 구석에.

있었다.

“……”

Indian Chief.

짙은 붉은색.

커다란 펜더.

낮은 차체.

굵은 타이어.

현대의 Indian 과는 다르다.

하지만.

틀림없는 Indian 이었다.

“오오……”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다.

“어제도 보셨잖습니까.”

“보는 거랑 타는 건 다르지.”

미리아는 가까이 다가갔다.

그때.

찰칵.

금속음.

“응?”

Indian 반대편.

누군가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공구가 바닥에 놓인다.

“카타야마 씨.”

설희가 불렀다.

“네.”

남자가 일어섰다.

“……”

스물 중반쯤.

키는 미리아보다 훨씬 컸다.

입고 있는 건 낯선 얇은 비행복.

빛이 바랜 카키색으로, 미군 방출품인 듯했다.

앞을 여미는 원피스형.

소매는 팔꿈치까지 걷어 올렸다.

손끝에는 검은 기름때.

뺨에도 작은 얼룩.

지나치게 다듬지 않은 머리.

그리고.

(……)

얼굴.

(또 잘생겼잖아.)

미리아는 눈썹을 찌푸렸다.

(이 조직.)

(진짜 얼굴 보고 뽑는 거 아냐?)

“소개하겠습니다.”

설희가 말했다.

“차량 관계 부주임, 카타야마 스스무 씨입니다.”

“카타야마입니다.”

꾸벅.

그냥 평범하게 고개를 숙였다.

악수도 아니고.

우아한 인사도 아니다.

그저 인사.

“키신 미리아.”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

“수령님의 따님이니까요.”

“소개가 너무 대충이잖아!”

카타야마 스스무는 살짝 고개를 갸웃했다.

“그런가요?”

“어제 만난 키라 님이랑 차이가 너무 심하거든.”

“키라?”

“신경 쓰지 마.”

설희가 덧붙였다.

“카타야마 씨는 이전에 육군에서 차량과 항공기 정비에 종사했습니다.”

“오.”

“현재는 NOC 에서 차량 관계 부주임을——”

“설희 씨.”

“네.”

“여기 잘생긴 사람만 뽑는 거 아니지?”

“능력입니다.”

“또 그거!”

카타야마가 자기 자신을 가리켰다.

“저도 포함입니까?”

“묻지 마!”

“무슨 얘기죠?”

“잊어!”

스스무는 잘 모르겠다는 얼굴로.

“네.”

하고 대답했다.

그대로 Indian 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래서.”

“응.”

“이걸 타신다고요?”

“탈 거야.”

“누가요.”

“내가.”

“……”

“뭐야, 그 뜸은!”

스스무는 미리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승마 바지.

부츠.

다시.

Indian.

“말 타던 분이?”

“설희 씨한테 들었어!?”

“들었습니다.”

“정보 도는 거 엄청 빠르네, 이 조직!”

“차량을 타신다길래.”

“탈 줄 안다니까.”

“오토바이를?”

“탈 수 있어.”

“이걸?”

“탈 수 있다니까!”

“조작법은 압니까?”

“……”

스스무가 미리아를 본다.

“면허는?”

“……”

미리아는 설희를 보았다.

“가지고 계십니다.”

“있어!?”

“작년에 보통자동차면허와 자동이륜차면허를 취득하셨습니다.”

스스무가 끼어들었다.

“면허가 있는 것과 탈 수 있는 건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Indian 타 봤다니까!”

“……네?”

“아니.”

미리아는 붉은 Chief 를 가리켰다.

“이 Indian 은 몰라!”

“뭐가 다른데요?”

“내 애는 이런 조작 아니라고!”

“내 애요?”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이는데요?”

“그래도 Indian 은 알아!”

“Indian 인 건 보면 압니다.”

“짜증 나네, 이 사람!”

*

미리아는 Indian 의 왼쪽으로 돌았다.

핸들을 잡는다.

조금 일으킨다.

“……어?”

“왜 그러십니까?”

“가벼워.”

스스무가 멈췄다.

“가볍다고요?”

“아니.”

미리아는 차체를 받치면서 고개를 갸웃했다.

“생각보다.”

“이걸 가볍다고 하는 사람은 처음 봅니다.”

“내 건 더 무거우니까.”

“뭘 타셨는데요?”

“……”

아차.

“말.”

“말이요?”

“말.”

“말하고 무게를 비교합니까?”

“세세한 남자네!”

“정비사니까요.”

“그 답변 편하네!”

미리아는 올라탔다.

양발을 땅에 댄다.

나쁘지 않다.

오히려.

"……좋은데."

몸이 묘하게 자연스러웠다.

말을 타던 열아홉 살의 몸.

이륜차를 타던 스물아홉 살의 머리.

이상한 부분에서 맞물리고 있었다.

"그럼."

오른손을 쥔다.

"우선——"

"아닙니다."

"빨라!"

"아직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요?"

"스로틀을——"

"왼쪽입니다."

"……"

"스로틀은."

스스무가 왼쪽 그립을 가리켰다.

"왼쪽."

"……뭐?"

"왼쪽입니다."

미리아는 왼손을 본다.

오른손을 본다.

다시.

왼쪽.

"왜?"

"왜냐고 하셔도."

"액셀은 오른쪽 아니야?"

"이건 왼쪽입니다."

"Indian, 배신했네?"

"누구를요?"

"나를!"

스스무가 말이 없어진다.

“다음.”

“또 있어?”

“변속.”

“네.”

스스무가.

탱크 오른쪽을 가리켰다.

“여기.”

레버.

“……”

“오른손으로 조작합니다.”

“손?”

“네.”

“시프트를?”

“네.”

“……”

미리아는.

이번에는 왼발을 본다.

“클러치는?”

“왼발.”

“역시 발이야!?”

“여기.”

로커식 페달.

“밟아서 조작합니다.”

“잠깐잠깐잠깐.”

“네.”

“오른손, 앞브레이크.”

“네.”

“오른발.”

“뒷바퀴 브레이크.”

“왼손.”

“스로틀.”

“왼발.”

“클러치.”

“오른손으로 하나 더.”

“변속.”

“네.”

“……”

미리아는 두 손과 두 발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또 있어!?”

스스무가 오른쪽 그립에 손을 얹었다.

“이쪽은 점화시기 조정.”

“……”

“미리아 씨?”

“쇼와 25 년.”

“네.”

“조작 담당자가 너무 많잖아!!”

“저한테 말씀하셔도.”

“조작계 정할 때.”

“네.”

“회의 제대로 했어?”

“했겠죠?”

“분명 싸웠잖아!!”

스스무의 입가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타는 거, 그만두실래요?”

“탈 거야!”

“……”

“여기서 물러나면 지는 거야!”

“뭐한테요?”

“쇼와 25 년한테!”

“……?”

“신경 쓰지 마!”

*

“빨리 달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알고 있어.”

미리아는 차고 선반에 있던 보호모를 집어 들었다.

가죽으로 감싼 모체.

그리고.

고글.

쓰고.

턱끈을 조였다.

스스무가 보고 있었다.

“그것까지 쓰십니까?”

“머리 하나밖에 없으니까 쓰지.”

“넘어질 생각으로?”

“안 넘어지려고 쓰는 거야! 넘어졌을 때 안 죽으려고 쓰는 거기도 하고!”

“……특이하시네요.”

(미래였으면 안 쓰는 쪽이 혼난다고.)

미리아는 고글을 고쳐 썼다.

“내 기준에선 평범해!”

“그렇습니까.”

“흘려듣지 마!”

“그리고 모르겠으면 멈추세요.”

“알고 있어.”

“정말로요?”

“왜 설희 씨랑 똑같은 표정인데!”

조금 떨어진 곳에서.

설희가 무표정으로 서 있었다.

“저는 아무것도.”

“얼굴이 말하고 있잖아!”

스스무가 발밑을 가리켰다.

“왼발.”

“네.”

“클러치.”

“네.”

“서두르지 말고.”

“안다니까.”

“아는 분은.”

한 박자.

“오른손으로 스로틀을 찾지 않습니다. 부수시면 제가 고쳐야 하니까요.”

“타기도 전에 부술 거라고 전제하지 마!”

“부주임으로서는 중요합니다.”

“직함을 방패로 쓰지 마!”

미리아는 볼을 부풀리고.

다시 한 번.

Indian 을 본다.

“……”

왼손.

오른손.

왼발.

오른발.

머릿속에 늘어놓는다.

자기가 알던 바이크는 아니다.

하지만.

엔진이 있다.

타이어가 두 개 있다.

핸들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Indian 이다.

"……좋아."

미리아는 고개를 들었다.

"스스무 씨."

"네."

"움직일 거야."

"카타야마라고 하셔도 됩니다."

"스스무 씨가 부르기 편해."

"이제 됐습니다."

"가르쳐 줘."

스스무는 잠깐.

미리아를 보았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Indian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럼 처음부터."

"응."

"하나씩 갑니다."

"부탁해."

조금 전까지.

6·25 전쟁.

MiG-15.

C-46.

M20.

신용장.

은행 보증.

계약서.

그런 것들에 파묻혀 있던 머리가.

조금.

가벼워졌다.

미리아는.

붉은 Indian Chief 의 핸들을 잡았다.

“타카츠카사 은행, 세 시까지지?”

“그건 저한테 말씀하셔도.”

“빨리 배워야 돼.”

“그러니까.”

스스무가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시간 없다니까!”

“은행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세 시 되면 도망가!”

“……그건 그렇네요.”

“거봐!”

“그래도 넘어지면 더 늦습니다.”

“정론만 말하네!”

“정비사니까요.”

“또 그거!”

“시동은 제가 맞춰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달라?”

“거기까지 다릅니다.”

“쇼와아……”

스스무가 차체 옆에서 몇 가지 조작을 끝냈다.

“지금입니다.”

“OK!”

미리아는 킥스타터에 발을 올렸다.

밟아 내린다.

둑.

“……”

한 번.

엔진이 기침하듯 울었다.

“한 번 더.”

"네!"

미리아는 다시.

밟았다.

두둑──.

두두두두두두…….

"……!"

차고 안 공기가 떨렸다.

바닥을.

부츠를.

몸속을.

낮은 진동이 두드린다.

미리아의 입가가.

저절로 올라갔다.

"……이거야."

"?"

붉은 탱크로.

미리아는 시선을 내렸다.

"Indian 이야."

스스무가.

조금 웃었다.

"그럼 다음은 움직입니다."

"오우."

타카츠카사 은행 마감까지.

앞으로──.

"몇 분!?"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라고요!"

*

저택 부지를 몇 번이나 왕복했다.

출발.

정지.

다시 출발.

그 사이에 시동이 두 번 꺼졌다.

미리아는 겨우 차고 앞으로 돌아왔다.

"……멈췄다."

"네."

"방금 건 내가 멈춘 거야."

"보고 있었습니다."

"아까 거랑은 다르니까."

"알고 있습니다."

스스무는 차체 주위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미리아가 엔진을 끈다.

진동이 사라진 순간.

팔과 어깨에 얼마나 힘이 들어가 있었는지가 한꺼번에 느껴졌다.

"……피곤해."

"힘이 너무 들어가 있습니다."

"조작할 때마다 생각해야 하잖아."

"익숙해질 때까지는 그렇습니다."

"왼쪽이 액셀."

"네."

"왼발이 클러치."

"네."

"……이제 머릿속으로 외우면서 달릴래."

"그러시면 됩니다."

스스무가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출발해도 되는 모양이다.

"아가씨."

그때였다.

저택 쪽에서 시녀가 걸어왔다.

양손에.

꾸러미 하나.

“이것도 가져가 주십시오.”

“……뭐야?”

“키라 님의 재킷입니다.”

“……”

미리아는 꾸러미를 보았다.

얇은 종이에 싸여 정성스럽게 모양을 잡아 놓은 형태.

“손질이 끝났습니다. 돌려드려 주십시오.”

“아아……”

그랬다.

어제.

비 속에서.

자기 머리 위로 살며시 덮어 준 재킷.

그대로 빌려 입고 돌아왔던 것이다.

“깨끗하게 해 준 거야?”

“네.”

“고마워.”

받아 든다.

가볍다.

계약서 뭉치보다 훨씬.

그런데도.

(어제는 푸딩.)

(오늘은 재킷 돌려주기.)

(평범하게 또 만날 일이 생겼잖아……)

게다가.

비 속에서 재킷을 빌려준 상대다.

자기는 그걸 깨끗이 해서 돌려준다.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다.

너무나 평범했다.

(대체 어디서 사이다 복수하라는 거냐, 이거.)

“아가씨?”

“아무것도 아냐.”

미리아는 꾸러미를 안은 채 Indian 을 보았다.

핸들.

오른쪽 변속 레버.

다시.

꾸러미.

“……이거 들고 타?”

“제가 맡겠습니다.”

옆에서 설희의 손이 뻗어 왔다.

“제 차로 운반하겠습니다.”

“살았다.”

“은행에 도착하면 드리겠습니다.”

“부탁해.”

설희는 계약서 가방과 재킷 꾸러미를 들고 검은 Packard 로 향했다.

운전기사가 뒷좌석 문을 열었다.

“저는 뒤에서 따라가겠습니다.”

“호송이잖아.”

“동행입니다.”

“말만 바꾼 거잖아.”

“그럼 혼자 서류를 설명하시겠습니까?”

“동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즉답했다.

그것만은 곤란하다.

바이크 조작은 배울 수 있어도.

신용장과 은행 보증을 혼자 상대하는 건 무리였다.

스스무가 다시 시동 준비를 맞춘다.

미리아는 가죽장갑을 고쳐 끼고.

턱끈을 확인하고.

고글을 내렸다.

붉은 Chief 가 다시 낮게 떨렸다.

“스스무 씨.”

“네.”

“다녀올게.”

“조심해서 다녀오십시오.”

“돌아오면 제대로 탔다고 말해 줄 거니까.”

“차체를 보면 압니다.”

“끝까지 못 믿네!”

스스무의 입가가 조금 풀렸다.

미리아는 앞을 보았다.

왼발.

왼손.

천천히.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다.

*

문을 나섰다.

저택 부지가 뒤로 흘러간다.

그 너머에는.

쇼와 25 년의 길이 있었다.

자전거.

손수레.

짐을 실은 트럭.

가게 앞에서 길로 나오는 사람.

이어 붙인 포장을 지날 때마다 차체가 작게 흔들렸다.

(……노면 잘 봐야겠다.)

출발 전에 들은 길을 머릿속으로 되풀이한다.

지도를 띄워 주는 화면도.

어디서 꺾으라고 알려 주는 목소리도.

없다.

기댈 수 있는 건 자신의 눈과.

조금 떨어져 따라오는 검은 Packard 뿐이었다.

오른손을 탱크 옆 레버로 옮길 때마다 아직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하지만.

차고를 나올 때보다는 감이 잡히기 시작했다.

왼손을 움직이면.

엔진 소리가 달라진다.

발밑으로.

길이 흘러간다.

차고에서는 그저 소리였다.

지금은 그 소리가 자신을 데려가고 있었다.

"……"

입가가 저절로 올라간다.

바람이 닿는다.

블라우스 소매가 부풀었다.

막 다시 지은 듯한 가게 옆에는 건물 한 채가 들어갈 만큼 빈 땅이 있었다.

그 앞에서는 남자가 손수레에서 나무 상자를 내리고 있다.

어제 차창 너머로 보았던 거리가.

오늘은 훨씬 가까웠다.

보도 끝에 있던 아이가 이쪽을 가리킨다.

옆의 어른도 돌아본다.

(보겠지……)

흰 블라우스.

승마 바지.

긴 검은 머리.

커다란 붉은 Indian.

자기가 봐도 눈에 띈다.

하지만.

지금은 뒤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앞.

길.

사람.

다시 앞.

빨리 달릴 수는 없다.

그걸로 됐다.

(은행 가기 전에 병원부터 가면 웃을 일이 아니지.)

교차로에서 멈추고.

출발하고.

다시 달린다.

그걸 몇 번 반복하자.

낯익은 건물이 앞에 나타났다.

타카츠카사 은행.

"……벌써 와 버렸네."

즐거운 시간은.

대개 짧다.

*

현관 옆에 차체를 세웠다.

중립을 확인하고.

엔진을 끈다.

두두두, 하는 소리가 끊겼다.

"……"

조용했다.

아니.

거리는 평범하게 시끄럽다.

조금 전까지 자기가 그보다 더 시끄러웠을 뿐이다.

미리아는 Indian 에서 내렸다.

조금 늦게 검은 Packard 가 멈췄다.

설희가 내렸다.

"시간 맞췄네요."

“응.”

“들어가시죠.”

“……조금 더, 뭐랄까.”

“네?”

“무사히 도착했네요, 라든가.”

“무사히 도착했네요.”

“말하게 만들면 의미 없잖아.”

미리아는 고글과 보호모를 벗었다.

운전기사에게 맡기고.

가죽장갑도 벗었다.

손가락이 조금 땀에 젖어 있었다.

“이쪽을.”

설희에게서 꾸러미를 받는다.

“아, 재킷.”

“네.”

조금 전까지 핸들을 잡고 있던 팔에.

이번에는 약혼자의 재킷.

(바쁘네, 내 팔……)

미리아는 꾸러미를 다시 안았다.

어제도 왔던 은행.

하지만 오늘은.

푸딩이 아니다.

업무다.

“가자.”

“네.”

설희와 나란히 현관으로 들어갔다.

바깥 소리가 한 단계 멀어진다.

반짝이게 닦인 바닥.

높은 천장.

창구 너머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종이를 넘기는 소리.

낮은 목소리.

모든 것이 저택 차고와 달랐다.

미리아의 부츠가 바닥을 울린다.

가까이에 있던 은행원이 고개를 들고.

곧바로 이쪽으로 걸어왔다.

“키신 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름을 말하기도 전에 알아봤다.

열아홉 살의 자신.

은행에서도 얼굴이 알려져 있는 모양이다.

설희가 가방을 다시 잡는다.

“오늘은 NOC 거래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은행원이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미리아는 그 너머를 보았다.

어제 마주쳤던 남자의 모습을.

왠지 모르게.

찾고 말았다.

“키라 님은?”

은행원의 표정이 조금 미안한 듯 변했다.

“히카루 님은 지금 외출 중이십니다.”

“……없어?”

“네.”

“몇 시에 돌아와?”

“돌아오실 시각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구나.”

팔 안의 꾸러미를 본다.

기껏 가져왔는데.

뭐.

그럴 수도 있다.

"어디 갔어?"

"하야시다 댁에 들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야시다?"

"은행원 하야시다 유코 씨입니다."

"……"

미리아의 시선이 멈췄다.

"오늘은 쉬고 계셔서요. 히카루 님께서 상태를 보러 가신다고."

"……유코 씨 집에?"

"네."

하야시다 유코.

그 이름이라면.

알고 있다.

(원작 히로인.)

미리아는 다시 꾸러미를 보았다.

어제.

자기는 키라 님과 긴자에 갔다.

푸딩을 먹었다.

재킷을 빌렸다.

그리고 오늘.

키라 님은.

원작 히로인의 집에 있다.

(……저쪽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냐.)

"아는 분이십니까?"

"어제 여기서 만났어."

"그러셨군요."

은행원은 그 이상 묻지 않았다.

설희가 입을 열었다.

"오늘 절차는 다른 분께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담당자가 맡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야기가 진행됐다.

너무나 평범하게.

키라 님이 없어도.

은행은 움직이고 있었다.

당연하다.

여기는 그 남자와 자기의 연애 이벤트장이 아니다.

(나는 계약서.)

(저쪽은 히로인.)

(이벤트 종류 너무 다르잖아……?)

“미리아 님.”

“네.”

“이쪽입니다.”

“응.”

걷기 시작하다가.

팔 안의 꾸러미를 조금 들어 올린다.

“……재킷, 나중에 직접 돌려줄까.”

설희는 미리아의 손을 보았다.

“우선 이쪽부터 끝내죠.”

“알고 있다니까.”

먼저 업무.

그다음 재킷.

미리아는 머릿속에 순서를 늘어놓았다.

조금 전의 왼손과 왼발처럼.

*

안내받은 곳은 안쪽 응접실이었다.

문이 닫힌다.

창구의 웅성거림이 다시 조금 멀어진다.

미리아는 긴 소파 안쪽에 앉았다.

키라 님 재킷 꾸러미를 팔걸이 사이에 놓는다.

설희는 그 옆에 앉았다.

문에 가까운 쪽이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리는 순간.

재킷 자락이 살짝 어긋났다.

"……"

허리에 가죽 홀스터.

그 틈으로 보이는.

Walther PPK 의 그립.

(……그것도 가져왔구나.)

설희는 아무 일도 없다는 얼굴로 재킷 자락을 되돌렸다.

그리고.

무릎 위 가방을 연다.

나온 것은.

서류.

서류.

또 한 뭉치의 서류.

"……"

미리아는 보았다.

빤히.

"그거 전부 오늘 거야?"

"네."

"차에 두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무엇을 하러 오셨습니까?"

"……그랬지."

설희는 서류 모서리를 맞췄다.

망설임이 없다.

무엇을 위에 놓고.

무엇을 나누고.

어느 페이지를 펼치는지.

전부 알고 있는 손놀림이었다.

차고의 스스무가 조금 떠올랐다.

미리아는 모르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다룬다.

“설희 씨.”

“네.”

“나 어디 보고 있으면 돼?”

“우선 여기입니다.”

가리킨 페이지로 시선을 내린다.

숫자.

이름.

아침 회의에서 몇 번이고 나온 단어.

“상대방 설명을 들으시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질문하십시오.”

“설희 씨한테?”

“저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전부 모르겠으면?”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

오늘.

자기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씩’이라고 말한다.

“……부탁할게.”

“네.”

차가 들어왔다.

미리아는 찻잔으로 손을 뻗다가.

서류를 보고.

그만뒀다.

쏟으면.

아마 엄청나게 귀찮은 일이 생긴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실례하겠습니다.”

들어온 것은 중년 남자였다.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

차분한 색의 양복.

팔에는 얇은 서류철.

물론.

키라 님은 아니다.

“기다리게 해 드렸습니다.”

남자는 미리아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오늘은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미리아도 고개를 숙인다.

남자는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앉았다.

설희가 준비해 둔 서류를 내밀었다.

“NOC 재무 담당 윤입니다. 오늘은 이 절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남자는 받아 들고.

첫 장을 읽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미리아에게 미소 지었다.

“수령 K 님께서 이 건에 대해 미리아 님을 대리인으로 지정한 위임장도 보내 주셨습니다.”

“네.”

설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서명하시기 전에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자가 서류 한 장을.

미리아 앞으로 밀었다.

작은 글씨가.

빼곡했다.

“그럼 여기부터.”

미리아는 등을 곧게 폈다.

옆에는 키라 님의 재킷.

눈앞에는 계약서.

정작 본인만.

여기에 없다.

(……오늘 이벤트가 이거냐.)

(HP 깎이는 속도 장난 아닌데.)

미리아는 첫 줄로 시선을 내렸다.

*

“이쪽이 은행 보증에 관한 서류입니다.”

남자의 손가락이 첫 장을 가리켰다.

“보증 대상 거래. 금액. 기간. 그리고 당행에 지불하실 수수료를 확인해 주십시오.”

“수수료.”

“네.”

“보증받는 데도 돈이 드는구나.”

“은행이 책임을 인수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옆에서 설희가 보충했다.

“여기에 계산 기준이 있습니다.”

가느다란 손가락이 다른 페이지로 옮겨 간다.

미리아도 눈으로 따라갔다.

일본을 멸망시키기 위한 준비.

그걸 위해.

일본 은행에 수수료를 낸다.

(……일단 일본 은행부터 돈 버네.)

왠지.

진 기분이었다.

“이 금액, 아침 거랑 같아?”

“네. 이쪽이 사본입니다.”

설희는 가방에서 꺼낸 서류를 옆에 놓았다.

같은 숫자.

같은 이름.

같은 날짜.

미리아는 하나씩 비교했다.

"……이쪽 기한도?"

"변경 없습니다."

"응."

모르는 말은 많다.

그래도.

숫자가 같은지 정도는 볼 수 있다.

남자가 감탄한 듯 웃었다.

"준비를 잘해 오셨네요."

"필요한 확인이니까요."

"역시군요. 유키짱이 준비한 서류라면 저희도 안심입니다."

설희의 손가락이.

멈췄다.

"……"

미리아는 옆을 보았다.

설희는 웃고 있지 않았다.

아까도 딱히 웃고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금의 무표정은.

뭔가 달랐다.

"윤이라고 불러 주십시오."

목소리는 조용했다.

"오늘은 NOC 재무 담당으로 왔습니다."

"아아, 실례했습니다."

남자는 웃는 얼굴 그대로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여러 번 신세를 졌다 보니 그만."

설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서류 모서리를 다시 맞췄다.

“그럼 다음 항목입니다만.”

“아, 유키짱. 그렇게 딱딱하게 굴지 말고.”

“호칭 말인데.”

미리아는 남자를 보았다.

“짱 말고 윤 씨.”

“……네?”

“아까 본인이 그렇게 불러 달라고 했잖아?”

남자의 미소가.

조금 멈췄다.

“아니, 저는 친근하게 부른다는 뜻으로——”

“응. 그래도 본인이 싫다잖아.”

“……”

“일 얘기하러 온 거고. 윤 씨면 되잖아?”

잠깐.

침묵이 흘렀다.

남자는 자세를 바로 했다.

“……배려가 부족했습니다. 윤 씨, 실례했습니다.”

“그럼.”

설희는 서류로 시선을 돌렸다.

“수수료 산정에 관해 이 기재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대로.

업무로 돌아갔다.

미리아는 작게 숨을 내쉬었다.

눈앞의 서류로 시선을 되돌린다.

*

그 뒤로.

보증 범위.

비용.

기한.

무언가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의 처리.

설명은 하나씩 이어졌다.

모르는 곳에서 미리아가 멈춘다.

남자가 설명한다.

그래도 모르겠으면 설희가 말을 바꿔 설명한다.

그것도 애매하면.

서류를 되돌려 다시 한 번.

“그러니까 예정이 바뀌어도 이쪽을 마음대로 고치면 안 되는 거지?”

“네. 변경 내용에 따라 다시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알겠어.”

미리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끄덕이고.

옆을 본다.

설희도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뜻인 모양이다.

“그럼 여기에 서명해 주십시오.”

만년필이 내밀어졌다.

“……여기?”

“네.”

미리아는 받아 들었다.

종이에 가까이 댄다.

한 번 멈춘다.

“설희 씨.”

“확인했습니다.”

“빠르네.”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십시오.”

미리아는 다시 페이지를 보았다.

아까 설명을 들은 곳.

확인한 숫자.

서명란.

"……응."

펜촉을 내린다.

키신 미리아.

평소보다.

조금 천천히 썼다.

자기 이름인데도.

여기에 쓰니 유난히 무거운 느낌이 들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쪽에도."

"아직 더 있어?"

"이쪽은 별도 서류입니다."

설희가 해당 부분을 가리켰다.

아까 설명을 들은 다른 서류.

"……네."

다시.

키신 미리아.

"이쪽도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 오늘 엄청 일하네."

설희가 한 장씩 확인한다.

빠뜨린 곳은 없는지.

필요한 부분이 모두 갖춰졌는지.

마지막으로.

남자가 서류를 정리했다.

"오늘 절차는 이상입니다."

"……"

미리아는 만년필을 든 채 멈췄다.

"끝?"

"네."

"진짜로?"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윤 씨에게 연락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윤 씨가 되어 있었다.

미리아는 마침내 펜을 내려놓았다.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인다.

설희도 뒤따랐다.

서류 사본을 받고.

필요한 말을 주고받고.

남자가 응접실을 나갔다.

문이 닫힌다.

“……”

미리아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피곤해……”

“수고하셨습니다.”

설희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있었다.

딱.

손이 멈춘다.

“……아까는 감사했습니다.”

“응?”

미리아는 얼굴을 돌렸다.

“호칭 말입니다.”

“……”

설희는 이쪽을 보고 있었다.

그 얼어붙은 듯한 눈은 아니었다.

“그거야.”

미리아는 뺨을 긁었다.

“이름 정도는 본인이 불러 달라는 대로 부르면 되잖아, 싶었을 뿐이야.”

“네.”

미리아는 식어 버린 차에 손을 뻗었다.

이제는.

눈앞에 계약서가 없다.

한 모금.

마신다.

아침부터 이상한 것들에게 쫓기고 있다.

갈아입기.

전쟁.

왼쪽 스로틀.

은행 마감.

찻잔을 내려놓는다.

그때.

팔걸이 사이에 둔 꾸러미가 눈에 들어왔다.

"……"

하얀 얇은 종이.

그 안에.

어제 머리 위로 덮어 준 재킷.

이쪽 용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설희 씨."

"네."

"키라 님한테 가 볼까."

설희는 꾸러미로 눈을 내렸다.

"하야시다 님 댁으로요?"

"응. 이거 돌려주러."

"직접 전달하실 생각이군요."

"기껏 가져왔으니까."

말하면서.

미리아는 꾸러미를 들어 올렸다.

원작 히로인의 집.

거기에 있는 약혼자.

신경 안 쓰인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얼굴로 있는지.

(……원작, 어디까지 진행된 거지.)

“길 알아?”

“접수처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부탁해.”

설희가 일어섰다.

미리아도 뒤따랐다.

이번에는.

재킷 꾸러미를 잊지 않고.

*

접수처 은행원은 종이에 길을 적어 주었다.

설희가 받아 들고.

감사를 전한다.

미리아는 그 옆에서 꾸러미를 안고 있었다.

“히카루 님께도 안부 전해 주십시오.”

“……응.”

만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른다.

그래도.

여기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만날 수 있을 것 같았다.

은행 밖으로 나간다.

오후 햇빛이 눈부셨다.

돌계단 너머에는.

검은 Packard.

그 근처에 붉은 Indian Chief.

“……”

미리아는 조금 웃었다.

“기다렸지.”

물론.

대답은 없다.

운전기사가 맡아 두었던 보호모와 고글을 가져왔다.

설희는 길을 적은 종이를 건네고.

그다음 미리아에게 손을 내밀었다.

“재킷을 맡겠습니다.”

“아, 응.”

꾸러미를 건넨다.

“또 계속 들어 달라고만 하네.”

“양손은 운전에 쓰십시오.”

“그래야지.”

보호모를 쓴다.

턱끈을 조인다.

고글.

가죽장갑.

“이번에는 차를 먼저 보내겠습니다.”

“내가 뒤야?”

“길을 모르시잖습니까.”

“……네.”

“떨어지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고 있어.”

설희가 본다.

“무리해서 따라잡으려 하지는 마시고.”

“안다니까!”

미리아는 Chief 에 올라탔다.

양발을 땅에 댄다.

왼손.

오른손.

왼발.

오른발.

차고에서 배운 순서대로.

서두르지 않고 확인한다.

은행 안보다.

지금은 이쪽이 더 마음이 편했다.

엔진이 걸린다.

두두두두두…….

발밑에서 조금씩 익숙해진 진동이 올라왔다.

설희가 Packard 에 올라탄다.

팔에는 키라 님의 재킷.

발밑에는 계약서 가방.

허리에는.

(……그쪽은 나설 일 없길 부탁한다.)

미리아는 앞을 보았다.

검은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조금 간격을 두고.

붉은 Indian 도 따라갔다.

약혼자가 있는.

원작 히로인의 집으로.

악역 영애가.

호위를 데리고 향하고 있다.

"……"

미리아는 고글 너머로 눈을 가늘게 떴다.

(……글자만 보면 완전히 쳐들어가는 쪽이잖아.)

용건은.

재킷 반환.

지금까지는.

*

검은 Packard 가 천천히 길가로 붙었다.

미리아도 그 뒤에서 멈췄다.

"……여기?"

좁은 골목 입구.

그 옆에 하늘색 차가 서 있었다.

Buick Roadmaster.

어제 긴자까지 태워 준 컨버터블.

오늘은 지붕이 열려 있다.

그리고.

아이들이 몰려 있었다.

"키라 형, 이거 뭐야?"

"라디오야."

"우리 집 거랑 똑같아!"

"키라 형, 여기도 의자야?"

"거긴 올라가지 말자."

창문으로 얼굴을 들이대는 아이.

펜더를 양손으로 쓰다듬는 아이.

열린 차 안으로 까치발을 하고 얼굴을 들이미는 아이.

그 너머에.

있었다.

타카츠카사 히카루.

한쪽 팔에는 종이봉투.

다른 손으로는 좌석을 들여다보는 아이를 받쳐 주고 있다.

"……"

미리아는 고글 너머로 눈을 가늘게 떴다.

약혼자.

원작 히로인의 집.

거기에 호위를 데리고 불시에 방문.

(이거 완벽한 악역 영애잖아.)

Indian 의 엔진을 끈다.

차체를 안정시킨 뒤 내려서.

보호모와 고글을 벗었다.

설희가 Packard 에서 내린다.

“제가 맡겠습니다.”

“고마워.”

운전기사에게 보호모와 고글을 건네고.

가죽장갑도 벗는다.

그때.

Buick 조수석 쪽에서 남자아이가 손잡이를 당겼다.

살짝 열린 문.

그 틈으로.

다른 아이의 손가락.

“아, 거기 잠깐.”

발이 먼저 움직였다.

미리아는 문을 받쳤다.

“손, 이쪽. 끼인다.”

여자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여기?”

“응. 고마워.”

작은 손가락이 떨어진다.

그걸 확인하고 남자아이를 본다.

“문 여닫는 건 어른이랑 같이 하자.”

“안에 보고 싶어.”

“보고 싶지. 키라 형한테 열어 달라고 하자.”

말하고 나서.

깨닫는다.

(나까지 ‘형’이라고 했잖아.)

“미리아 씨?”

그 ‘형’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다.

“안녕.”

“어떻게 여기까지?”

“은행에 갔더니 없었으니까.”

대답하면서 차 주변을 본다.

하나.

둘.

셋.

방금 손을 뗀 아이까지 넷.

설희가 차도 쪽으로 돌았다.

길을 한번 살핀 뒤 아이들 뒤에 섰다.

하늘색 차체에는.

작은 손자국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다.

키라 님이 종이봉투를 발밑에 내려놓는다.

“기다렸지. 내가 열어 줄게.”

남자아이가 한 걸음 물러났다.

이번에는 여자아이도 물러난다.

문이 열렸다.

“우와!”

“의자 엄청 커!”

미리아는 그제야 문에서 손을 뗐다.

습격의 첫마디.

손 끼인다.

(……첫 수부터 보육이잖아.)

*

“다들, 간식은 안에서 먹자.”

골목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유코가 이쪽으로 걸어왔다.

색이 바랜 잔줄무늬 면 기모노.

소매는 어깨끈으로 걷어 묶고, 허리에는 앞치마.

아이들에게 손을 흔드니 팔꿈치의 덧댄 천이 보였다.

땋은 머리가 어깨에서 흔들린다.

“미리아 씨?”

“안녕하세요, 유코 씨. 갑자기 와서 미안해.”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키라 형, 한 번만 더 타고 싶어!”

“또 다음에. 오늘은 간식 먹자.”

“약속!”

“응.”

남자아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펜더를 쓰다듬었다.

여자아이는 차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미리아는.

조금 그 마음을 알 것 같았다.

“미리아 님.”

설희가 꾸러미를 내민다.

“재킷입니다.”

“아.”

그랬다.

자기는 이걸 돌려주러 왔다.

꾸러미를 받아 들고.

차와 Indian 을 운전기사에게 맡긴 뒤 골목으로 들어간다.

앞에는 유코와 네 명의 아이.

뒤에서는 종이봉투를 다시 안아 든 키라 님.

“그쪽도 과자?”

“이쪽은 고기 통조림.”

“고기!”

다른 아이가 반대편 봉투를 들여다봤다.

“그쪽은?”

“그쪽은 기대해도 돼.”

어제.

긴자에서 아무렇지 않게 사람을 끌고 다니던 남자.

오늘은.

소매를 잡히고.

봉투를 들여다보이고.

걷는 속도까지 아이들에게 맞추고 있다.

(허세 부리는 형이 아니네.)

(키라 형이네.)

*

양철 지붕.

낮은 처마.

나무 미닫이문.

문 앞에는 작은 신발이 줄지어 있었다.

“다녀왔어.”

유코의 목소리에.

방 안쪽에서 가느다란 대답이 들렸다.

작은 이불.

남자아이 한 명이 얼굴만 이쪽으로 돌리고 있다.

“……한 명 더 있네.”

“네. 제일 어린 아이예요.”

유코는 목소리를 낮췄다.

“아침부터 열이 나서요.”

“아아. 그래서 오늘 쉬었구나.”

“의사 선생님께 진찰은 받았습니다. 조금 진정된 참이에요.”

“그렇구나.”

밖에 넷.

안에 하나.

다섯.

미리아는 부츠를 벗고 상 옆에 앉았다.

설희도 집 안으로 올라왔다.

입구 쪽.

미리아의 비스듬한 뒤.

서류 가방을 벽 쪽에 두고 재킷 자락을 정리했다.

허리의 것은 보이지 않는다.

(오늘은 그대로 있어 줘.)

키라 님이 맞은편에 종이봉투를 내려놓았다.

“이거. 어제 재킷.”

미리아는 꾸러미를 내밀었다.

“깨끗하게 손질해 줬어.”

“일부러 가져와 주신 거군요.”

“은행 온 김에.”

“고마워요. 어제 그 뒤에 춥지는 않았습니까?”

“괜찮았어.”

“다행이네요.”

평범하게.

기뻐했다.

비 속에서 재킷을 빌려준 남자가.

오늘은 쉬는 은행원 집에 먹을 것을 들고 와 있다.

(나쁜 데가 어디냐고……)

“은행 업무는?”

“끝났어. 이름 엄청 많이 쓰고 왔어.”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그랬어.”

비스듬한 뒤에서 설희가 가방에 손을 얹었다.

미리아는 그쪽을 보지 않았다.

이름 이야기는.

오늘 이미 충분하다.

“키라 형.”

여자아이가 소매를 당긴다.

“이 사람 누구야?”

“미리아 씨. 내 약혼자야.”

“약혼자?”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

“신부?”

“아직 아니야!”

목소리가 커졌다.

이불 속 아이도 이쪽을 본다.

"……아직 아니야."

작게 다시 말했다.

"언제 돼?"

"나도 몰라."

"결혼하면 과자 나와?"

남자아이가 물었다.

"나오지 않을까?"

"야호!"

"축하하는 이유가 그거냐."

키라 님은 즐겁게 웃고 있었다.

*

재킷 꾸러미는 선반으로.

종이봉투 안의 것은 상 위로.

초콜릿 바.

과자 상자.

막대사탕.

은박지에 싸인 작은 초콜릿.

아직 더 나온다.

동그란 알갱이 과자.

통처럼 포장된 사탕.

또 한 상자.

"……몇 명 올 예정이었어?"

"다섯 명입니다만."

"알아."

미리아는 늘어선 글자를 보았다.

HERSHEY'S.

OREO.

TOOTSIE POPS.

M&M'S.

LIFE SAVERS.

Cracker Jack 상자에는 캐러멜을 입힌 팝콘과 땅콩.

그 옆에서는 은박지의 키스 초콜릿이 작은 산을 이루고 있다.

"미국 과자 가게를 통째로 들고 왔어?"

"뭘 좋아할지 몰라서요."

"모르면 전부구나."

"비교해서 먹어 볼 수도 있고요."

거기에 얕은 상자.

열자.

"……도넛까지 있잖아!"

작은 고리들이 줄지어 있었다.

아이들의 얼굴이 한꺼번에 가까워진다.

"구멍!"

"진짜다!"

"구멍도 먹는 거야?"

"거긴 못 먹지."

미리아가 대답하자 남자아이는 진지하게 고리 너머를 들여다봤다.

"이쪽은 미국에서 돌아온 지인에게 받은 선물입니다. 오래 두는 물건이 아니니 먼저 먹죠."

"키라 님 지인, 단것으로 짐이 꽉 찼겠는데?"

"제가 부탁했으니까요."

"발주처가 너였냐."

통조림도 나왔다.

파란 캔.

SPAM.

그 옆에 Libby's 콘비프.

"이쪽은 보관할 수 있으니까요."

유코가 캔 하나를 집어 들었다.

"도움이 됩니다. 도시락에도 쓸 수 있으니까요."

"부족하면 또——"

“일단 이 산부터 먹고.”

미리아는 상자 끝을 보았다.

MADE IN U.S.A.

밖의 Buick.

자기가 타고 온 Indian.

과자.

고기.

(미국 비율 높네……)

“키라 형, 열어 줘!”

손 하나가 뻗는다.

또 다른 손도 뻗는다.

“그 전에 손 씻자.”

“씻었어!”

“차 만지기 전에?”

“……응.”

“그럼 한 번 더.”

미리아는 자기 손도 보았다.

“나도 씻을게. 유코 씨, 개수대 좀 빌려도 돼?”

“네. 이쪽에——”

“누나.”

이불 속 아이가 불렀다.

유코의 얼굴이 그쪽으로 향한다.

“장소만 알려 줘. 여긴 내가 보고 있을게.”

“……감사합니다.”

제일 큰 여자아이가 미리아의 소매를 당겼다.

“이쪽.”

“안내 부탁해.”

개수대로 가는 동안.

뒤의 남자아이가 몇 번이나 상을 돌아본다.

“괜찮아. 돌아가서 나눌 거야.”

“없어지지 않아?”

“안 없어져. 저 양을 봐.”

그제야.

앞을 봐 주었다.

*

돌아오니 통조림이 상에서 내려가 있었다.

설희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다.

빈 자리에 작은 접시.

큰 여자아이가 인원수를 세고 있었다.

“네 것도 꺼내 둬.”

“난 나중에 먹어도 돼.”

“접시는 지금 놓자. 너도 먹는 사람이잖아.”

여자아이는 접시 하나를 더 놓았다.

미리아도 그 옆에 앉는다.

“유코 씨. 먹으면 안 되는 거 있는 아이 있어?”

“특별히 없어요. 다만 작은 아이에게는 딱딱한 사탕을 주지 않고 있어요.”

“응. 저 아이 몫은 유코 씨한테 부탁해도 돼?”

“네.”

“나도 있어?”

이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있어. 다섯 명 몫 다 있어.”

미리아가 대답한다.

키라 님은 도넛을 나누기 시작했다.

미리아는 오레오를 한 장씩 접시에 놓는다.

“하나씩. 먼저 다들한테 돌아간 다음에.”

오늘.

차고에서도.

은행에서도.

자기가 들었던 말이었다.

“여기!”

“지금 갈게.”

“누나, 여기도!”

“접시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

손이 저절로 움직인다.

아직 못 받은 아이.

벌써 먹기 시작한 아이.

사양하며 손을 내밀지 않는 아이.

눈이 차례로 따라갔다.

왼쪽이 스로틀.

왼발이 클러치.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외우지 않아도 됐다.

“빨간 거!”

“나도!”

같은 막대사탕으로 두 손이 뻗었다.

상자가 기울었다.

미리아는 밑을 받쳤다.

“일단 손 떼자.”

“내가 먼저야!”

“응. 너도 빨간 게 좋은 거지?”

여자아이가 고개를 끄덕인다.

“빨간 게 좋은 이유 있어?”

“이거 전에 맛있었어!”

“난 종이.”

“종이?”

“인형 옷으로 할 거야.”

무릎 위에 작은 헝겊인형.

미리아는 그쪽을 보았다.

“아아. 빨간 옷 해 주고 싶구나.”

“응.”

남자아이도 인형을 본다.

“먹고 나면 종이 줄게.”

“찢으면 안 돼.”

“응.”

“그럼 그렇게 해도 돼?”

둘 다 고개를 끄덕였다.

키라 님이 건네받은 사탕을 받는다.

“이건 조심해서 열어야겠네.”

“키라 형, 그쪽 당기면 안 돼.”

“여기?”

“응. 천천히.”

은행 재벌가 도련님이.

과자 포장지 한 장을 놓고 엄청 진지했다.

펼쳐진 종이는 여자아이에게.

사탕은 남자아이에게.

“앉아서 먹자. 물고 돌아다니면 안 돼.”

“네—.”

일어나려던 무릎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내려왔다.

그 대답도.

그 움직임도.

알고 있었다.

“유코 누나, 이건 동그랗다!”

“그것도 사탕이야. 오늘은 하나만 고르자.”

“이거 씨앗?”

“초콜릿.”

“초콜릿은 갈색 아니야?”

“안이 갈색이야.”

미리아는 과자 통역까지 시작하고 있었다.

비스듬한 뒤에서.

설희가 굴러 온 M&M’S 한 알을 주웠다.

“이쪽은 지금 먹지 않을 것이군요.”

“응. 고마워.”

다음 순간에는.

손이 닿는 곳에 작은 빈 접시가 놓여 있었다.

*

“감사합니다. 완전히 맡겨 버렸네요.”

유코가 차를 가져왔다.

“아니. 내가 멋대로 정리해서 미안해.”

“도움이 됐어요.”

찻잔에 댄 왼손.

가운데손가락이 없다.

유코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상에 내려놓았다.

찻잔 가장자리도.

조금 깨져 있었다.

“죄송해요. 짝이 맞는 게 없어서.”

“아냐. 고마워.”

미리아는 깨지지 않은 쪽으로 찻잔을 돌렸다.

아이 팔꿈치가 닿지 않는 쪽으로 조금 옮겨 놓는다.

설희도 입구 쪽 자리에서 차를 받았다.

밖에서는 손수레가 지나가는 소리.

방 안에서는 포장지가 스치는 소리.

키라 님은 여자아이의 부탁을 받아 인형 옷을 눌러 주고 있다.

“거기, 놓으면 안 돼.”

“네.”

큰 손이.

작은 빨간 종이를 집고 있었다.

“은행에 나가 있는 동안은 어떻게 해?”

미리아는 유코에게 목소리를 낮췄다.

“큰 아이들은 학교에. 작은 아이는 이웃분들께 맡겨요.”

“그렇구나.”

“오늘은 열이 있어서 이웃분께 부탁할 수 없었고요.”

유코의 눈이 이불로 향했다.

남자아이는 나눠 받은 도넛을 조금씩 먹고 있었다.

*

이불 속 아이가 유코를 불렀다.

“누나. 내일 일 가?”

유코가 곁에 앉는다.

“열 내려가면.”

“안 내려가면?”

“옆에 있을게.”

남자아이는 그 대답을 듣고 나서 누웠다.

유코가 이불을 고쳐 준다.

상으로 돌아와 키라 님에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연락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키라 님도 이불 쪽을 보았다.

“이럴 때를 위해 집안일을 도와줄 사람을 한 명 고용하는 건 어떨까요?”

유코의 대답이.

멈췄다.

“……고용이요?”

“네. 그러면 일하시는 동안에도——”

“키라 님.”

“네?”

“그 사람 월급은 어디서 나와?”

키라 님이 미리아를 본다.

“……”

“유코 씨가 번 돈으로 다섯 명이랑 본인이 사는 거야. 거기서 한 명 더 고용해?”

“……아.”

처음으로.

그 점을 깨달은 얼굴이었다.

“우리 집에서는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게 당연해서요.”

“부탁할 사람이 있으면 도움은 되지.”

미리아는 비스듬한 뒤를 보았다.

설희.

그 옆의 서류 가방.

오늘 자기가 혼자였다면.

은행에서 몇 장이나 끝낼 수 있었을까.

“그렇지만 어느 집에나 있는 건 아니니까.”

“……죄송합니다.”

키라 님은 유코 쪽으로 다시 몸을 돌렸다.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에요.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코는 무릎 위에서 손을 포갰다.

“기껏 소개해 주신 일이니 가능한 한 쉬지 않으려고 생각해 버려서요.”

“내일 일은 아침에 연락 주시면 됩니다. 지금 무리해서 결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

“하야시다 씨.”

키라 님이 빈 상자로 손을 뻗었다.

“이건 접어도 괜찮습니까?”

“아, 네. 부탁드려요.”

이번에는.

먼저 물었다.

미리아는 그 손을 보았다.

(겨우 감점할 데를 찾았는데.)

사과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상자 밑을 뜯으려던 순간.

“키라 형, 그건 안 돼!”

남자아이가 달려왔다.

“이거 차고야!”

“……차고?”

작은 나무조각에 바퀴를 단 장난감.

남자아이가 상자 안으로 밀어 넣는다.

딱 맞았다.

키라 님은 손을 멈췄다.

“그럼 이건 남겨 두자.”

“응!”

미리아는 웃고 말았다.

“확인할 사람 한 명 더 있었네.”

“그런 모양이네요.”

*

키라 님이 손목시계로 눈을 내렸다.

“……슬슬 은행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아직 일 있어?”

“창구가 닫혀도 일은 남아 있으니까요.”

“그쪽은 세 시에 도망 안 가네……”

“네?”

“아무것도 아냐.”

키라 님이 선반 위 꾸러미를 집었다.

어제의 재킷.

“키라 형, 가?”

여자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응. 또 올게.”

“키라 형!”

이불 속 아이가 불렀다.

“나도 차.”

키라 님이 곁에 앉았다.

“건강해지면 타자.”

“다들 탔어.”

"응."

"나 안 탔어."

"그럼 다음에는 네가 제일 먼저."

"……진짜?"

"약속할게."

작은 손가락과.

큰 손가락이.

걸렸다.

키라 님이 일어나려 한다.

아이의 손이 그 소매를 붙잡았다.

"조금만 더."

"……응."

다시 앉는다.

긴자에서 본 걸음걸이도.

재킷을 덮어 줬던 묘하게 멋들어진 동작도.

이 아이는 모른다.

그저.

부르면 와 주는 사람을 보고 있었다.

미리아는 무릎 위에서 손을 포갰다.

(……점점 더 사이다 복수 못 하겠잖아.)

잠시 뒤.

아이의 손이 소매에서 떨어졌다.

"……다음엔 내가 제일 먼저."

"응. 기억해 둘게."

이번에는 일어날 수 있었다.

"미리아 씨는?"

"난 이거 정리하고 갈게."

미리아는 상에 남은 접시와 포장지를 가리켰다.

"그럼 먼저 가겠습니다. 재킷, 고마워요."

"응. 일 열심히 해."

“네.”

아이들이 문 앞에 모였다.

미리아도 설희와 함께 일어섰다.

“거기까지만. 길로 뛰어나가면 안 돼.”

“키라 형, 또 와!”

“또 올게.”

하늘색 Buick 으로.

재킷 꾸러미가 옮겨진다.

엔진 소리.

작은 손 넷이.

계속 계속 흔들렸다.

*

차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됐다.

“……그럼 정리할까.”

미리아가 돌아보자.

유코가 조금 놀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괜찮으시겠어요?”

“응. 접시 어디로 가져가면 돼?”

“이쪽으로요. 감사합니다.”

미리아는 겹쳐 든 접시를 옮겼다.

유코는 개수대에 놓고 곧바로 이불 쪽으로 돌아간다.

남자아이 이마에 손을 대고.

이불을 고쳐 준다.

기모노 팔꿈치에는 덧댄 천.

그 아래에서 작은 손이 소매를 붙잡고 있었다.

미리아는 상 옆에 다시 앉는다.

설희도 입구 쪽 자리로 돌아갔다.

“한밤중에 열 나도 유코 씨가 봐 주는 거야?”

“네.”

“……다른 가족은?”

“아버지는 아투섬에서 전사하셨어요.”

미리아의 손이 멈췄다.

“어머니와 남동생, 여동생은 공습으로. 조부모님도 함께요.”

“……”

아이가 웃었다.

미리아는 그쪽을 본다.

유코도 같은 쪽을 보았다.

“저 아이들과는 피가 이어져 있지 않아요.”

“……다섯 명 모두?”

“네.”

미리아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유코 씨는 그때……”

“공장에 나가 있었어요. 근로동원으로. 집에서 떨어진 곳에.”

목소리는 조용했다.

“그래서 저만 살았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다.

“돌아왔을 때는 집도 다 타 버려서.”

어머니.

남동생.

여동생.

조부모.

방금 유코가 말한 사람들이.

돌아갈 곳에.

없었다.

미리아는 상의 나뭇결을 보았다.

“이 손도 공장에서.”

유코가 찻잔에 댄 왼손으로 눈을 내렸다.

“프레스 사고예요. 공습과는 별개지만요.”

“……응.”

되묻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유코는 그 손으로 흘러내린 안경을 고쳤다.

“지금 집은 전쟁이 끝난 뒤 빌렸어요.”

기운 옷.

낮은 선반.

작은 이불.

여기에는.

그 이후에 모인 것들이 놓여 있었다.

“첫 아이를 재웠을 때는 하룻밤만 생각했어요.”

“응.”

“그런데 다음 날에도 갈 데가 없어서.”

유코의 눈이 아이들에게 돌아간다.

“한 명, 또 한 명. 같이 있는 아이가 늘어나고.”

“그래서 다섯.”

“네.”

미리아에게는 ‘다섯’이라는 숫자 뒤가 보였다.

식사.

빨래.

학교에 가져갈 것.

한밤중의 발열.

한 명이 울어도 나머지 네 명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 사이에.

은행 일.

“저도 혼자 밥 먹는 건 싫었으니까요.”

유코가 말했다.

“지금은 조용히 먹는 게 더 어렵지만요.”

“누나! 갈라졌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자아이가 오레오를 내밀었다.

검은 쿠키.

흰 크림이 붙은 다른 한 장.

"……그거 벗겨진 거야."

"두 개 됐어."

"응."

"흰 쪽, 나."

"검은 쪽은?"

"나."

"둘 다 네 거잖아."

남자아이가 웃었다.

유코도 웃었다.

미리아는.

조금 늦게 숨을 내쉬었다.

*

"아까 일 소개받았다고 했지?"

"네."

"그거 키라 님한테?"

"아니요. 카미시로 레츠라는 분이에요."

"……카미시로, 레츠."

입 안에서 되풀이한다.

(이름 진하다……)

(또 분명 나오겠지?)

"그 사람도 은행 사람이야?"

"네. 은행의 경호원 일을 하고 계세요."

"은행에 경호원이 있어!?"

"지금은 가라테 수련을 위해 해외 원정 중이라고 들었어요."

"수련."

"네."

"해외까지?"

"네."

미리아는 찻잔으로 손을 뻗다가.

그만뒀다.

(등장하기도 전부터 너무 진하잖아……)

“그 사람이 유코 씨한테 은행 일을?”

“네. 암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도움을 받았어요. 그 뒤에 이 일을 소개해 주셨고요.”

유코는 무릎 위에서 손을 포갰다.

“제대로 감사도 못 했는데 떠나 버리셔서.”

“……그랬구나.”

(키라 님 호감도 이벤트인 줄 알고 왔더니.)

(다른 남자 이벤트는 벌써 끝났잖아……)

“그래서 오래 계속하고 싶어요. 지금 일.”

미리아는.

아까 남자아이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내일 일 가?

중요한 일.

열이 난 아이.

둘 중 하나라도 가벼웠다면.

이런 얼굴로 내일 아침 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오늘은 저 아이 옆에 있을 수 있어서 다행이네.”

유코가 고개를 든다.

미리아는 이불 쪽을 보았다.

“없었으면 일하는 동안에도 계속 신경 쓰였을 거잖아.”

“……네.”

유코도 그쪽을 보았다.

남자아이는 눈을 감고 있었다.

*

해가 조금 기울어 있었다.

입구에서 들어오는 빛이 설희의 발밑까지 뻗어 있다.

미리아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깨진 곳을 피해.

맞은편에서는 유코가 내일까지 남겨 둘 과자를 상자에 넣고 있었다.

종이봉투에는 아직 통조림이 있다.

SPAM.

Libby's.

미국산.

방금 들은.

집을 태운 공습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유코 누나, 내일도 고기?"

"조금씩 나눠 먹자."

"오늘도?"

"오늘은 저녁에."

유코는 캔을 보고 웃었다.

미리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전에는.

일본에 돈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한 이야기를 하고.

오후에는.

일본 은행에 수수료를 냈다.

지금은.

일본의 작은 집에서.

미국 과자를 아이들에게 나누고 있다.

"미리아 누나."

큰 여자아이가 접시를 내밀었다.

작은 도넛 하나.

"안 먹었잖아."

"……"

"계속 나눠 주기만 했지."

"네 몫은?"

"이미 먹었어. 이건 누나 거."

미리아는 받아 들었다.

“고마워.”

한입 베어 문다.

달았다.

아는 종류의 단맛.

은행에서 만났을 때는.

안경.

땋은 머리.

서민 여자아이.

그걸로 유코를 원작 히로인이라고 생각했다.

지금은.

그 사람이 다섯 명의 먹다 남은 것을 확인하고 있다.

부르면 얼굴을 돌린다.

*

“미리아 님.”

비스듬한 뒤에서 설희가 말을 걸었다.

“슬슬 저택에 연락을 넣는 게 좋겠습니다.”

“……꽤 있었어?”

“네.”

미리아는 벽 쪽의 가방을 보았다.

은행 용무도.

재킷 반환도.

볼일은 전부 끝났다.

“그럼 슬슬——”

“누나, 이거 열어 줘.”

“응. 줘 봐.”

받고 나서.

멈춘다.

“……”

설희가 이쪽을 보고 있었다.

“……이거 열고 나서.”

“알겠습니다.”

은박지를 천천히 벗긴다.

작은 초콜릿이 나왔다.

“종이도 필요해?”

“필요해!”

이번에는 찢지 않았다.

초콜릿은 접시로.

은박지는 작은 손으로.

유코 누나.

키라 형.

오늘은 거기에.

미리아 누나까지 늘었다.

원작 히로인의 집에.

호위를 데리고 들이닥친 악역 영애.

지금 하고 있는 건.

간식 정리.

(습격이란 대체 뭐였냐……)

“미리아 누나!”

“그래그래. 지금 갈게.”

미리아는 일어섰다.

*

정리가 끝날 무렵에는.

이불 속 남자아이는 잠들어 있었다.

“오늘은 정말 감사합니다.”

문간에서 유코가 고개를 숙인다.

“나야말로. 갑자기 들이닥쳐서 미안해.”

“또 오세요.”

“응.”

“미리아 누나!”

네 아이가 골목까지 따라나와 있었다.

“또 와?”

“올게.”

“다음에도 과자 있어?”

“그건 키라 형한테 물어봐.”

“미리아 누나는?”

“나는……”

미리아는 붉은 Indian 을 보았다.

“탈것 담당.”

“태워 줘!”

“그건 내가 조금 더 잘 타게 된 다음에.”

“약속!”

“응. 약속.”

설희에게서 보호모와 고글, 가죽장갑을 받는다.

가죽장갑을 끼고.

보호모를 쓰고.

턱끈을 조이고.

고글을 내렸다.

“차도로 나가면 안 돼.”

“네—!”

네 개의 대답.

조금 떨어진 문간에서.

유코도 이쪽을 보고 있다.

미리아는 손을 들었다.

“그럼, 또 보자.”

“네. 또 봬요.”

Indian 에 올라탄다.

차를 맡아 두었던 운전기사가 시동 준비를 맞췄다.

미리아는 킥스타터를 밟아 내린다.

붉은 차체가 낮게 떨기 시작했다.

왼손.

왼발.

오른손.

다시 한 번 머릿속에서 순서를 확인했다.

조금 앞에서 검은 Packard 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 뒤를 따라.

붉은 Indian 도 골목을 떠났다.

*

저녁길을.

검은 차의 등이 앞으로 나아간다.

미리아는 조금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

오는 길보다.

어깨의 힘이 빠져 있었다.

왼손을 움직이면 엔진이 반응한다.

속도를 줄이고.

오른손으로 변속한다.

아직 생각하면서 하기는 하지만.

이제는.

하나를 조작할 때마다 숨을 멈추지는 않았다.

가게 처마.

귀가하는 사람.

저녁 장을 든 여자.

학교에서 돌아오는 듯한 아이들.

각자가.

자기가 돌아갈 방향으로 걷고 있었다.

이윽고.

앞을 달리던 Packard 의 제동등이 붉게 빛났다.

큰길로 나가는 교차로.

신호는 빨간색.

미리아도 속도를 줄이고.

검은 차 뒤에서 멈췄다.

이번에는.

시동이 꺼지지 않았다.

“……”

챙, 챙.

마른 경종을 울리며.

눈앞을 노면전차가 가로질러 간다.

창문.

창문.

또 창문.

손잡이를 잡은 회사원.

장바구니를 무릎에 올린 여자.

창에 이마를 붙이고 밖을 보는 아이.

저녁 햇빛을 받으며.

각자가.

돌아갈 방향으로 실려 가고 있었다.

문득.

아까 그 말이 되돌아왔다.

돌아왔을 때는 집도 다 타 버려서.

유코는.

집으로 돌아갔다.

돌아가서.

가족이 아무도 없다는 걸 알았다.

“……”

미리아의 머리에 떠오른 것은.

2022 년.

자기 스마트폰으로 온 어머니의 LINE 이었다.

《다음 달 할머니 3 주기니까 돈다바야시로 와》

《11 월 20 일, 약속 잡으면 안 돼😚》

《점심 도시락도 주문해 둘게🍱》

그 아래에.

자기가 보낸 초록색 말풍선.

《알았어 알았어. 간다니까🤣》

"……"

간다고.

말했다.

일정도 비울 생각이었다.

추모 법요에 가고.

도시락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는 남은 과자 같은 걸 또 손에 들려 받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온다.

그럴 예정이었다.

(간다고 말했는데……)

유코는.

돌아갔더니 가족이 없었다.

자기는.

간다고 말하고.

돌아가지 않았다.

(……엄마, 미안.)

노면전차가 교차로 너머로 멀어진다.

챙, 챙.

경종 소리도.

거리 속으로 섞여 사라졌다.

신호가 파란색으로 바뀐다.

Packard 의 제동등이 꺼지고.

검은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앞 봐야지."

누구에게 들려주려는 것도 없이.

미리아가 중얼거렸다.

왼발.

왼손.

천천히.

Indian 이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

해가 기울 무렵.

검은 Packard 가 저택 문을 통과했다.

그 뒤로.

붉은 Indian 이 따라 들어간다.

앞차는 현관으로.

미리아는 중간에서 갈라져 차고로 향했다.

건물 앞에는.

스스무가 서 있었다.

미군 방출 비행복.

팔짱을 끼고.

이쪽을 보고 있다.

미리아는 속도를 줄였다.

차고 앞으로.

천천히.

천천히.

정지.

엔진을 끈다.

진동이 사라졌다.

“스스무 씨!”

“네.”

“무사히 귀함했습니다!”

“여기에는 함선이 없습니다.”

“세세하네!”

미리아는 Indian 에서 내렸다.

스스무는 대답하지 않고.

차체 주위를 걷기 시작한다.

앞바퀴.

차체.

발밑.

핸들.

마지막으로 탱크 옆을 본다.

“뭐 해?”

“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탔다니까.”

“차체를 보면 압니다.”

“그 말 아침에도 했잖아.”

“그러니까 보고 있습니다.”

“내 보고는 필요 없잖아!”

스스무는 차체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전도 없음.”

“없어.”

“접촉 없음.”

“없어.”

“새로운 흠집도 없습니다.”

“거봐!”

“아침보다는 낫습니다.”

“잘 탔다고는 못 해?”

“다음에는 멈출 때 오른쪽으로 너무 붙지 마십시오.”

“칭찬하고 끝내면 안 돼!?”

스스무의 입가가.

아주 조금 풀렸다.

“내일도 타십니까?”

“탈 거야.”

이번에는.

생각하기 전에 대답했다.

“그럼 내일도 연습하죠.”

“응. 부탁해.”

미리아는 Indian 의 탱크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오늘 고마웠어.”

붉은 차체는.

물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

현관으로 돌아가니.

양장을 입은 시녀가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 옷.

흰 앞치마.

미리아가 계단을 올라오자 한 걸음 앞으로 나온다.

“어서 오십시오, 아가씨.”

“……”

《와. 집에 와.》

어머니의 말이.

한 번 더 떠올랐다.

“……다녀왔어.”

시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저녁 식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 갑자기 배고파졌어.”

“먼저 갈아입으셔야 합니다.”

“역시?”

“네.”

내민 손에.

가죽장갑을 건넨다.

다음으로 보호모.

고글.

시녀의 팔이 차례로 가득 찬다.

“나 돌아올 때마다 짐 늘지 않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마워.”

“얼굴과 손도 씻어 주십시오.”

“네.”

저택 안쪽으로 향한다.

식당에서.

희미하게 라디오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

손과 얼굴을 씻고.

승마복에서 짙은 포도주색 원피스로 갈아입었다.

팔꿈치까지 오는 소매.

같은 천으로 만든 가느다란 벨트.

자락은 종아리 중간까지.

긴 검은 머리도 시녀의 손으로 목덜미에 묶였다.

미리아가 식당에 들어갔을 때에는.

K 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넓은 식탁.

하지만.

준비된 자리는 두 개뿐.

K 의 손에는 접어 둔 신문.

지면 끝에.

《라디오》

라는 글자가 보였다.

벽 쪽에는.

나무로 된 커다란 텔레비전 수상기.

화면은 캄캄하다.

그 위에.

가로로 긴 나무 상자 같은 라디오.

주황색으로 빛나는 눈금.

그 안쪽에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늦었군.”

“원작 히로인 집에서 간식 치우고 있었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나도 몰라.”

시녀가 미리아의 의자를 빼 준다.

“고마워.”

자리에 앉는다.

시녀는 비스듬한 뒤에 서 있었다.

대신.

기모노 차림의 하녀가 요리를 나른다.

하얀 접시.

노릇하게 구운 생선.

희미하게 향신료 냄새.

옆에는 샐러드.

바구니에는 썬 빵.

“고등어 카레 풍미 뫼니에르입니다.”

“……”

미리아는 접시를 보았다.

“패미마에 이런 거 있었는데.”

K가 신문에서 눈을 든다.

“패미마?”

“미래의 식료품점.”

“고급점인가.”

“엄청 달라.”

나이프를 넣는다.

껍질이 가벼운 소리를 냈다.

한입.

카레 향.

고등어 기름.

“……맛있어.”

“그런가.”

“아저씨가 만든 것 같은 얼굴 하지 마.”

“안 했다.”

음악이 끝났다.

잠깐.

라디오가 조용해진다.

이어서.

남자 목소리.

『뉴스를 전해 드립니다.』

K 가 신문을 내려놓았다.

미리아도.

고등어를 자르면서 귀를 기울였다.

몇 가지 뉴스가 지나가고.

이윽고.

한반도 이야기가 나왔다.

『대한민국에서는 오는 5 월 30 일, 제 2 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

『총선거를 사흘 앞두고 각지에서는──』

미리아의 나이프가 멈췄다.

“사흘 뒤네.”

“방금 그렇게 말했군.”

“그 스물엿새 뒤.”

K 가 미리아를 본다.

“6 월 25 일.”

“응.”

“……”

“……”

라디오 목소리만.

식당을 흘러간다.

선거.

후보자.

투표.

아직.

전쟁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하녀가 K 의 잔에 포도주를 따른다.

짙은 붉은색.

미리아는.

자기 잔을 본다.

투명.

물.

“……내 거는?”

“물이다.”

“보면 알아. 포도주.”

“없다.”

“왜?”

“너는 열아홉 살이다.”

“나는 스물아홉이야.”

“그 몸은 열아홉이다.”

“속은 스물아홉.”

“간은 열아홉이다.”

“간의 인격까지는 몰라!”

미리아는 붉은 병을 가리켰다.

“조금쯤 괜찮잖아.”

“안 된다.”

“악의 군단장이 너무 세세해. 내놔.”

“군단장이 아니다. 수령이다.”

“거기 정정할 데 아니거든!”

K 는 미리아를 보았다.

미리아도.

똑바로 마주본다.

“아버님.”

“네가 그렇게 부를 때는 믿을 수가 없다.”

“포도주 주세요♡”

“안 된다.”

“한 모금!”

“……”

“한 잔!”

“늘었군.”

“그럼 중간으로 반 잔!”

K가 길게 숨을 내쉬었다.

하녀를 본다.

아주 조금.

턱을 움직였다.

하녀는 고개를 숙이고.

미리아의 잔에 포도주를 따랐다.

바닥에서.

손가락 한 마디만큼.

“적어!”

“맛보는 데는 충분하다.”

“악의 조직이 쪼잔해……”

미리아는 잔을 들었다.

향을 확인하고.

한 모금.

“……”

또 한 모금.

“……맛있어.”

“그런가.”

미리아는.

남은 포도주를 고등어와 빵 사이사이에 조금씩 마셨다.

이윽고.

빈 접시가 하녀의 손에 내려간다.

미리아는 빈 잔을 들어 올렸다.

“조금 더.”

“이제 홍차다.”

“방금 맛있다고 한 참이잖아!”

“한 잔 마셨다.”

“한 잔의 정의가 이상해!”

K 가 자기 잔을 내려놓았다.

“홍차를.”

“알겠습니다.”

기모노 차림의 하녀가 고개를 숙인다.

포도주 병이.

미리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치워졌다.

“아.”

대신.

따뜻한 홍차가 들어온다.

K 앞으로.

미리아 앞으로.

“아저씨도 홍차로 바꿔?”

“식후니까.”

“건강하네, 악의 수령.”

“무슨 문제라도 있나.”

미리아는 홍차를 한 모금 마셨다.

“……”

“왜 그러지.”

“이것도 맛있어.”

“그럼 처음부터 그걸 마셔라.”

“포도주랑 홍차는 별개야.”

“둘 다 마시고 있잖나.”

“맛있는 건 전부 맛있는 거야.”

K 도 홍차를 마셨다.

벽 쪽에서는.

텔레비전 화면이 여전히 캄캄한 채.

그 위 라디오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벌써 다음 뉴스를 읽고 있다.

미리아는 김 너머로 K 를 보았다.

“일본은 멸망시킬 거면서 딸 술에는 엄격하네.”

“그건 별개의 문제다.”

“별개구나……”

미리아는.

다시 한 모금 홍차를 마셨다.

# 『1950 년, 악역 영애는 일본을 멸망시키고 싶다』

—전생했더니 이세계가 아니라 6·25 전쟁 직전의 일본이었다—

## 제 6 화  일본을 멸망시킬 공장에 일요일은 없다

*

아침 식사 접시가 치워진 뒤.

미리아는 식탁에서 신문을 펼치고 있었다.

텔레비전 위 라디오에서는.

FEN 영어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거의 알아듣지 못한다.

그래도.

중간중간 흐르는 음악을 들으면서.

신문 지면 위.

《쇼와 25 년 5 월 28 일 일요일》

그 조금 아래에는.

《한국 총선거, 모레로 다가와》

라는 제목.

“……”

모레.

5 월 30 일.

그 스물엿새 뒤가.

6 월 25 일.

어젯밤 라디오에서 들은 날짜를.

오늘 아침은 신문 위에서 보고 있다.

(앞으로 28 일.)

6·25 전쟁이 시작될 때까지.

4 주.

하지만.

미리아의 눈은 다시 지면 위로 돌아갔다.

《일요일》

"……쉬는 날이네."

누구에게 들려주려는 것도 없이.

중얼거렸다.

K는 아침 식사를 끝내자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식당에는.

홍차와.

자기와.

일요일.

오늘은.

조금쯤 느긋하게——.

"좋은 아침입니다, 미리아 님."

"……"

문 쪽에서.

점점 익숙해진 목소리가 들렸다.

미리아는 신문을 내린다.

설희가 서 있었다.

오늘도.

팔에 서류 뭉치를 안고.

"아침부터 서류 들고 오는 사람은 대체로 무섭거든."

"오전 중에 설명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설희 씨."

"네."

"오늘 일요일이야."

"알고 있습니다."

"휴일은?"

"없습니다."

"즉답하지 마!"

설희는 신문 끝으로 시선을 옮겼다.

《한국 총선거, 모레로 다가와》

"기한이 한 달도 남지 않았으니까요."

"……"

"그리고."

설희는.

안고 있던 서류를 식탁 위에 놓았다.

"'자는 놈들 전부 깨워'라고 지시하신 분은 미리아 님입니다."

"말투까지 재현하지 마!"

"정확한 기록입니다."

"어제의 나는 일요일 생각도 안 했나……"

"어제는 토요일이었으니까요."

"그런 문제가 아니야."

신문이.

설희의 손으로 조용히 옆으로 밀려났다.

*

아침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미리아의 집무실로 옮겼다.

큰 책상 위에는.

도면.

목록표.

숫자.

시녀가 가져온 홍차 옆에서.

일요일이 다시 서류에 점령당하고 있었다.

"이쪽이 저택 동쪽의 공장 구역입니다."

설희의 손가락이.

부지도의 오른쪽 절반을 따라 움직였다.

"……저택 부지 안에 공장이 있어?"

"있습니다."

"처음 듣는데."

"어제까지 미리아 님께서 보신 것은 정문과 차고, 그리고 지하시설 일부뿐입니다."

"이 집, 아직도 뭐 숨기고 있어?"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몰랐으면 거의 똑같잖아.”

설희는 대답하지 않고.

부지도 위에 다른 종이를 겹쳤다.

길쭉한 건물.

그 안에 늘어선 사각형.

선.

번호.

“종전 후 정지한 설비가 있습니다.”

“자는 놈들.”

“네.”

“진짜 공장 얘기였구나.”

“다른 무엇을 깨우실 생각이셨습니까?”

“말투 얘기야!”

설희의 손가락이.

첫 번째 건물로 옮겨 간다.

“이쪽은 금속부품 가공동. 선반, 밀링머신, 연삭기의 일부가 가동 가능합니다.”

다음.

“이쪽은 프레스 설비. 금형 확인과 보수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이쪽은 조립동. 인원을 복귀시키면 사용할 수 있지만 전력 배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잠깐.”

“네.”

“하나씩.”

“하나씩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하나가 너무 무거워!”

설희는.

설명할 종이를 한 장만 남겼다.

“그럼 먼저 가공동부터.”

“처음으로 돌아왔잖아……”

“무엇을 만들든 필요하니까요.”

미리아는 홍차로 손을 뻗었다.

이미 미지근하다.

한 모금 마시고.

도면을 본다.

“이거, 지금 당장 전부 돌릴 수 없어?”

“기계가 있어도 재료와 인력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종전 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부서로 옮긴 사람도 있고요.”

“불러들여?”

“누구를 복귀시킬지, 무엇을 우선 생산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전기도 필요하고.”

“네.”

“재료도.”

“네.”

“고장 난 기계는 고치고.”

“네.”

“……”

어제까지.

공장이라고 하면.

건물이 있고.

기계를 움직이면 뭔가가 나온다.

그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종이 위만 봐도.

움직이기 전에 필요한 것이 이렇게 많다.

“공장이라는 거, 잠 깨는 데 오래 걸리네……”

“오랫동안 정지해 있었으니까요.”

“일요일 정도는 재워 두면 안 돼?”

“깨우라고 하신 분은 미리아 님입니다.”

“그 말 오늘 몇 번 쓸 거야?”

“필요한 횟수만큼.”

도망갈 곳이 없었다.

“이 공장 보고 있는 사람이.”

미리아는.

회의에서 본 얼굴을 떠올렸다.

“리화 씨?”

“네. 린 리화 씨가 생산과 공장 설비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비밀회의.

원탁 너머.

검은 망토.

양쪽으로 묶은 머리.

가늘고 긴 눈.

차분한 목소리.

“망토 입고 있던 사람이잖아.”

“그렇게 인식하시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분입니다.”

“오늘도 망토?”

“공장에서 무엇을 입고 계시는지까지는 모릅니다.”

“그렇구나.”

설희가 새로운 목록을 펼쳤다.

“오늘 오후 리화 씨에게 설비 현황을 설명받으실 겁니다.”

“나도 가?”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해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견학?”

“확인입니다.”

“똑같은 거 아니야?”

“미리아 님은 수령 K 님의 대리인으로 재가동 계획을 승인하셔야 합니다.”

“……”

어제.

은행에서.

몇 번이나 썼던 이름이.

또 일하는 모양이다.

“설희 씨도 와?”

“저는 다른 계약을 확인하겠습니다. 공장은 부지 안이니 호위도 필요 없겠죠.”

“그럼 걸어서?”

“차를 준비하겠습니다.”

“Indian 으로 갈래.”

“……”

설희가 미리아를 본다.

“어제보다는 탈 수 있게 됐어.”

“카타야마 씨에게 확인했습니다.”

“벌써 물어봤어!?”

“부지 안이라면 연습을 겸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이야기 빠르네!”

“다만.”

“뭐?”

“오전 중에 이쪽을 외워 주셔야 합니다.”

추가 종이가.

책상 위에 놓였다.

“……아직 있어?”

“기한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일요일은.

완전히 사라졌다.

*

오후.

미리아는 어제와 같은 승마복 차림으로 차고로 향했다.

흰 블라우스.

남색 승마 바지.

검은 승마 부츠.

묶은 검은 머리.

한 손에는 가죽장갑.

다른 손에는.

설희에게 받은 가죽 서류가방.

내용물은.

오전에 자신을 괴롭힌 공장 서류였다.

"……일요일에 서류 들고 공장 가는 건가."

2022 년이라면.

휴일 출근이라고 부른다.

이 시대에서도.

아마 똑같을 것이다.

차고 앞으로 돌아간다.

붉은 Indian Chief.

그 옆에.

낯선 차체가 있었다.

"……"

빛바랜 갈색빛.

이른바 국방색.

커다란 앞바퀴.

낮은 펜더.

옆에는 배처럼 생긴 사이드카.

사이드카 뒤에는 예비 타이어.

굵은 실린더 두 개가.

차체 중앙에서 비스듬히 벌어져 있다.

"……Harley?"

목소리에 반응해.

사이드카 너머에서 스스무가 얼굴을 내밀었다.

"아닙니다."

"빠르네."

미리아는 가까이 갔다.

차체 왼쪽.

오른쪽.

다시 앞에서 본다.

“아니, 잠깐.”

아는 모양과.

비슷하다.

하지만.

탱크에도.

차체에도.

Harley-Davidson 이라는 글자는 없다.

“……리쿠오?”

“97 식 측차부 자동이륜차입니다.”

“군용 명칭으로 대답하네.”

“군용차니까요.”

스스무가 일어섰다.

어제와 같은 미군 방출 비행복.

소매는 팔꿈치까지 걷어 올렸다.

“창고에 보관돼 있던 걸 정비했습니다.”

“움직여?”

“움직입니다.”

“탈래.”

“안 됩니다.”

“즉답하지 마!”

“어제 Indian 을 타기 시작한 지 하루밖에 안 됐잖습니까.”

“이쪽은 사이드카 있잖아. 안 넘어지잖아.”

“조작도, 회전 방법도 다릅니다.”

“사이드카 바퀴도 구동돼?”

“구동합니다.”

“더 타고 싶어졌어!”

“우선 Indian 부터 평범하게 움직이십시오.”

“어제 움직였잖아.”

“멈출 때 오른쪽으로 붙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그것도 말했잖아!”

스스무는.

미리아가 들고 있던 서류가방을 받아 들었다.

차고 작업대 위에 놓는다.

“공장까지 부지 안을 달리는 거죠?”

“응.”

“그럼 그 전에 확인하겠습니다.”

“뭘?”

“저속에서의 자세와 조작.”

“또 처음부터?”

“하나씩.”

“오늘 그 말 하는 사람 두 번째야.”

“누구요?”

“설희 씨.”

“그렇습니까.”

“감상 얕네!”

*

미리아는 Indian 에 올라탔다.

아직.

엔진은 걸지 않았다.

스탠드도 세운 채.

양손으로 핸들을 잡는다.

스스무는 차체 옆에서 자세를 확인했다.

“어깨.”

“힘 뺐어.”

“들어가 있습니다.”

“어제보다 낫잖아.”

“어제보다는.”

“그다음 칭찬은 못 해?”

“그럼 뒤에 타겠습니다.”

“……”

미리아는 돌아보았다.

“지금 뭐라고?”

“뒤에 타겠습니다.”

Indian 에는.

Chum-Me 라고 불리는 2 인승 뒷좌석이 붙어 있었다.

어제는.

거기에 아무도 태우지 않았다.

“왜?”

“뒤에서 팔 위치를 확인하려고요.”

“옆에서 보면 되잖아?”

“직접 올라타는 편이 알기 쉬우니까요.”

“누가?”

“제가.”

“……”

스스무는.

정말로 뒷좌석에 올라탔다.

안장이.

조금 내려앉는다.

등에.

비행복 천이 닿았다.

“가까워!”

“움직이지 마십시오.”

“안 움직였어!”

스스무의 왼팔이.

미리아의 왼쪽에서 뻗어 나온다.

왼쪽 그립으로.

기름이 남은 손가락이 가죽장갑 바로 옆에 겹쳐졌다.

“스로틀은 크게 움직이지 마십시오.”

“알아.”

“어제 출발할 때 너무 많이 열었습니다.”

“기억해?”

“보고 있었으니까요.”

이번에는.

오른팔이 미리아 옆구리를 지나갔다.

탱크 옆 변속 레버를 가리킨다.

“변속하기 전에 왼발.”

“클러치.”

“네. 손을 보기 전에 진행 방향을 보십시오.”

목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린다.

미리아는 앞을 보았다.

“어깨.”

“지금은 무리야!”

“왜요?”

“가깝잖아!”

“설명 중이니까요.”

“그건 알아!”

스스무는.

정말 모르겠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얼굴 보고 뽑힌 주제에.)

(이럴 때만 정비사인 건 뭐냐……)

“팔꿈치도 조금 더 편하게.”

스스무의 손이.

미리아의 팔꿈치를 조금 아래로 내린다.

“차체가 움직일 때 팔로 전부 억누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응.”

“듣고 있습니까?”

“듣고 있어!”

“그럼 앞을 보세요.”

“보고 있다니까!”

엔진은.

아직 걸지도 않았다.

그런데.

자기 심장만 시끄러웠다.

“이제 됐습니다.”

“벌써?”

“네.”

스스무가 뒷좌석에서 내렸다.

등에서 체온이 떨어져 나간다.

“……”

미리아는.

작게 숨을 내쉬었다.

스스무는 그대로 작업대로 향한다.

놓아 두었던 가죽 서류가방을 들고.

미리아에게 내민다.

“이쪽을.”

“아, 응. 고마워.”

안장에 앉은 채 받아 든다.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허리로.

비스듬히 멨다.

스스무가 가방 위치를 본다.

“조금 더 뒤로.”

“이렇게?”

“네. 변속할 때 방해되지 않게.”

가죽끈을 짧게 하고.

가방을 왼쪽 허리 뒤로 옮긴다.

안의 서류가.

사락, 소리를 냈다.

“얼굴이 빨간데요.”

“더워.”

“엔진도 아직 안 걸었는데요.”

“햇빛이야!”

“차고 안입니다만.”

“세세하네!”

스스무의 입가가.

아주 조금 풀렸다.

“그럼 시동 거십시오.”

“잘 봐.”

미리아는.

어제 배운 순서를 떠올렸다.

하나.

또 하나.

서두르지 않고.

확인한다.

킥스타터에 발을 올리고.

밟아 내렸다.

둑.

“……”

“한 번 더.”

“알고 있어!”

두 번째.

두둑──.

두두두두두두…….

붉은 Indian 이.

낮게 떨기 시작했다.

“두 번.”

“어제보다 빨랐습니다.”

“그럼 잘한다고 말해.”

“공장에 도착한 뒤에.”

“채점 길다!”

미리아는 차체를 일으킨다.

스탠드를 걷어 올렸다.

양발로 지탱한다.

“스스무 씨는?”

“97 식으로 뒤에서 가겠습니다.”

“그쪽 타!?”

“시험주행도 겸하니까요.”

“치사해!”

“우선 Indian 부터 평범하게 움직이십시오.”

“돌아오면 태워 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거 안 태워 줄 때 하는 답이잖아!”

스스무는 대답하지 않고.

97 식 측차부 자동이륜차에 올라탔다.

국방색의 커다란 차체가.

무거운 소리를 내며 눈을 뜬다.

붉은 Indian.

국방색 97 식.

차고 앞에서.

두 개의 진동이 겹쳤다.

“먼저 가십시오.”

“길 몰라.”

“갈림길에서 신호하겠습니다.”

“뒤에서 들이받지 마.”

“안 합니다.”

“진짜다!”

미리아는 앞을 보았다.

왼발.

왼손.

천천히.

Indian 이 차고를 떠났다.

*

저택 뒤편에서.

더 동쪽으로.

미리아는 붉은 Indian 을 달렸다.

뒤에는.

97 식의 무거운 배기음.

돌아보지 않아도.

스스무가 따라오는 걸 알 수 있었다.

첫 갈림길.

스스무가 팔로 오른쪽을 가리킨다.

오른쪽.

미리아도 속도를 줄이고.

돌았다.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너무 붙지 않았다.

나무숲이 끝난다.

그 너머에.

긴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다.

"……"

창고.

공장.

높은 굴뚝.

녹슨 인입선.

큰 문이 닫힌 건물.

창문을 판자로 막은 건물도 있다.

오전에.

종이 위에서 보았던 사각형이.

지금은.

길 양쪽에 서 있었다.

(저택 부지 안이라더니.)

(대체 어디까지가 부지야……)

사람 그림자 없는 건물.

풀이 자란 자재 적치장.

떼어 낸 기계 부품.

잠든 공장.

그 사이를.

붉은 Indian 이 달려간다.

왼쪽 허리 뒤에서.

서류가방이 가끔 작게 흔들렸다.

더 나아가자.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금속을 두드리는 소리.

회전하는 기계 소리.

짧은 기적.

굴뚝 하나에서.

옅은 연기가 올라오고 있다.

(일요일 맞지?)

아침 신문으로 확인했다.

틀림없이.

오늘은 일요일이다.

그래도.

공장은 움직이고 있었다.

스스무가 뒤에서 팔을 든다.

왼쪽.

크게 열린 공장 입구.

미리아는 속도를 줄였다.

천천히.

천천히.

정지.

이번에도.

시동이 꺼지지 않았다.

조금 늦게.

97 식도 옆에 멈춘다.

스스무가 엔진을 껐다.

“오른쪽으로 안 붙었네요.”

“그걸 칭찬할 거면 좀 더 기쁘게 말 못 해?”

“확인입니다.”

“채점 끝났어?”

“돌아가는 길도 있습니다.”

“아직 계속돼!?”

미리아도 Indian 의 엔진을 끈다.

진동이 사라진다.

대신.

공장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큰 문 너머.

여러 대의 공작기계.

기름에 젖은 바닥.

매달린 사슬.

옮겨지는 금속부품.

안쪽에서.

푸른빛의 불꽃이 튀었다.

미리아는 Indian 에서 내린다.

보호모와 고글을 벗었다.

서류가방을 왼쪽 허리로 돌린다.

그때.

불꽃 너머에서.

낯익은 여자가 걸어왔다.

좌우로 묶은 두 개의 시뇽.

윤기 나는 검은 머리.

가늘고 긴 눈.

단정한 이목구비.

린 리화.

비밀회의에서는.

검은 망토를 두르고.

원탁 너머에 앉아 있던 여자.

하지만.

지금 입고 있는 것은——.

흰 러닝셔츠.

미군 방출 P42 덕헌터 위장 HBT 작업바지.

허리 부분은 바깥쪽으로 두 번 접혀.

안쪽의 모래색이 띠처럼 드러나 있었다.

그 위에는.

드러난 배꼽.

접어 내린 허리에는.

검은 가죽 총벨트가 낮게 둘러져 있었다.

오른쪽 허리에는.

덮개 없는 특제 홀스터.

그 안에서.

검은 회전식 권총이 반쯤 드러나 있다.

(……Nagant?)

Nagant M1895.

나무 그립은.

리화의 손에 맞춰 가늘게 다시 깎여 있었다.

"리화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리아 님."

리화는.

품위 있게 고개를 숙였다.

(회의 때는 망토였잖아.)

(망토 벗으면 배꼽이랑 Nagant 야?)

*

미리아는.

리화를 다시 한 번 위에서 아래까지 보았다.

“그 차림으로 일해?”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총이라든가.”

“빼지 않습니다.”

“공장에서도?”

“어디서든.”

“대체 뭘 상대로 싸우는 건데……”

리화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른쪽 허리의 Nagant 에 손을 대지도 않고.

미리아의 어깨로 시선을 옮겼다.

“아, 이거.”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허리로 걸친 가죽끈을 벗는다.

어깨걸이식 서류가방.

오전에.

설희에게 질리도록 설명받은 자료가 안에 가득 들어 있다.

“설희 씨한테서.”

“제가 맡겠습니다.”

리화는 두 손으로 받아 들었다.

잠금장치.

봉인.

가죽끈.

하나씩 확인한다.

“확실히 받았습니다.”

“안에 든 거 무거워.”

“설희는 가벼운 자료를 만들지 않습니다.”

“알면 좀 말려 줘!”

“필요한 정보까지 가벼워집니다.”

“그건 설희 씨랑 같은 소리 하네……”

리화는 서류가방을 다시 안았다.

다음으로.

스스무를 본다.

“카타야마 씨. 뒤편 차량 정비동을.”

“확인할 것은?”

“수량과 상태. 움직이는 것, 부품용으로 쓸 것, 폐기할 것. 세 가지로 나눠 주세요.”

“알겠습니다.”

“차량 정비동?”

미리아가.

한 박자 늦게 반응했다.

“종전 당시 남겨진 구 육군 차량과 부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구 일본군 차량?”

“네.”

“뭐가 있어?”

“그걸 카타야마 씨에게 확인받을 겁니다.”

리화가 스스무를 본다.

“장부 기록과 현재 보관 수량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까?”

“반대입니다.”

스스무가.

조금 눈썹을 올렸다.

“기록에 없는 차량이 있습니다.”

“……”

미리아는.

공장 너머를 본다.

창고.

자재 적치장.

더 안쪽.

여기서는 차량 정비동 같은 건물이 보이지 않는다.

“나도 갈래.”

“미리아 님은 먼저 공장을 보셔야 합니다.”

“구군 차량 궁금하잖아.”

“공장을 깨우라고 지시하신 분은 미리아 님입니다.”

“그 말 들으면 아무 말도 못 하잖아……”

스스무가.

97 식 측차부 자동이륜차에 올라탔다.

“보관 차량과 쓸 수 있는 부품을 보고 오겠습니다.”

“재밌는 거 있으면 마음대로 만지지 말고 나 불러.”

“미리아 씨가 만지실 겁니까?”

“보기만 할 거야!”

“정말로요?”

“……”

“미리아 씨?”

“움직일 것 같으면 조금만.”

“안 부르겠습니다.”

“왜!”

스스무가 97 식 엔진을 걸었다.

“견학 끝날 무렵 돌아오겠습니다.”

“돌아갈 때도 따라와?”

“오른쪽으로 안 붙게 됐는지 확인해야죠.”

“채점 아직도 계속이야!?”

스스무는.

아주 조금 입가를 올렸다.

무거운 배기음을 울리며.

97 식은 공장 뒤편으로 달려갔다.

“……”

미리아는.

작아지는 사이드카를 바라보았다.

“미리아 님.”

리화는.

이미 공장 쪽으로 걷기 시작하고 있었다.

“차량……”

“두고 갑니다.”

“기다려!”

*

리화의 사무실은.

공장 2 층에 있었다.

철제 계단.

난간.

커다란 유리창.

그 너머로.

공장 내부가 내려다보인다.

책상.

의자.

책장.

서류장.

벽에는 공장 구역 도면.

그 옆에는.

낡은 시계와.

검은 전화.

장식이라고 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리화는.

책상 위에 가죽 서류가방을 놓았다.

봉인을 푼다.

안에서.

서류.

서류.

또 한 뭉치.

"……"

미리아는 의자에 앉았다.

"설희 씨랑 리화 씨."

"무엇입니까?"

"서류 늘리면 강해진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설희는 설명하기 위해 늘립니다."

리화는.

맨 위의 한 권을 뽑고.

나머지를 책상 끝으로 밀었다.

"저는 결정하기 위해 줄입니다."

"그거 설희 씨 앞에서도 말할 수 있어?"

"네."

"사이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네……"

리화는 손에 든 표지를 확인했다.

《기존 생산설비》

《전용 가능 설비》

《국내 공장 후보》

《해외 생산거점》

뽑아 든 것은.

《기존 생산설비》

"우선 이 공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네."

리화는 벽으로 가서.

걸려 있던 오래된 도면을 떼었다.

책상 위에 펼친다.

종이는 누렇게 바래 있었다.

현재 공장도보다.

건물이 적다.

대신.

낯선 글자가 늘어서 있다.

《공작기계》

《금형》

《검사》

《열처리》

"종전까지는."

리화의 손가락이.

도면 중앙에 놓였다.

"여기는 구 육군 조병창이 설치한 소개 공장이었습니다."

"소개?"

"공습을 피하기 위해 주요 설비를 분산한 겁니다."

"비밀공장?"

"일반 지도에는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저택 부지에 그런 걸 만들었어?"

"당시 이 일대는 저택과 별도 명의로 관리됐습니다."

"이름 바꿔서 숨긴 거야?"

"군 시설이었으니까요."

"악의 조직보다 먼저 하고 있었네……"

리화는 다음 부분으로 손가락을 옮겼다.

"여기서 완성된 무기를 대량생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뭘 만들었어?"

"금형."

하나.

"치구."

둘.

"검사구."

셋.

“그리고 공작기계 보수용 부품입니다.”

“……”

들어 본 말과.

잘 모르는 말이 섞여 있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무기를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

“무기공장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복잡하네!”

“중요한 차이입니다.”

리화의 손가락이.

도면 끝으로 옮겨 갔다.

“종전 후 이 공장은 폐쇄 대상이 됐습니다.”

“해체됐어?”

“무기 전용설비 일부는.”

“일부?”

“범용 공작기계와 금형 제작설비는 남겼습니다.”

“어떻게?”

“NOC 계열사가 설비 해체와 잔존자산 처리를 도급받았습니다.”

“……”

“토지.”

하나.

“건물.”

둘.

“남은 기계.”

셋.

“각각 다른 명의로 취득했습니다.”

“그거.”

미리아는.

도면을 보았다.

“구 육군 공장을 통째로 헐값에 산 거 아니야?”

“가격을 정한 것은 일본 측입니다.”

“고철값 같은 걸로?”

“고철로 평가됐으니까요.”

“진짜 가치 안 알려 줬어?”

“묻지 않았습니다.”

“나쁘네……”

“싸게 내놓는 사람에게 우리가 먼저 가격을 올려 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 우아한 얼굴로 할 말은 아닌데……”

리화는.

웃지 않았다.

“현재는 기계 수리와 금속가공을 하는 민간공장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겉으로는?”

“겉도 속도 공장입니다.”

“만드는 게 다를 뿐?”

“네.”

리화는 오래된 도면을 접었다.

“실물을 보시죠.”

*

계단을 내려가.

큰 문을 통과한다.

소리가.

한꺼번에 가까워졌다.

회전하는 기계.

금속을 깎는 소리.

규칙적으로 내려치는 프레스.

기름.

철.

절삭유.

열이 오른 공기.

"……"

밖에서 들여다볼 때보다.

훨씬 넓었다.

공작기계가 줄지어 있다.

선반.

밀링머신.

연삭기.

미리아에게는.

아직 무엇이 무엇인지 모른다.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회전하는 부품에 공구를 대고 있다.

다른 곳에서는.

여자가 완성된 부품을 측정기에 물리고 있었다.

리화가 지나가면.

몇 사람이 고개를 든다.

짧게 고개를 숙이고.

곧바로 작업으로 돌아갔다.

"리화 씨."

"무엇입니까?"

"오늘 일요일 맞지?"

"일요일입니다."

"다들 평범하게 일하고 있는데."

"교대근무니까요."

리화는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같은 사람을 매일 일시키는 건 아닙니다."

"휴일은 있어?"

"매주 하루. 교대로 줍니다."

"일요일은?"

"휴일이 일요일이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일본 멸망시키기 전에 노동기준법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리화가.

처음으로 걸음을 멈췄다.

“제가 법률도 모르고 교대근무를 짠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까지 말한 건 아니야!”

“사람을 망가뜨리면 기계가 멈춥니다.”

“노동자에 대한 상냥함은 아니었네……”

“사람은 쉬게 합니다.”

리화가.

계속 움직이는 공작기계를 보았다.

“기계를 쉬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

뒤에서.

프레스가 묵직한 소리를 냈다.

첫 번째 건물에는.

기어.

축.

펌프 부품.

차량 수리용 금구.

공구.

같은 모양의 것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다.

리화는.

완성품 상자에서 기어 하나를 집었다.

이 끝을 손가락으로 훑는다.

뒤집는다.

다시.

톱니 부분을 본다.

“이건 돌려보내세요.”

가까운 작업자에게 건넸다.

“마감을 다시.”

“네.”

“뭐가 안 좋았어?”

“이 끝에 버가 남았습니다.”

“보기만 해도 알아?”

“만졌습니다.”

“그쪽이야?”

리화는 다음 상자로 갔다.

“이것도 군수품이야?”

“일상 생산품입니다.”

“평범한 거?”

“광산용 펌프. 농기계 기어. 차량 보수부품. 그리고 공장용 공구.”

“일본을 멸망시킬 공장이 농기계 부품을 만들어?”

“팔리니까요.”

“이유가 평범하네!”

“공장은 팔리는 것을 만들어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리화는.

이번에는 완성 부품을 상자에 되돌렸다.

“통상 생산도 이번 달부터 늘리고 있습니다.”

“전쟁 아직 안 시작했는데?”

“시작하지 않아도 팔리는 것들입니다.”

“……”

“통상 생산을 늘리면 이익을 내면서 작업자와 기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해지면 공정 일부를 전환합니다.”

“평범한 거 만드는 것처럼 보이게?”

“보이게 하는 게 아닙니다.”

리화의 눈이.

미리아를 향했다.

“실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해?”

“거짓만으로는 공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구나.”

조금.

알 것 같았다.

전쟁이 시작될 때까지.

기계를 멈춰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다.

지금 팔리는 걸 만든다.

사람을 복귀시킨다.

재료를 넣는다.

기계를 정비한다.

그리고.

필요해졌을 때.

만드는 걸 바꾼다.

“다음은 이쪽입니다.”

리화가.

공장 옆의 커다란 문을 열었다.

*

밖으로 나오자.

냄새가 달라졌다.

기름.

흙.

타 버린 금속.

휘어진 철판.

부러진 차축.

이가 나간 기어.

떼어 낸 기계 틀.

녹슨 철이.

종류별로 쌓여 있었다.

그 너머에서는.

남자가 절단용 불꽃을 대고 있다.

푸른빛 불.

튀는 불꽃.

짧게 잘린 철이.

대차로 떨어졌다.

“고철?”

“재료입니다.”

“이것도 써?”

“선별하고 절단합니다. 쓸 수 있는 것은 형태를 다듬어 재가공합니다.”

“금형에도?”

“쓰지 않습니다.”

“왜?”

“재질을 모르는 강재로 정밀금형은 만들 수 없습니다.”

“철이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다면 제 일이 훨씬 쉬웠겠죠.”

“조금 비꼰 거야?”

“설명입니다.”

“설희 씨랑 닮았네.”

리화의 눈이.

조금 가늘어졌다.

“정정하겠습니다.”

“뭘?”

“고철은 용도를 가립니다.”

한 무더기를 가리킨다.

“재질과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보수부품.”

다음.

“확인할 수 없는 것 가운데 강도가 필요 없는 것은 대차나 포장틀.”

더 안쪽.

“나머지는 재질별로 선별해 계열 제강소로 보내 재용해합니다.”

“거의 다 쓰네.”

“쓸 수 있는 것을 버릴 이유는 없습니다.”

리화가.

녹슨 기계 틀을 보았다.

“구 육군은 가치 있는 것을 대량으로 남겼습니다.”

“졌으니까?”

“네.”

“……”

“이긴 쪽이 줍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줍습니다.”

“NOC 가 주웠어?”

“쓸 수 있는 것만.”

리화는.

더 말하지 않았다.

다시.

공장 안으로 들어간다.

*

다음 구역은.

조금 전보다 조용했다.

조용하다고 해도.

대화가 들릴 정도일 뿐.

기계 회전음은.

끊임없이 바닥으로 전해지고 있다.

작업대.

도면.

측정기.

연마된 금속.

중간까지 깎인 원통형 강재.

리화는.

도면 한 장을 가리켰다.

“현재 가장 먼저 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

미리아는.

도면의 글자로 얼굴을 가까이 했다.

영어.

숫자.

치수.

그 끝에.

《CAL. .30, M2》

“이거.”

“네.”

“M1 Garand 탄?”

리화가.

아주 조금 눈을 가늘게 떴다.

“알고 계셨습니까?”

“게임에서. 서티 오 식스잖아?”

“지식의 출처에는 관심 없습니다.”

“깔끔하게 잘라내네!”

“규격을 이해하신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리화는.

작업대에 놓인, 가공 중인 강재를 가리켰다.

“M1 소총과 기관총에 사용되는 .30 구경 M2 보통탄. 그 탄피 제조용 금형입니다.”

“이게?”

“아직 황삭 중입니다만.”

미리아에게는.

그저 쇳덩어리로 보였다.

“이 안에서 탄피가 나와?”

“이것 하나만으로는 안 나옵니다.”

“아니야?”

“탄피는 한 번 가공해서 완성되는 물건이 아닙니다.”

리화의 손가락이.

도면의 공정을 순서대로 옮겨 간다.

“원판 타발.”

하나.

“컵 성형.”

둘.

“여러 차례의 딥드로잉.”

셋.

“저부 성형.”

넷.

“구경부 성형과 절단.”

다섯.

“각 공정마다 금형과 펀치, 그리고 치수를 확인하는 검사구가 필요합니다.”

“탄 하나 만들 때 도구가 몇 개나 필요한 거야……”

“같은 것을 대량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어디에 달아?”

“구 육군 7.7mm 탄피용 프레스와 같은 형식의 설비에 장착합니다.”

“여기에도 있어?”

“조정용 한 대뿐입니다.”

“일본군 기계로 M1 Garand 탄을 만든다고?”

“기계를 쓰는 겁니다.”

리화는.

도면을 한 장 넘겼다.

7.7mm.

.30inch.

두 치수가 나란히 적혀 있다.

“금형, 펀치, 검사구는 미국 규격에 맞춰 전부 새로 만듭니다.”

“같은 금형을 돌려 쓰는 게 아니야?”

“쓸 수 없습니다.”

“기계만?”

“네.”

리화는.

작업 중인 기계를 본다.

“기계에는 국적이 없습니다.”

“……”

“정확한 치수의 도구를 장착하면 그 지시대로 움직입니다.”

“일본 기계라도?”

“기계는 명령한 사람을 위해 움직일 뿐입니다.”

“우와.”

미리아는.

리화의 옆얼굴을 보았다.

“나쁜 말 하네……”

“구 육군이 버린 기계입니다.”

그 너머에서.

회전하는 다른 강재에 절삭공구가 닿았다.

가느다란 절삭칩이.

빙글빙글 길게 늘어졌다.

“이 공장에서 탄도 만들어?”

“만들지 않습니다.”

“안 만들어?”

“여기서는 금형, 치구, 검사구를 제작합니다.”

“그걸 어디로 가져가?”

“쓸 수 있는 설비를 가진 공장으로.”

“거기서 탄을 만들고?”

“네.”

“금형은 그 공장 거 돼?”

“아닙니다.”

리화는 즉답했다.

“완성 후 NOC 의 자산번호를 각인합니다.”

“만드는 데 줘 버리는 게 아니야?”

“빌려줄 뿐입니다.”

“……”

“공장이 바뀌어도 금형은 NOC 로 돌려받습니다.”

미리아는.

깎이고 있는 강재를 보았다.

늘어선 공작기계.

도면.

검사구.

“여기.”

한 번.

말을 고른다.

“무기를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

“네.”

“무기공장을 만드는 공장이구나.”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지하 회의실에서.

자기는 가볍게 말했다.

공장.

수리.

식량.

의료.

자는 놈들.

전부 깨워.

지금.

눈앞에서는.

어제까지 그저 단어였던 것들이.

철의 형태가 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거.”

미리아는.

황삭 중인 금형을 가리켰다.

“언제 완성돼?”

“시험제작 한 세트는 며칠 안에.”

“며칠?”

“열처리와 연삭, 그리고 실제 프레스기에서 조정합니다.”

“그래도 너무 빠르지 않아?”

“도면과 설비가 있습니다.”

“사람은?”

“복귀 가능한 사람들에게 이미 연락했습니다.”

“재료는?”

“조달 중입니다.”

“전기.”

“배정을 변경합니다.”

“……”

오전.

설희에게 설명받은 것들이.

이미.

공장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진짜로.”

미리아는.

깎여 나가는 강재를 보았다.

“전부 깨울 생각이구나.”

“정식 미군 발주는 아직 없습니다.”

“그럼 왜 만들고 있어?”

“발주를 받은 뒤 금형을 만들면 늦으니까요.”

리화가.

미리아를 본다.

“명령받은 수량을 기한 안에 준비합니다.”

“내가 말한 건 어제인데?”

“어제의 명령은 오늘부터 실행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해도 되잖아.”

“하루 늦으면 하루치 생산을 잃습니다.”

“숫자로 때리네……”

리화는.

다음 공정표를 펼쳤다.

“현재는 2 교대입니다만.”

“아직 더 있어?”

“6 월 중에는 3 교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교대.”

“24 시간 조업입니다.”

“하루 종일!?”

“인원.”

하나.

“야간수당.”

둘.

“식사.”

셋.

“숙소.”

넷.

“기계정비 교대인원.”

다섯.

“모두 현재 산정 중입니다.”

“리화 씨.”

“무엇입니까?”

“언제 자?”

“저는 기계가 아닙니다.”

“응.”

“필요한 시간은 잡니다.”

“진짜?”

“제가 쓰러지면 판단이 늦어집니다.”

“자기까지 생산설비처럼 말하지 마……”

뒤에서.

다른 공작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낮은 진동이.

바닥에서 부츠로 전해져 왔다.

미리아는.

다시 공장을 둘러보았다.

작업자는.

교대로 쉰다.

리화도.

필요한 시간은 자는 모양이다.

하지만.

기계는.

다음 사람이 오면 다시 움직인다.

일요일.

오전.

신문 위에서 발견했던 휴일은.

이 공장 어디에도 없었다.

*

리화가.

공정표를 덮었다.

“다음으로 가시죠.”

“아직 있어?”

“어제 미리아 님은 의료와 혈액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했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장 큰 문을 빠져나와.

리화는 건물 뒤쪽으로 돌아갔다.

금속을 깎는 소리가.

조금씩 멀어진다.

그 앞에 있던 것은.

단층의 오래된 건물이었다.

원래는 하얬던 듯한 벽.

길쭉한 창문.

입구 위에는.

칠해 지운 붉은 십자가 흔적.

“진료소?”

“구 육군 공장 진료소입니다.”

문은 열려 있었다.

안에서는.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벽 치수를 재고 있다.

바닥에는.

줄자.

공구함.

말아 둔 전기배선.

벽 일부에는.

흰 분필로 큰 사각형이 그려져 있었다.

“여기 뭘로 쓸 거야?”

“수혈용 혈액 검사와 보관입니다.”

“채혈은?”

“여기서는 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이 넓이에 헌혈자를 모아 봐야 수가 한정됩니다.”

리화는.

방 중앙의 오래된 진찰대로 걸어갔다.

그 위에.

도면 한 장이 펼쳐져 있다.

“채혈은 시내에 분산시킵니다.”

“시내?”

“기존 진료소. 병원 한 방. 그리고 벨이 빌리는 가옥.”

“평범한 집에서 채혈한다고?”

“진찰실로 쓸 수 있게 방을 정비합니다. 의사와 간호사를 순회시킬 예정입니다.”

“거기서 뽑은 피를.”

“그날 안에 회수해 여기로 모읍니다.”

리화의 손가락이.

도면 위를 움직였다.

“이쪽이 검사실.”

하나.

“이쪽이 세척과 기구 소독.”

둘.

“안쪽 두 방을 냉장실로 개조합니다.”

셋.

“예비 발전기도 설치합니다.”

“……”

“일본에서는 아직 보존혈을 이 규모로 취급하는 시설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리화 씨는 왜 알아?”

“해외에서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미리아는.

도면을 보았다.

냉장실.

검사대.

병을 놓을 선반.

개수대.

전원.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는.

그저 오래된 진료소였을 것이다.

“나, ‘수혈용 피가 필요해’라고는 말했어.”

“네.”

“그런데 다음 날 대형 냉장고 도면까지 나올 줄은 몰랐잖아!”

“아직 발주 전입니다.”

“완성도 얘기가 아니야! 일이 너무 빠르다고!”

리화는.

도면에서 얼굴을 들었다.

“느린 편이 좋으셨습니까?”

“그런 뜻도 아니고……”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하는구나……”

리화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옆 종이를 펼쳤다.

이쪽은.

사람 이름을 적는 목록이었다.

“헌혈자는 벨이 모읍니다.”

“어떻게?”

“의료 관계자와 직업소개소. 그리고 각지 중개인을 통해서.”

“돈 줘?”

“채혈할 때마다 보수를 지급합니다.”

“피에도 가격이 붙네.”

“무상으로 필요한 양이 모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같은 사람에게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번 채혈하지 않도록 기록합니다. 성명. 혈액형. 채혈일. 양. 검사결과.”

“전부 여기서?”

“기록과 검사는 여기로 모읍니다.”

리화의 손가락이.

목록의 빈칸을 가볍게 두드렸다.

“누구에게서 채혈했는지 모르는 혈액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수 계약은?”

“설희입니다.”

“역시 설희 씨 나오네.”

“돈을 지급하는 이야기니까요.”

“도망갈 곳이 없네……”

“벨이 사람을 모은다. 제가 설비와 처리능력을 준비한다. 설희가 보수와 계약을 관리한다.”

“비행기는?”

“비비안입니다.”

“전원 등장했네.”

“미리아 님이 전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내 한마디가 사람 너무 부려 먹는 거 아니야?”

“이제 알아차리셨습니까?”

“리화 씨, 은근히 계속 찌르네!”

리화는 대답하지 않고.

검사실이 될 방으로 들어갔다.

*

벽 쪽에는.

오래된 약품장이 남아 있었다.

그 앞에.

새 나무상자가 여러 개 쌓여 있다.

상자 뚜껑에는.

《탈지면》

《의료용 거즈》

《붕대》

《소독용 알코올》

다른 상자에는.

유리제 주사기.

바늘.

고무관.

수혈에 쓰는 듯한 기구.

“이거 벌써 만들고 있어?”

“기존 생산품입니다.”

“여기서?”

“여기가 아닙니다. NOC 계열 공장과 계약업체에서 생산합니다.”

리화는.

주사기 하나를 상자에서 꺼냈다.

유리에 눈을 가까이 한다.

눈금.

끝부분.

통 안쪽.

하나씩 확인하고.

상자에 돌려놓았다.

“거즈와 탈지면은 증산 중. 주사기구는 공장을 추가합니다.”

“약은?”

“소독약. 설파제. 페니실린. 각각 기존 제약회사에 생산능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본 회사?”

“일본만은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부족한 것은 밖에서 들여옵니다.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은 국내 설비를 씁니다.”

“전부 여기로 모아?”

“모으지 않습니다.”

“또 아니야?”

“여기는 혈액 검사와 보관입니다. 의료품은 다치카와와 요코하마 창고로 나눕니다.”

“왜 나눠?”

“한 곳이 타면 전부 잃습니다.”

“……”

미리아는.

늘어선 나무상자를 본다.

전쟁.

공습.

집이 타 버린 유코.

어제까지였다면.

한 곳에 모아 두는 편이 관리하기 쉽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나눠 두는 게 낫겠네.”

“네.”

리화는 더 말하지 않았다.

“피만 있어도 치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약만 있어도. 거즈만 있어도. 주사기만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갖춰져야 의료?”

“네.”

“의료라는 말, 한마디로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미 말씀하신 뒤입니다.”

“취소할 수 없어?”

“취소하시겠습니까?”

“……”

미리아는.

나무상자를 다시 보았다.

“안 해.”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리화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얼굴로 문 쪽으로 향했다.

“그렇게 물어보는 거 좀 치사하지 않아?”

“무엇이요?”

“아무것도 아냐!”

*

다음으로 들어간 곳은.

진료소 옆 창고였다.

조금 전과는.

늘어선 상자가 다르다.

물고기 그림.

소 그림.

과일 이름.

미리아는.

가장 가까운 나무상자를 들여다봤다.

“통조림?”

“네.”

고등어 조림.

정어리 기름절임.

참치.

쇠고기 야마토니.

콩.

귤.

복숭아.

같은 크기의 캔이.

정연하게 들어 있다.

“이것도 기존 제품?”

“일본 국내에서 이미 생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평범하게 팔아?”

“팔고 있습니다.”

“군용이 아니고?”

“식품입니다. 군인 말고도 먹습니다.”

“그건 그렇지만!”

리화는.

상자 하나를 작업대 위에 올렸다.

뚜껑을 연다.

안에는.

빛바랜 녹색 캔.

영문.

《M UNIT》

《B UNIT》

“……”

미리아는.

캔 하나를 집었다.

“C 레이션.”

“네.”

“벌써 견본 있어?”

“비비안이 입수했습니다.”

“규격도?”

“있습니다.”

“그럼 뭐가 부족해?”

“정식 발주 수량과 납기입니다.”

“그것뿐?”

“그게 없으면 무엇을 몇 개 만들지 정할 수 없습니다.”

“사양을 모르는 건 아니구나.”

“미군이 어제 처음 통조림을 만든 건 아니니까요.”

“그야 그렇지.”

리화는.

미군 캔과.

일본제 캔을 나란히 놓았다.

“캔 치수. 권체. 살균조건. 내용량. 포장방법. 검사항목.”

하나씩.

손끝으로 가리킨다.

“필요한 규격은 이미 비교하고 있습니다.”

“일본 공장에서 만들 수 있어?”

“일본에 통조림 제조법을 가르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발전해 있었어?”

“어패류와 과일 통조림을 전전부터 해외에 팔던 나라입니다.”

“캔 자체도 통조림 공장에서 만들어?”

“아닙니다.”

리화는.

C 레이션 캔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용기는 제관회사에 발주합니다.”

“외주야?”

“캔을 만드는 설비까지 모든 식품공장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C 레이션 캔도 벌써 만들게 했어?”

“아직입니다.”

“거기는 기다리네.”

“정확한 수량도 모르는 것을 대량생산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 제관회사는 뭐 해?”

“현재 쓰는 캔을 증산하면서 각 회사의 설비와 생산여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파는 캔?”

“네.”

“주문 오면?”

“필요한 치수로 생산분을 전환합니다.”

“……”

미리아는.

손에 든 C 레이션을 본다.

“금형 이야기랑 똑같네.”

“같습니다.”

“지금 팔리는 거 만들면서.”

“설비를 움직이고.”

“사람도 남겨 두고.”

“재료도 들여놓고.”

“필요해지면 전환합니다.”

“멈춰서 기다리지 않는다.”

“네.”

“리화 씨, 그거 좋아하네.”

“공장이니까요.”

“그럼.”

미리아는.

C 레이션 캔을 흔들었다.

“크기나 검사를 미군에 맞추면 되는 거네.”

“내용물도 요구 범위 안에서.”

“전부 미국이랑 똑같이 안 해도?”

“미국인에게 팔 물건은 미국인이 먹을 내용으로 만듭니다.”

“한국으로 운반할 것은?”

“한국인이 먹을 내용으로 만듭니다.”

리화가.

다른 선반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조금 큰 캔들이 늘어서 있다.

《팥찰밥》

“……”

미리아는 집어 들었다.

“팥찰밥까지 캔에 넣었어?”

“기존 제품입니다.”

“전장에서 축하할 일 있어?”

“경사가 없어도 배는 고픕니다.”

“그건 그렇네.”

그 옆에.

라벨 없는 캔.

뚜껑에는 종이가 붙어 있다.

《고모쿠메시 시험제작》

“고모쿠메시까지 있네.”

“이쪽은 시험제품입니다.”

“먹을 수 있어?”

“차가운 상태로도. 중탕하면 더 먹기 편합니다.”

“밥 딱딱해지지 않아?”

“그 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문제는 있구나.”

“시험제품이니까요.”

미리아는.

팥찰밥 캔과 고모쿠메시 캔을 양손에 들었다.

“이거 하나 들고 가면 한 끼 돼?”

“양을 조정하면.”

“접시도 필요 없고.”

“캔따개는 필요합니다.”

“그건 필요하구나.”

“열지 않으면 먹을 수 없으니까요.”

“리화 씨, 가끔 엄청 당연한 말 하네.”

“필요하니까요.”

리화는.

고모쿠메시 캔을 미리아의 손에서 돌려받았다.

작업대에 놓는다.

“정식 주문이 올 때까지 통상상품으로 팔 수 있는 것을 만듭니다.”

“팥찰밥이나 생선 같은 거?”

“네. 생산량을 늘리면서 인원과 설비를 정비합니다.”

“주문이 오면.”

“캔의 치수와 내용물을 전환합니다.”

“진짜 전부 같은 방식이네.”

“공장이니까요.”

평소 상품을 만들면서.

사람을 복귀시키고.

기계를 돌리고.

재료를 모은다.

필요해지면.

만드는 물건만 바꾼다.

“멈춰서 기다리지 않는구나.”

“기다리는 동안에도 비용은 발생합니다.”

“팔리는 걸 만들어 두는 편이 낫고.”

“네.”

리화가.

창고 안쪽의 지도로 걸어갔다.

일본열도.

항구.

비행장.

철도.

몇 개의 선이 그어져 있다.

도쿄.

다치카와.

아쓰기.

미호.

이타즈케.

사카이미나토.

하카타항.

“후쿠오카와 돗토리 공장도 통조림?”

“통조림. 냉장설비. 기계수리. 각각 쓸 수 있는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벌써 샀어?”

“아직입니다.”

“리화 씨치고 느린데?”

“안을 보지도 않고 살 만큼 저는 후하지 않습니다.”

“그건 보는구나.”

“쓸 수 없는 공장은 싸도 비쌉니다.”

“……”

“쓸 수 있는 공장은 비싸도 깎습니다.”

“결국 깎는구나!”

그때.

벽 쪽의 검은 전화가 울렸다.

*

리화가 수화기를 든다.

“린입니다.”

짧게 이름을 댄다.

상대 목소리를 듣고.

미리아로 시선을 돌렸다.

“벨입니다.”

“지금?”

“지금입니다.”

“왜 나 봤어?”

“미리아 님께도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리화가.

수화기를 내밀었다.

미리아는 받아 든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미리아 님.』

“일요일인데 활기차네, 벨 짱.”

『일요일이니까 은행 임원을 붙잡기 쉽습니다.』

“좀 쉬게 해 줘!”

『골프 가기 전에 조금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아침부터 뭐 하는 거야……”

전화 너머에서.

벨이 가볍게 웃었다.

『후쿠오카와 돗토리, 둘 다 설비 사정까지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벌써 계약했어?”

『아니요.』

대답은.

즉시였다.

『설희 씨한테 공장을 봐도 계약서에는 손대지 말라고 단단히 못 박혔습니다.』

“거기 없는데도 압박감 있네……”

『서명권한을 가진 분은 강하니까요.』

“누구랑 얘기했어?”

『은행. 상사. 구 경영진. 제관회사. 그리고 지역 운송회사입니다.』

“재벌은 해체된 거 아니었어?”

『회사 간판은 떼어 냈습니다.』

한 박자.

『인맥까지 해체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나쁜 얼굴 하고 있겠네.”

『실례네요. 웃는 얼굴입니다.』

“그게 더 무서워!”

미리아는.

수화기를 다시 잡았다.

“후쿠오카는 어디?”

『이타즈케 비행장과 하카타항, 양쪽으로 운반할 수 있는 곳입니다. 통조림 공장과 냉장창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돗토리는?”

『미호 비행장과 사카이미나토. 식품가공장과 기계수리공장입니다.』

“비행기로 운반해?”

『급한 것은.』

“피 같은 거?”

『혈액과 의약품은 항공로. 통조림, 금형, 기계부품은 선박과 철도입니다.』

“전부 비행기에 실으면 안 돼?”

『비행기는 짐을 삼키는 마법 상자가 아닙니다.』

“알고 있어!”

『무거운 것을 실으면 그만큼 연료와 운항편수가 필요합니다.』

“네……”

『다치카와는 현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송기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비안이 화물 슬롯과 발착 순서를 확인 중입니다.』

“아쓰기는?”

『지금은 쓸 수 없습니다. 활주로는 남아 있지만 기지가 죽어 있습니다.』

“그럼 못 쓰는 비행장이잖아?”

『“자는 놈들 전부 깨워”라고 하신 분은 미리아 님이잖습니까?』

“비행장까지 포함이었어!?”

『전부, 라고 들었습니다.』

“내 발언 적용범위 너무 넓잖아!?”

전화 너머에서.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났다.

『기지 자체를 마음대로 손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공사를 맡을 수 있는 회사와 주변 격납고, 창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벌써 깨울 생각이잖아!”

『싫으셨습니까?』

“……싫다고는 안 했어.”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다들 그렇게 물어보지 마!”

벨은.

못 들은 척하기로 한 모양이다.

『아쓰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쓰려면 다치카와.』

“보낼 곳은 이타즈케랑 미호?”

『네. 이타즈케는 이미 깨어 있습니다.』

“깨어 있어?”

『너무 깨어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전투기와 수송기로 가득 찹니다.』

“지금 슬롯 잡아 둬야 해?”

『비행장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내리는 순서. 하역 인원. 창고. 그리고 다음으로 운반할 차입니다.』

“미호는?”

『반쯤 자고 있습니다.』

“비행장에 반쯤이 어딨어?”

『활주로는 쓸 수 있습니다. 정기 화물 슬롯과 냉장설비가 없습니다.』

“미호도 미군 비행장이야?”

『아닙니다. 영연방군 관리구역입니다.』

“그럼 뭐가 날아?”

『점령군 항공기입니다. 일본 항공기는 아직 비행이 금지돼 있습니다.』

“일본 비행장인데?”

『지금 일본은 자기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없으니까요.』

“……”

미리아는.

벽의 지도를 보았다.

일본열도.

그 위에 있는.

일본인이 자유롭게 쓸 수 없는 비행장.

“우리 C-46 은?”

『해외법인 명의입니다. 허가가 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가 허가 받아?”

『비비안입니다.』

“벨 짱은?”

『저는 비행장 밖을 잡습니다.』

“밖?”

『냉장창고. 운송회사. 병원. 은행. 헌혈자.』

“비행기 빼고 거의 전부잖아.”

『비행기는 착륙해도 짐을 병원까지 옮겨 주지는 않으니까요.』

“……그것도 그렇네.”

『다치카와에서 이타즈케를 주경로, 미호를 예비경로로 비비안이 비행계획을 작성 중입니다.』

“피, 비행기 안에서 상하지 않아?”

『보냉상자를 씁니다. 필요한 것은 출발지와 도착지의 냉장설비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형 냉장고?”

『벌써 보셨습니까?』

“도면만.”

『리화 씨는 일 빠르죠?』

“벨 짱도 같은 종류야!”

『영광입니다.』

“칭찬 아니야!”

리화가.

미리아에게 손을 내밀었다.

수화기를 돌려달라는 뜻인 모양이다.

“리화 씨 바꿔 줄게.”

『부탁드립니다.』

미리아가 수화기를 건넨다.

리화는.

즉시 업무용 목소리로 돌아갔다.

“후쿠오카 공장. 권체기 형식은?”

잠깐.

“보일러는.”

또 잠깐.

“냉장고 용량. 전력. 우물물 수질. 그리고 화차를 직접 넣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다음.

“돗토리는 사카이미나토까지 도로 폭도.”

벨의 대답을 듣고.

“네. 계약은 실사 후입니다.”

거기서.

리화는 전화를 끊었다.

“빨라!”

“필요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벨 짱 아직 뭐 말하고 있지 않았어?”

“말하고 있었습니다.”

“끊어도 돼!?”

“다음 전화에서 듣겠습니다.”

“사이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진짜 모르겠네……”

*

리화는.

벽에서 일본지도를 떼었다.

작업대 위에 펼친다.

빨간 연필.

다치카와에서.

이타즈케로.

한 줄.

미호로.

또 한 줄.

파란 연필.

하카타항.

사카이미나토.

그 너머에.

바다를 건너는 선.

“항공로는 혈액과 긴급 의약품.”

빨간색.

“해로는 식량, 부품, 금형, 차량.”

파란색.

“철도와 자동차로 공장과 항구를 잇습니다.”

“선만 그으면 벌써 운반될 것처럼 보이네.”

“보이기만 합니다.”

“아니야?”

“선 하나에 비행허가. 화물 슬롯. 연료. 조종사. 정비사. 하역. 창고. 차량. 계약이 필요합니다.”

“……”

“해로도 같습니다.”

“선 하나가 무겁네……”

“그러니까.”

리화는.

지도 옆에 새 서류를 놓았다.

《국내 업자 계약구분》

《주계약자》

《생산설비·금형 소유자》

“다음으로.”

“아직 있어?”

“누구와 계약하고.”

한 장.

“누구에게 만들게 하고.”

두 장.

“이익과 설비를 어디에 남길지 정합니다.”

“……”

일본 공장.

일본 은행.

일본 항구.

일본 비행장.

그것들을 쓰면서.

일본에는 돈을 남기지 않는다.

어제.

지하 회의실에서 들은 이야기가.

다시.

다른 형태로 눈앞에 놓였다.

“리화 씨.”

“무엇입니까?”

“오늘 일요일 맞지?”

“네.”

“슬슬 끝나지 않아?”

리화는.

공장 시계를 보았다.

“카타야마 씨가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차량 보러 간 사람 잊고 있었어!”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일요일 돌려줘!”

공장 안쪽에서.

프레스가.

다시 한 번.

무거운 소리를 냈다.

*

그때.

공장 밖에서.

귀에 익은 무거운 배기음이 가까워졌다.

“……”

미리아가.

고개를 든다.

두두두두두…….

“아.”

큰 문 너머.

빛바랜 국방색 차체가 보였다.

“돌아왔다.”

97 식 측차부 자동이륜차.

스스무가.

공장 앞에 세운다.

엔진이 꺼지고.

무거운 소리가 사라졌다.

잠시 뒤.

스스무가 종이 몇 장을 손에 들고 공장 안으로 들어왔다.

“카타야마 씨.”

리화가 부른다.

“확인 끝났습니다.”

“결과는?”

스스무는.

손에 든 종이를 본다.

“장부에 있는 차량은 대체로 확인했습니다.”

“움직여?”

미리아가 먼저 물었다.

“전부는 무리입니다.”

“어느 정도?”

“화물차는 여섯 대입니다.

94 식 6 륜이 세 대, 97 식 4 륜이 한 대, Toyota KC 형 트럭이 두 대.”

한 장.

“그중 94 식, 97 식, Toyota KC 세 대는 정비하면 쓸 수 있습니다.”

“세 대?”

“세 대 중 한 대는 엔진을 바로 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브레이크와 연료계를 손봐야 합니다.”

“그럼 세 대?”

“시간을 들이면.”

“나머지는?”

“나머지 세 대는 부품용.”

스스무가.

다음 줄을 본다.

“수리하는 것보다 쓸 수 있는 부품을 떼어 내는 편이 빠릅니다.”

“사망 판정 받았네……”

“차량입니다.”

“정비사라도 거긴 정 없어?”

“공통 부품은 쓸 수 있습니다.”

“리화 씨랑 같은 말 하네!”

리화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승용차는?”

“쿠로가네 4 기입니다. 95 식 소형승용차 두 대.”

“한 대는 사용 가능. 다른 한 대는 부품용입니다.”

“견인차는?”

“98 식 4 톤 견인차 시케 한 대. 정비하면 움직입니다.”

리화가.

스스무에게서 종이를 받았다.

위에서.

한 줄씩 확인한다.

“그럼 사용 가능한 화물차는 공장으로 돌려보내 주세요.”

“뭐에 써?”

“자재와 완성품 운반입니다.”

“역까지?”

“필요하면.”

리화는.

종이에서 눈을 들지 않는다.

“장거리는 벨이 확보하고 있는 운송회사를 씁니다. 우리 차량까지 장거리 수송에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공장 근처 담당?”

“우선은.”

“역할 분담 세세하네……”

“차량에도 적합한 일이 있습니다.”

리화가.

다음 줄로 시선을 옮겼다.

멈췄다.

“그리고.”

“네.”

“불명 차량은?”

미리아의 귀가.

쫑긋 움직였다.

“그거!”

스스무를 본다.

“뭐였어?”

“확인했습니다.”

“뭔데?”

“97 식입니다.”

“……”

미리아는.

공장 밖을 본다.

조금 전부터 스스무가 타고 다니던.

국방색 사이드카 이륜차.

“아까부터 타고 있잖아.”

“그쪽이 아닙니다.”

“또 있어?”

“있습니다.”

“무슨 97 식?”

스스무는.

한 박자 두었다.

“중전차입니다.”

“……”

미리아가.

멈췄다.

“전차?”

“네.”

“97 식 중전차?”

“그렇습니다.”

“……”

다음 순간.

“치하땅!?”

“……네?”

“치하땅 있어!?”

“왜 그런 호칭을.”

“어디!?”

“차량 정비동입니다.”

“보러 갈래!”

미리아는.

벌써 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미리아 님.”

리화의 목소리.

“뭐!?”

“서류가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전까지 일요일을 돌려 달라고 하셨습니다만.”

“치하땅은 별개!”

“무엇이 별개입니까?”

“전차잖아!?”

“전차입니다.”

“거봐!”

“무엇이 ‘거봐’입니까?”

리화는.

조금 눈을 가늘게 떴다.

그리고.

서류를 덮었다.

“카타야마 씨.”

“네.”

“안내를.”

“알겠습니다.”

“좋았어!”

*

차량 정비동은.

공장 구역의 더 안쪽에 있었다.

커다란 목조건물.

한쪽 문이.

반쯤 열려 있다.

그 앞에는.

조금 전 스스무가 확인한 듯한 차량이 줄지어 있었다.

덮개를 친 화물차.

작은 사륜구동차.

무한궤도식 견인차.

타이어를 떼고 목제 받침대에 올려 둔 차체도 있다.

“이게 쓸 수 있는 거?”

“재생할 세 대입니다.”

스스무가.

화물차를 가리켰다.

도장은 벗겨지고.

펜더에는 녹.

적재함 판재도.

군데군데 색이 달랐다.

“겉모습은 꽤 힘들어 보이는데.”

“겉만 보면.”

“안은?”

“아직 쓸 수 있습니다.”

“이쪽은?”

“부품용.”

“뭐 떼?”

“발전기. 등화류. 하체. 그리고 쓸 수 있는 금구.”

“진짜 전부 떼는구나.”

“버리기 전에 확인합니다.”

조금 뒤에서.

리화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합니다.”

“둘 다 물건 안 버리네……”

“사면 돈이 듭니다.”

“이유가 너무 현실적이야.”

스스무가.

정비동 안쪽으로 걸어간다.

“불명 차량은 이쪽입니다.”

“……”

미리아의 시선이.

그 앞에서 멈췄다.

트럭 너머.

먼지를 뒤집어쓴 궤도.

커다란 전륜.

낮은 차체.

둥근 포탑.

다만.

원래 그곳에서 뻗어 있었을 포는 없다.

기관총도.

떼어져 있었다.

“……”

미리아는.

천천히 다가갔다.

“진짜로.”

한 번.

궤도를 보고.

차체를 보고.

포탑을 본다.

“치하땅이다……”

“그러니까.”

스스무가 말했다.

“그 ‘땅’은 뭡니까.”

“애칭.”

“누구의?”

“내 거.”

“그렇습니까.”

“흘려듣지 마!”

리화는.

차체 옆에 섰다.

“역시 97 식이었군요.”

미리아가 돌아본다.

“리화 씨, 알고 있었어?”

“불명 차량이 존재한다는 것은.”

“치하라는 건?”

“거기까지는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리화는.

차체를 보았다.

“이전 재고조사에서 장부보다 한 대 많다는 사실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카타야마 씨한테.”

“형식과 상태를 확인받았습니다.”

“리화 씨가 보면 모르겠어?”

“저는 차량정비 전문가가 아닙니다.”

스스무에게.

시선을 옮긴다.

“카타야마 씨는 전문가입니다.”

“분업 너무 철저하잖아!”

스스무는.

종이를 본다.

“장부상 이 번호의 차체는 종전 후 해체 완료로 돼 있습니다.”

“해체 완료?”

미리아는.

눈앞의 치하를 본다.

“엄청 존재하고 있는데.”

“존재합니다.”

“왜?”

“처리기록까지 조사해야 알 수 있습니다.”

리화가 말했다.

“종전 후 설비 처분 과정에서 서류만 먼저 처리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악의 조직 부지에서 장부에 없는 전차 나오면 무섭지 않아?”

“무장은 없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야!”

미리아는.

다시 차체를 본다.

“움직여?”

“지금 당장은 무리입니다.”

“엔진 죽었어?”

“고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깨울 수 있어?”

“연료계와 전기계통. 그리고 하체를 다시 보면.”

스스무는.

차체 뒤쪽으로 시선을 보낸다.

“움직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오오……”

“미리아 님.”

리화가 부른다.

“뭐?”

“전차로 사용할 예정은 없습니다.”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얼굴에 나옵니다.”

“그렇게 알기 쉬워!?”

“네.”

스스무도 고개를 끄덕였다.

“스스무 씨까지!?”

리화는.

차체 뒤를 본다.

“견인에는 쓸 수 있습니까?”

“중량물입니까?”

“공장 내 기계. 자재. 금형.”

스스무가 잠깐 생각한다.

“속도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럼 재생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결정 빠르네!”

“쓸 수 있는 것을 놀릴 이유는 없습니다.”

“치하땅, 공장 취직하는 거야……?”

“그렇게 됩니다.”

“전차까지 재취업하네.”

미리아는.

궤도에 손을 뻗었다.

손끝으로.

장갑판을 가볍게 두드린다.

쿵.

둔탁한 소리가 돌아왔다.

“엔진 뭐야?”

“공랭 디젤입니다.”

“이쪽도 공랭이야?”

“네.”

“몇 기통?”

“12 기통.”

“……”

미리아는.

정비동 밖을 보았다.

97 식 측차부 자동이륜차.

그리고.

눈앞의 97 식 중전차.

“97 식.”

한 박자.

“공랭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명칭과 냉각방식은 관계없습니다.”

리화가 말했다.

“알고 있어!”

스스무의 입가가.

조금 풀렸다.

*

밤.

식당.

하얀 식탁보 위.

작은 수프 접시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다.

맑은 채소수프.

그 옆에는.

바구니에 든 빵.

작은 접시의 버터.

커다란 흰 접시에는.

잎채소.

얇게 썬 오이.

토마토.

그리고.

은색 작은 접시에 담긴.

정어리 오일사딘.

"……"

미리아는.

빵 하나를 집었다.

아침.

신문을 펼쳤을 때는.

오늘이 일요일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는.

공장.

금형.

혈액.

약.

통조림.

비행장.

항구.

차량.

마지막에는.

치하땅.

맞은편에서는.

K 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오일사딘에 포크를 댄다.

“저기…… 아저씨.”

“뭐냐.”

“오늘 공장 보고 왔어.”

“그런가.”

“구군 트럭 몇 대는 깨울 수 있대.”

“쓸 수 있으면 써라.”

“농기계 부품도 증산하고 있고.”

“듣고 있다.”

“약도 만들게 해.”

“그래.”

“캔도.”

“필요하겠지.”

“……”

미리아는.

빵을 뜯었다.

버터를 바른다.

“치하땅도 재취업해.”

K 의 포크가.

조금 멈췄다.

“……그게 뭐냐.”

“97 식 중전차.”

“왜 ‘땅’을 붙이지.”

“그건 지금 아무래도 좋아.”

“좋지 않다.”

“좋아!”

미리아는.

오일사딘 한 마리를.

빵 위에 올렸다.

“무장이 없어서 공장 견인차로 쓴대.”

“그런가.”

K 는.

다시 포크를 움직였다.

“쓸 수 있으면 쓰면 된다.”

“응.”

미리아도.

한입.

먹는다.

“……”

조금.

짭짤하다.

빵과 같이 먹으면.

딱 좋다.

샐러드를 한입.

수프도 마신다.

그러다.

미리아의 손이.

멈췄다.

오늘.

보고 온 것들.

멈춰 있던 기계.

돌아오는 사람.

고쳐지는 설비.

새로 만들어지는 금형.

약.

통조림.

트럭.

어느 것도.

전쟁이 끝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기계는 남는다.

공장도 남는다.

사람도.

기술도.

"……"

미리아는.

빵을 든 채.

K 를 보았다.

"있잖아, 아저씨."

"뭐냐."

"우리."

한 박자.

"일본, 엄청 부흥시키고 있는 거 아니야?"

K 의 포크가.

멈췄다.

"……"

*